朝鮮日報
夕刊 四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達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에」國皇帝、聯盟에 新政府樹立通告

上院議長사데익氏를首班으로 舊首都西方코레市에

【쥬네브三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 一世는 三日午後聯盟事務局에 覺書를 提出하야 에디오피아 新政府樹立을 通告하엿다 通告要旨는 左와 如하다

一、에듸오피아帝國은 首都를 아디스아베바市로부터 西方코레市로 移轉하고 上院議長울데·사데익氏下에 新政府를 樹立하얏다

一、그리고 라스·노블 將軍의 指揮下에 國軍의 改組를 實施하엿다

皇帝하일레·셀라시에 一世는 聯盟理事會席上에서 悲壯한活動을 最後로하고 近近倫敦에 歸還할豫定이다 (以上號外再錄)

各代表如出一口 制裁撤回를力說

에國皇帝提出의二決議案을 議長이朗讀(聯盟總會)

【쥬네브三日發同盟】聯盟總會는 三日午前十時半부터 에디오피아問題에 關한 討議를 續行하야 劈頭 葡萄牙代表몬데이로外相은 對伊制裁는 葡萄牙에 甚大한 犧牲으로되여잇다는旨를 力說하고 制裁案의 撤回를 力說한後 九月의 總會에잇서서 現狀에卽한 聯盟規約의 改正을 審議할것을要請하엿다 다음에 西班牙代表발쇼外相은「規約第十六條의強化」를 主張하고 西班牙代表의 演說의 譯이 끗나기 조금 前에 췌코슬로바키아 新聞記者의 自殺事件이 이러낫기때문에 방질랑議長은 十五分의休憩를 宣하고 再開後 弁비代表데브랑氏는「制裁撤回賛成」의 演說을하고 에콰도르代表산테비데氏도亦是「制裁撤回」를 主張하엿고 다음에諸國代表코드로外相은「條約의再檢討」를 主張한 다음 佛國代表델보스外相이登壇하야 局地的相互援助體制의 確立을 强調하야曰 經濟的財政的制裁는 局地的으로 實施할境遇는 相互援助의 諸制를 새로 確立하지안흐면 안된다 그리고 戰爭의脅威를 阻止할目的을가진 規約第十一條의 適用에當하야 平和를 破壞하려하는國家의 一票에依하야 平和的行動을 妨害하려하는 憂慮가잇슴으로 滿場一致를 必要치안키로 改正하기를바란다 델보스外相은滿場의拍手를 밧고 降壇、最後에방질랑議長은 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가 總會에 提出을要求한 二個의決議案을 朗讀하고 休憩를 宣言하엿다 때는午後一時十五分 總會는 午後三時再開豫定

쥬네브에到着하신 에皇帝와 두皇子와 皇女와 라스·가사將軍

聯盟總會傍聽席에서 新聞記者拳銃自殺

獨逸의猶太人排斥에憤慨코 피로써獨逸暴狀呼訴

【쥬네브三日發同盟】三日午前聯盟總會에서 西班牙代表페르시아外相의 演說飜譯中傍聽席最前列의新聞記者席에잇든 췌코슬라비키아新聞班렉크스氏突然포케트에서拳銃을내노와 목에發射하야自殺을企圖하얏다 이銃聲에무슨일이생겻나하야 全員總起立으로議場은大混亂에 落하엿다 방질랑議長은 再開를宣言함에 當하야 神聖한 議場에서 如斯한 不祥事를惹起한것은遺憾이다自殺事件은總會의議事와 直接으로도 間接으로도關係는업다고 述하엿다 렉스氏가 懷中에 두엇든 아브놀事務總長에게한書翰에서 議場을 騷然케한 罪를 謝한後 自殺動機에 對하야 左와如히 述하고잇다

自己는 維也納出生의 猶太人으로 그後췌코슬로바키아에歸化하엿는데 獨逸의 猶太人排斥을보고 憤激하야 참을수업고 몸을죽여 獨逸의 暴狀에對하야 世界의 注意를 喚起코저한다

고 述하고잇고 新聞記者들의말에 依하면 렉스氏는 最近常軌를 逸脫한點이잇고 그의 가방속에서 英國皇帝와 倫敦타임스 만저스터가듸언紙에보내는片紙가 發見되엇슴으로 아마 精神異狀으로因한 自殺인듯하다 또 렉스氏는三日夜에至하야 쥬네브病院에서드듸여 絕命하엿다

馬場藏相所懷의 稅制整理腹案

各省國策聽取後提示

【東京電話同盟】現內閣의 重大使命의 하나인 稅制整理에關하야 馬場藏相은 速斷的으로省議를開하고 成案을急히하고잇는데 藏相으로서의 腹案은 大體決定되엿다「國稅와地方稅」特히地方稅에 對한 交附金制에 關하야 最後的 決定을 짓지못하야 內務省으로서도 折衝을 거듭하야 될수잇는대로 國策閣議가 終了되기까지 增稅總額及地方交付金額의決定을 圖하기로 하고 各省의重要國策을 聽取하기까지 그腹案은提示치안키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大藏省이 目下調査하고잇는 稅制整理案의 輪廓은 左와如한바 그根本方針은

一、中央地方을 通하야 負擔의均衡을 圖할것
一、動產不動產間의 課稅不均衡을 訂正할것
一、個人에 對하고 法人에比較的 重히 課稅할것

等의 原則에 基하야 戰時統制經濟의 設備에對한 準備도 包含식혀잇는 點에對하야 注目되여잇다

▲國稅의整理

一、所得稅
가、第一種所得稅의 稅率을引上할것
나、同族會社의 加算稅率을引上할것
다、第二種所得稅、第三種所得稅의 總額에 課稅할것
라、第三種所得稅의 免稅點을引下할것
마、第三種所得稅의 株式配當四割控除를 廢止하고 加算利子를控除할것

一、營業收益稅
法人收益稅의稅率을 引上할것

一、地租
가、稅率은 大幅引下할것
나、但都市宅地租는 引下할것

一、資本利子稅 相續稅 取引所稅 酒稅 砂糖消費稅 織物消費稅 淸涼飲料稅 通行稅 印紙稅는 모다低率引上할것

一、臨時利得稅는 此를存續할것

【東京電話同盟】

▲新設稅
一、財產稅(低率으로創設)
一、賣上稅、化粧品稅、奢侈稅、가솔린稅、燐寸稅、百貨店稅、砂糖...

(營業收益稅는目下모다研究中)

▲地方稅의整理
一、家屋稅를 國稅로 移管할것
一、戶數割을 廢止할것
一、雜種稅를 整理할것

▲稅務機構의改革
一、稅務署의 增設 職員의增加를圖하고 調査의緊密을 期할에 依하야 脫稅를 防止할것
一、銀行、信託等에 支拂調査의提出을命할수잇는 權限을 稅務官吏에與할것

▲地方財政에關한
一、大藏省에對하야 地方財政에關한 監督의權限을 現在以上으로 强力케할것

▲地方交付金
一、大規模의 地方交付金을 法文化하고 此를 恒久化할것
一、收益稅系統의 保管稅及家屋稅를 財源으로 地方에相當한額의交付金을 與할것

侵略者의아페서 聯盟은屈服

瑞典代表의熱烈한演說

【쥬네브三日發同盟】聯盟總會는 三日午後三時四十五分再開 一般討議를續行하얏는데 페루代表、墨西哥代表、콜럼비아代表、瑞典代表等이 交交登壇하야 制裁撤回의不得已한事情을述하얏다 그中에서 國際法學者로써 令名잇는 瑞典代表헤실구우女史는 熱烈한心情을吐露하야 弱小國의悲運을同情하야 다음과가티 述하엿다

弱小國은 인제는 希望을잃다 聯盟五十個國은 인제는「侵略」아페 屈服하고 聯盟의 基礎는 根底로부터 破壞되기에 니르럿다 第二의 에디오피아帝國의運命을當하는것은 果然어느國家일가 吾人은 此를두려워한다

이러하야 一般討議는終了하얏는데 決議案은 提出되지못하고 總會는 午後五時散會하엿다 明四日再開할豫定이다

英佛白三國會談 콤뮤니케發表

【쥬네브三日發同盟】英國代表이든外相은 三日夜 佛國代表델보스外相 白耳義代表방질랑首相과 會談을함게하면서 로카르노協約에關한 重要會談을 遂하엿다 右會談結果 英佛白三國은 一層緊密한連絡을取하게되엿슴으로 右會談後 左의콤뮤니케가 發表되엿다

英佛白三國會談結果 三月倫敦의 第二次로카르노協約會談은 三國間에 速히會議를開催하고 現下歐洲政局에關하야 討議할이조타는데 意見이一致되엿다

種族鬪爭 北阿佛領에波及

【스세=튀니스三日發同盟】聖都에르살렘의 猶太人 아라비아人의 種族鬪爭은드듸여 北阿佛利加佛領튀니스에도 波及되야危險한空氣가 漲溢하고잇다 二日튀니스에서 아라비아人과 猶太人의 街頭論爭에서 兩種族間에大亂鬪가이러나 雙方에 多數의負傷者를낸事件이 勃發되는同時에 軍隊出動하야 警察과協力하야 治安維持에 當하고잇는데 더擴大될念慮가잇슴으로 軍隊를增援中이다

制裁撤回決議案 議長에起草一任

決議案內容은微溫的

【쥬네브三日發同盟】決議案起草委員會는 三日午後總會終了後開會 制裁撤回起草案에對하야 長時間協議를거듭하엿는데 結局總會議長방질랑氏에對하야 決議案起草를委囑하고 四日總會幹部會에提出하기로決定하엿다 議長은右決定에基하야卽時 法律專門委員을招致하고 協議한結果 草案內容에對하야 大體意見一致되엿다 決議案의內容으로 傳하는바는 어데까지微溫的으로 制裁案의撤回를勸告하면서 總會自身決議案을撤回지안코「侵略의成果」를 否認하야서 伊太利政府의 비위를 마추고、겨우몬테비데오 決議案을採用하는데 끈치리라한다 決議案內容으로 傳하는바는 左와如하다

▲第一、制裁撤回勸告案

一、聯盟總會席上 多數聯盟國代表는 制裁案을 撤回하고 伊太利政府와 正常關係를 要望한 事實에鑑하야 總會는 起草委員會에對하야 制裁案撤回勸告를 起草하기를要請함

一、米洲各國政府는 一九三二年八月三日 몬테비데오會議에서 採擇된 決議案을 想起하야 武力에依한 領土問題解決을 排擊함

▲第二聯盟改組案

一、聯盟各國은 聯盟規約改革에 關한 意見을 議長에게 提出하야 九月總會에서 檢討하기를提議함

英大使館態度에 大使館側不滿足

佐佐木氏殺人犯人이英兵임은틀림업다고 請訓後嚴重抗議意向

【北平三日發同盟】佐佐木氏殺害事件에關한 英國領事裁判에잇서서 英國兵士를 過失致死罪로하얏은 證據不充分이라고 겨우暴行罪로起訴한데對하야 日本人側의 憤激이甚하야 北平의日本大使館當局은 英國大使館當局態度에 不滿足하다고 本日左와如한 當局談을 發表하엿다

佐佐木氏殺害事件에 關한 英國領事裁判에서의 多數의證言으로보아도 佐佐木氏殺人犯人은 英兵中의누구인것은 疑心할수업는 事實로認定한다 大使館으로서는 本省에 請訓한後 英國側에 嚴重折衝할意向이다

張外交部長招宴에 川越大使出席

【南京三日發同盟】川越大使는三日午後八時外交大樓에서 張群外交部長招宴에 臨하엿는데 同招宴에는 行政院各部長을 爲始하야 中國側各要人이參會하야 日中交驩의一夕을보내엿는데 川越大使는 四日夜大使官邸에 中國側要人을招待하야 宴을베풀엇고 來週부터는各要人과 個別的으로 會談하고 意見交換을行하야 對中關係折衝의 第一步를 踏出하게되엿다

外地도增稅斷行

鐵道、遞信兩特別會計益金도 따一般會計에繰入키로決定 大藏省議서方針決定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財政現狀에鑑하야 日本內地와 倂行하야 日本外地에도 어나程度의增稅를 行케하고 此等增收額을 一般會計에 繰入케할方針인데 三日午後藏相官邸에서 省議를開하고 特別會計와 一般會計의調整에關한 益金繰入問題에對하야 協議한結果 外地會計同樣으로 鐵道、遞信兩特別會計에對하여도 益金繰入을 要請하기로되여 近近閣議에서 馬場藏相으로부터 遞信鐵道拓務의 關係各省에對하야 特別會計의 益金繰入問題에 對하야 政治的折衝을 行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大藏當局에서는 數日中 各特別會計마다 適切하다고 認定하는 繰入額을 決定하고 此를 關係各省에 提示할意向인데 大藏當局으로서는 全體로 年額最少限度로 五、六千萬圓은 特別會計에서 繰入을 圖할 方針인듯하다 따라 그結果益金의 繰入問題는 遞信鐵道를 爲始하야 더욱紛糾하리라고 觀測되는바고非難은 자못注目되여잇다

蘇艦海峽通過에 各國間談解成立

【쥬네브三日發同盟】聯盟總會散會後三日午後 이든英外相 蘇聯代表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 佛國代表델보스氏、루마니아代表티트레스코外相 土耳其代表아라스外相은 數時間에 亘하야會談 몬트르會議의難關打開에對하야重要協議를 遂하엿다 協議結果 各國代表는 蘇聯軍艦의 海峽通過에 關하야 自由通行을 承認하는데大體 諒解가 成立된것이라고解釋되다 諒解要旨는 左와如하다

一、各國政府는 聯盟理事會의決定 又는理事會에依하야 承認된 義務를履行할境遇에는 當該艦隊에對하야 海峽通過의自由를 承認함

一、蘇聯政府는 蘇聯艦隊를 防禦키爲하야 必要하다고 認定할境遇에는 海峽을 經由하야 自由로黑海艦隊를 出動할수잇는權限을 保留함

一、平時에잇서서는 土耳其政府가實施한 海峽通航에 關한規定을 嚴守함

右諒解가 成立된結果 佛國代表 불롱쿠르氏 土耳其代表 아라스外相은 四日卽時 몬트르에 赴하야技術委員會最終會議에 出席할豫定이다

獨艦의訪問으로 단치히市益緊迫

【단치히三日發同盟】獨逸海軍의 精銳라이프치히號는 단치히港을訪問하야 以來自由市의 政情은險惡을呈하야 聯盟最高委員 리스터氏가 急遽쥬네브에赴한後를따라 自由市上院議長크라이저氏도 三日午後 飛行機로 自由市를出發하야 伯林에急行하엿다 伯林으로부터羅馬에赴하야히틀러總統과會見하고 聯盟理事會에出席하야 自由市의政情에對하야 報告하리라고 觀測되는一方 단치히나치스黨本部는 三日 解散中인단치히突擊隊를召集하야 森嚴한形勢를 示하고잇다

八面鋒

◇ 貧寒한女子가 街路上에서 解産、原因은 病院에서 拒絕한 까닭이라고。

◇ 六十萬府民이 사는 京城이다 公立產院하나쯤은 잇서야體面이라도維持할일이아닌가。

◇ 漢江에投身自殺、今年들고六十名、每朔平均十名은過한數字。

◇ 그보다도 生을回避치아니치못하는人間이 漸漸늘어가는現狀이 過히不快한일。

◇ 制裁案撤回에對한 具體的處置를하기爲하야 新委員會를設置하자는意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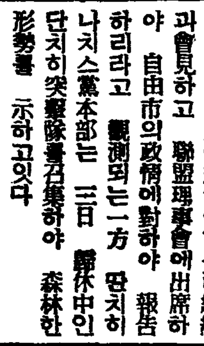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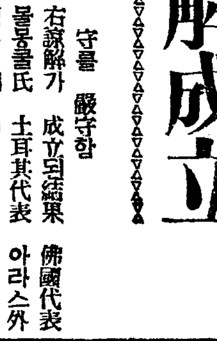
◇ 提案者가中國代表顧維鈞이라하니、中國에서는 아즉도 聯盟에 숨ㅅ기척이 잇는줄아는모양。

人事·集會

▲駐京米國總領事館의 獨立記念祭 第六十一回米國獨立記念祭는 四日午前十時半부터 貞洞米國總領事館에서 行하엿다

▲金永鍊氏(安南하노이 東方考古學研究所員)李淑仁孃과의 結婚式은 四日午後一時府民館에서 擧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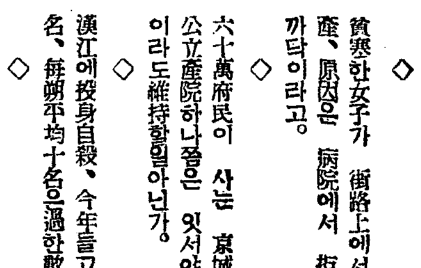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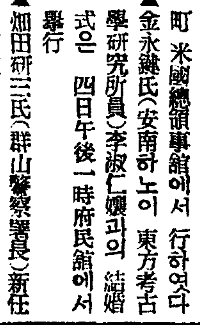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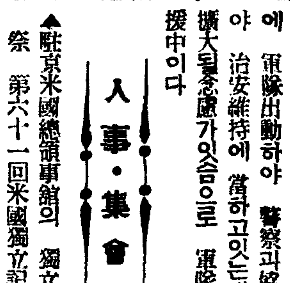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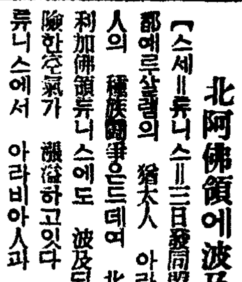
▲畑田研三氏(群山警察署長)新任人事次 四日來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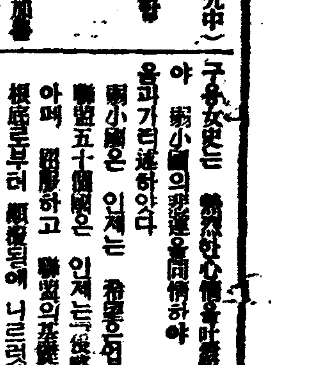


断然値下げ断行
特別サビス付大賣出し
▲三圓以上ノ品一個買上毎ニ眼鏡(老眼・近眼・遠眼・色眼鏡等御希望通リ進呈)一個宛進呈致シマス!
B一度ニ六個以上御註文ノ際ハ特別五分引一打以上ノ時ハ一割引ニ奉仕
★セイコーシャの
(1)市價三分ノ一ヨリ安イ破天荒ノ大奉仕デモコンナ素晴シイサービスハ絶對ニ他ノ追隨ヲ許サズ
(2)品質優良大衆本位ヲモットーニ致シ全品十五ケ年保證
(3)此廉價ニモ拘ラズ多量ノ際ハ割引ノ特典ガアル
●註文は必ず三割以上を要し送料は四十錢に限り御負擔
クローム側懷中 (16型) (10型)(11型)
クローム側腕巻
十八金HK側腕巻時計 (8型)(9型)
十八金HK懷中時計 (16型)
クローム側ウオルサム懷中
十八金HKウオルサム懷中
●送金は振替・又は小爲替にて願ひます
Ⓢセイコーシャ 地方時計部 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ノ六一〇番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朝報案內

紛失
本人이六月二十三日發行額面三百圓의爲替手形을紛失하엿사오니該手形은無効이오니諸賢은照亮하시옵
京城府公平町百十四
李康旻

廣告
弊商會는布廣告中忠南各產業組合과共同組合特約店云云은事實과相違이옵고右記組合과關係가無함을廣告함
群山府幸町五
山亭商會

地下에埋藏된黃金은簡單한砂金試掘機로!

新案二二七二四〇號

特許一一二〇三九號

新案二二三二七號

電話本局八六三 三四四 京城府中林町
朝鮮鐵工所

商都の代表品
エキストラ

エキストラ萬年筆は發賣二十有餘年の歷史を持ち最も信賴出來る優秀品として大好評を博して居ります。品種は五十有餘種あり御希望通りの品を御撰擇出來ます。殊に只今は創引・景品付大特賣中 詳細は下記ヘカタログを御申込の上御一覽下さい。
東京市芝區田村町二ノ一 田中榮和ビル 明盛堂製作所
振替東京三八〇一〇
I-KATOU エキカトール

品実共ニ日本一

神戶市 帝國鉄工所 朝鮮一手販売店 京城府東亜輪業株式會社
紳士用 最高級自轉車 二年保證
(請求次第型錄進呈)

國產眞石玉眼鏡
(品質保證書添付)

돌안경
眞石玉眼鏡을求하시라면必히信用잇고歷史깁흔 剛明堂本店 磨玉部로
天然眞石玉都賣 剛明堂本店 磨玉部
朝鮮慶北榮州邑內
振替釜山二四六九

堅實하고有望한
직업은장갑
專屬製造家募集
自動休針裝置의特許
福積編物工業朝鮮營業所
京城府鍾路六丁目初橋東
本社 大阪市北區岩井町二丁目

過渡期的便法으로 工場取締規則制定

事故、災害、衛生、保安에 着眼 警務當局立案에 着手

공장의 보안(保安) 위생(衛生) 위해방지(危害防止)등의 취체규측정비는 산업조선의 발전을 조장하기위하야 긴급한 문제이라고 지난번 경찰부장회의에서도 각도경찰부장으로부터 자못 구체적중요의견진술이 잇섯스므로 식산국에서도 요사이 경무국과 제휴하야 산업계에 대한 취체에 만전을 긔하기로되야 여러가지 자료를 제공하고잇는데 경무국에서는 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야 공장법의 시행은 지금 아즉 생각지안하고 지전(池田)경무국장시대에 공장을 실지시찰하며 공장주와 의견을 교환한때에 긔초를두어 과도적제도로서 공장취체규측을 제정키로결정하고 방금안을 급히하고잇는데 각도의공장건설이 급속도로 증가됨에비추어 우선 속히 실시하기위하야 대체로 다음 몃가지점을 중심으로 취체법을 강구하야 긔회잇는대로 일반경찰관사이에도 그지식을 보급식혀 산업조선의 실정에 맛는취체방침을세우기로되엿다한다

一、원동긔(原動機)공장 자동차사고방지대책및 각도의 검사표준의결정

二、원동긔 공장 자동차관계법령의 정비에관한 긔술적조사

三、각도의 긔술관지도 감독과 일반경찰관의 공장지식보급

四、공장종업원의 보안 위생재해방저대책

"淸溪川改修를 上府에 要望키로"

京城府都市計畫委員會의意見

경성북부선민의 최대의 관심사인 청계천(淸溪川)을 어떠케처치하느냐 하는문제와 금후대경성의 토목사업을 실시하는데 어떤방침으로 할것이냐 하는중대한문제를가지고 삼일오후두시부터 경성부회의실에서열린 경성부도시계획조사위원회(都市計畫調査委員會)는 출석자 사십여명으로 감서부윤(甘庶府尹)통제하에 토의를한바

一、청계천문제는 제일안으로는 량측암거안(兩側暗渠案)이잇고 제이안으로는 전천피복안(全川被覆案)이 잇서서 이두가지 론을가지고 론의를하엿스나 역시문제가방대한 예산을요하는 대공사이니 이자리에서 안을 채택할바가아니고 부에서 총독부에서 결정된경성시가지계획에청계천개수계획을 포함케하여달라고요망하는것이 조켓다는 의견이일치되엿고

一、경성부토목사업의 금후방침에대해서는 금후삼십년간의토목사업전반에대하야 열심히론의한바잇섯스나 별반의 의견의결말은업섯고 각자의 의견진술에끄친정도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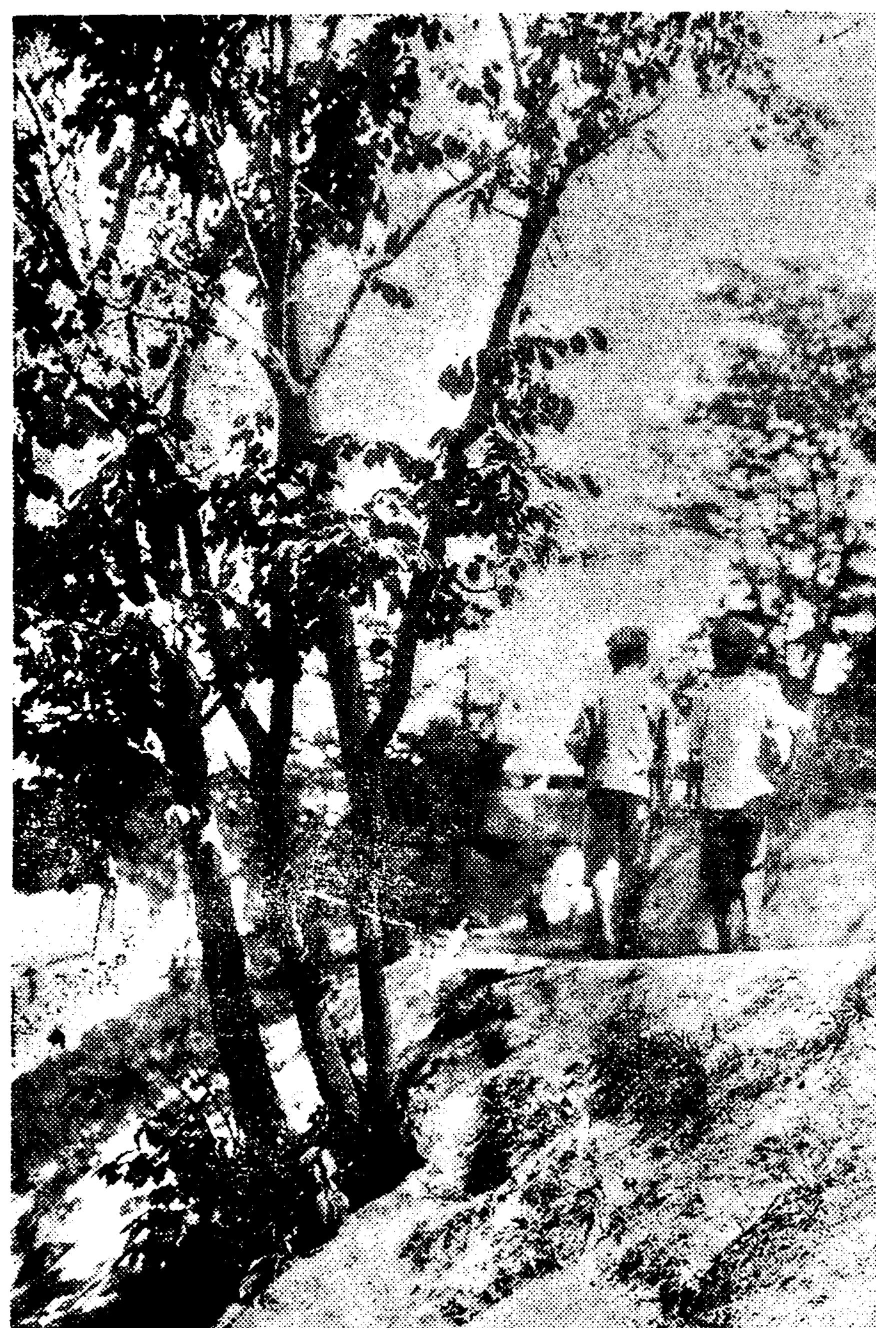
割腹自殺

肺病患者의身病淸算

폐병으로 오래동안고민하든끄테 배갈러죽은 가엽슨 청년——시내신수정(新水町)삼백륙십팔번지 리명봉(李明奉)(二七)이라는 청년은 지난사흔날오후한시 자긔집에서 날카로운면도로 아래ㅅ배를갈러 현장에서 즉사햇는데 원인은당자가 여러해전부터 부족증을알코나려오든중 요지음와서는 병이 더욱더처저서 아모래도 회생될가망이업스므로 이것을비관하기때문이라한다

太平通二丁目에事故

삼일오전열시 이십분쯤 하야 태평통(太平通)이정목 백십이번지압길에서 태평통이정목팔십삼번지 미구니(三國)택시-운전수 라상식(羅相植)(二九)이가 경(京)구천삼백삼십이호차를 운전하고 남대문통으로 가든중 전긔지점에서 아현정(阿峴町) 삼백팔십삼번지의십호김순길(金順吉)(三○)이 돌연횡단하려다가 그만치여 서소문전(西小門前) 전중환병원(田中丸病院)에 입원치료중이라 한다



午後의 綠陰 (今日南山에서)

悖倫의保險 死刑、求刑

【釜山支局電話】보험금에 눈이 어두어 친형 안해 장모등을모조리죽이고 나서다시 장인마저 죽이려다가 경찰에 검거된 희세의 패륜적보험마 김인후(金仁煦)(三五)에 관한 살인사건의 제이회공판은 나흔날 오전 여덜시이십분 부산지방법원 제일호법정에서 황권(荒卷)재판장주심 다전(多田) 중야(中野) 두 배석판사렬석 대국(大國) 검사립회아래 개정되엿다 사실심리에 드러가 피고 김인후는 독살사실을 일체로 부인하고 큰목소리로 자긔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엿스나 립회검사로부터 피고의범죄사실은 조서에의하여 경찰서와 검사정에서 뚜렷하게 자백한것이 드러난이상 다시 의심을 품어지가 업다는 준엄한 론고를한다음 사형을 구형하엿다。그리고 판결언도는오는십칠일에 하기로하고 폐정하엿다

遺腹子의압날幸福을 聖堂門前에서發願

棄兒遺棄犯 李分伊의눈물겨운哀話

참아버릴수업는 갓난아들을버리고 결국죄인으로 심문을받게되는 그어머니의 서러운 이야기=사일오전 아홉시경에 시내종로서(鍾路署)에는 황해도평산군(平山郡)출생의 리분이(李分伊)(二三)이라는 녀자를 긔아(棄兒)범인으로 붓잡아다가 취조중인데 그는 지난달이십일 오후열한시경에 시내명치정(明治町) 천주교회당(天主敎會堂)안에 갓난사나이를 버리고간눈물의죄를지은 어머니로써 그리면에는 눈물겨운사정이 들어잇섯다 즉전긔리분이는 전긔고향에서 열여섯살때에 그동리품파리를 하고잇는 박승로(朴承魯)에게 싀집을간후 이래 이십년동안 가난과 싸호며 살아오다가 작년말에그나마 믿고잇던 남편이 병들어 죽어 도저히살아갈길이업서 지난달초하룻날 열다섯살된 그의 아들을 남의집머슴으로주고 유복자를 배에품은채 살길을차저 서울로 올라와서 헤매고다니다가 전긔와가티 지난달이십일에 시내미근정(渼芹町)부근에서 산긔가잇서서 갑작히할수업시 그동리김월이(金月伊)의 오막사리집에 들어가서 옥동자를낫타하엿다 그집역시 매우가난하야 도저히 아이를 살릴길이업서서 전긔김월이와 의론한결과 천주교회에는 아이를길러준다는 말을 밋고 그와가티버린후 아들의압날행복을 그자리에서빌고 사라진것인데 경찰에서도 그불상한 처지를동정하야 관대한 처분을하리라고한다

纛島强盜 不日送局

지난 륙월십삼일 오전세시반부 외서둑도리(西纛島里)사백칠십칠번지 림옥석(林玉錫)의 자는것을 습격하야얻은 식도상인강도(食刀傷人强盜) 경북안동출생(安東出生)절도전과삼범 리한필(李漢弼)(二四)에 대하야는 소관동대문서(東大門署)사법게(司法係)에서는 그동안 습격하엿슬때 도리혀전긔 피해자로부터 바든 상처가 회복되기를 기다려 이등주임(伊藤主任)이 직접 취조를 계속하고 잇는중인데 그는 지난 사월이십팔일 절도일년반의 형을 마치고 서대문 형무소를 나오자 버리할곳을차저 강원도홍천(洪川) 양구(楊口)등지로도라다니다가 류월오륙일경 다시상경하야 시내각처를 정처업시방랑하다가 절도로 로비(路費)를버러가지고 고향으로도라가기로결정하고 십이일오후네시경에 씨름을차저 전긔뚝섬으로 가든길에 하왕십리에서 식도한자루를사서 몸에품고 씨름구경을하고 나와서는 그근처 두곳에서 팔십칠전의절도를한후 오전세시반에 전긔장소에침입하엿든것으로 취조경관에 대하야 강도의의사를 완강히 부인하고 잇스나 취조일단락을 짓는대로 근근상인강도의 혐의로 송국하리라고한다

洛東江、南江의分水嶺 智異山에 "森林測候所"開設

水魔의跳梁을事前에豫知

여름마다 항상 잇는수재(水災)를 막기위하야총독부에서는작년 전조선에 수방단(水防團)을조직식혓는데 총독부림정과(林政課)에서는 다시금년부터 삼림측후소(森林測候所)를 설치하고 수재를미리 알리는방법을 취하기로되엿다 상류지방의우량(雨量) 물결의 속력 토지의 습도(濕度)등 홍수의 원인이되는 『물의현상』을자세히조사하면 몃시간후에는 하류의어느부분에서는 어느정도의 물이 날것이란는것이 확실히 예보할수 잇슬터로 수방단의 활동에나 방수、피난등에 만흔편의가 될터이나 현재 조선측후소는 이가튼 조사를 하지도 안흘뿐 아니라 그 위치가 조사에 불편한 곳에잇고 그수가 작어서 그런점으로조사는 할수업는 형편에잇슴으로 이번림정과가얼마간 경비를세워 시험적으로 관계각도와 련락을 취하야 개설키로된것인데 금번에는 전조선에서 가장수해가만흔 락동강과 남강(南江)의 분수령(分水嶺)인 지리산(智異山)에 한곳만 우선설치키로되엿다

飮毒自殺(未遂)

사일 오후 다섯시경에 시내봉익정(鳳翼町)칠십사번지 리순옥(李順玉)(二三)이라는 녀자가 자살을 하려고 아로나루라는 약을 먹고 신음하고잇는것을 집안사람이발견하고 시내 인사정(仁寺町) 신필호(申弼浩)병원에 입원식혀응급치료한결과 생명에는 이상이업다는데 가정불화로 그와가티 한것이라고한다

京城保育學校 地方巡廻演奏

北朝鮮과滿洲에一週間豫定

시내청진정 경성보육학교(京城保育學校)는 금번에 창립십주년을 마지하는한편에 교사의경사를 마지하는한편에 교사를신축하야 교운(校運)이 날로융창하는중 금번 녀름휴가에는 특히 동교학생들과 교직원(敎職員)들로서 조직된 순회연주단(巡廻演奏團)이 십사일 경성을출발하야 다음의 각지방을순회하면서 그들의 연마된 곡술로서 음악 률동유희(律動遊戱)체육무용(體育舞踊)등을 연주하리라한다

▲十四日 開城(中央會館)▲十六日 平壤(白善行記念館)▲十七日 宣川(宣川會館)▲十八日 新義州(公會堂)▲二十日 安東縣(公會堂)▲二十一日 奉天(奉天劇場)

天氣予報

概況 低氣壓은 北海道의東西部에잇고 또上海西方에도 弱한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 小笠原附近海上에 떠저잇스나 勢力이 弱하다 滿洲地方에잇다 滿洲와朝鮮은 天氣가조코 南鮮은 흐리는 곳이 잇스며 滿洲와朝鮮의天候는不安定함으로 明日은 흐릴것갓흐며 비가조금내릴지도모르겟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흐리는편이며 明日도흐리는편이며 或비가조금내릴지도모른다 京畿全區도가타다

昨日最高 二四度六
同 最低 一六度四
今朝最低 一五度六
今日正午 二四度五

方針에變更업다고 緩和陳情을一蹴

普天敎幹部의警務局訪問水泡

일전에 전북경찰부에서 탄압을당한 보천교(普天敎)에서는수일전에 경무국에 대하야 탄압완화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엿다함은 긔보한바와갓다 그런데 사일에는 다시보천교에서 수호사장(修好司長)리병철(李柄喆)경리사장(經理司長)원약제(元若濟)평부정리(評部正理)권상도(權相道)등 세명이 경무국에출두하여 여러가지 보천교에대한 변명을하고 탄압을 하지마러달라고 진정하엿다 보안과에서는 마침과장은 부재하여만나지못하고 긔긔(幾機)사무관이맛나 진정을드른후 보천교취체방책에는 하등변경이 업다고말하야 그들의진정을 일축하엿다한다

運動競技

中等野球開幕 徽文優勢 對中央第一回戰에

延禧專門主催의 第六回京畿道內中等學校野球大會第一日은 四日午後一時十一分부터 延禧球場에서 徽文 中央 大東 善隣等四校가 參加한가운데열리엇다 同大會長 元漢慶氏의開會辭가 잇섯고 昨年度優勝校徽文高普로부터 優勝旗를返還한後 選手一同을代表하야 善隣의 劉得鉉君이宣誓文을 朗讀하니 이로써入場式을마치고同午後一時四十三分 徽文對中央의 第一回戰으로부터 競技는開幕되엿는데 三回까지에 徽文이 中央을壓倒하야 七對一로徽文리ー드하고잇다

專賣局運動會盛況

第三回專賣局各部對抗運動競技大會第一日은 四日午後一時부터京中運動場과 西大門町官舍運動場에서 全朝鮮의 各專賣局으로부터三百餘名代表가參集한 가운데 열리여大盛況을이루엇다

平實10 大田4

第十回全日本都市對抗野球朝鮮第二次豫選第二日……準決戰의 平壤實業對大田鐵道戰은 四日午後一時卅四分부터 京城球場에서大田先攻으로 開始

◇投捕＝(平實)朴—任 松本(大田)加賀、金、田宮—任

大田 100002001……4
平實 10310203A……10

銃器所有者 八百九十九名

京畿道內朝鮮人調査

경기도 경찰부보안과(保安課)의 조사한바를 보면 금번사월말 현재로 경기도 안에서 조선사람으로 총(銃)을 가진 사람은 합계 팔백구십구명이며 사용허가증(許可證) 또는 면장(免狀)을 가진 사람은 륙백십팔명이엿다한다 총가진사람 총수가운데에 엽총을 가진사람은 팔백오십구명이며 권총(拳銃)을 가진사람은 사십명이라한다

京城—南陽(咸北國境)間 埋沒"케불"敷設

遞信局의通信幹線强化策

일본과 만주와의 통신련락에 중대한 사명을 가진부산(釜山) 경성 신의주(新義州)사이의 유선(有線)『케이불』부설공사는 일본내지와 조선두체신당국이 협력하야 약 일천만원을 드려서 삼개년계속사업으로 오는팔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되엿다 소화십삼년에는 약 삼십회선의 전화『케불』이 동경(東京)과 신경(新京)을 련결하기로 되엿는데 체신국에서는 다시 명년도 국책예산(國策豫算)으로 경성과 함북국경남양(南陽)을 련결할 일천키로나되는 땅미테무든『케불』부설의큰계획을세워그경비를 요구하기로 되엿다。

즉 국방(國防)의 안목으로 보아서 현재의 가공선(架空線)은 자못 위험성이 만코 북조선지방은 현재 겨울의 눈때문에 각금 통신이 막히는 형편이며 또한 그지방은 더욱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잇스므로 일시 큰일이 생길때에는 통신시설의 완비가 필요하게되엿스므로 전긔경성 부산 및 경성 신의주의 『케불』과함께 경성을 중심으로한 조선통신망의 『Y』(와이)자 형용의간선을 전부 지하케불로하야 통신의 대동맥을 맨들게하고저하는것이다。

체신국에서는 명년도 국책선의 예산(先議豫算)으로 항공시설(航空施設)과 함께 세울방침인데 경성 남양사이 약일천키로『케불』의 삼개년계속총경비는 일천만원을 넘을 모양으로 경부 경의간의『케불』이 일본내지 조선 두체신당국협력으로 실행될 터이다 명년도 이새사업은 체신국단독의 사업인만큼 체신국에서는 일즉이드문 큰사업이 될터이다

이것이 완성되는 때는 경성과 북조선일대와의 통신은 자못 원활하게되여 조선의통신간선은 이에비로소 완고하게될터이라한다

三南一帶에地震!

發震時間은 四日午前6時2分35秒

微 輕

【大邱電話局盟】사일새벽에 대구(大邱)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단꿈을 깨트렷다 대구측후소의발표에 의하면 지진이 처음 일어난시간은 사일오전 여섯시이분삼십오초로 처음에 약간 옴지긴시간이 십삼초 진앙거리(震央距離) 구십륙키로이며 진원지(震源地)는 조사중인데 이지진은 남조선일대에 뻗처서 사람의몸에 느낄만한정도로 진앙은 대구측후소에서 서남 구십륙키로(약이십사리) 지점에 해당하야 전북지방인듯하다

海南에地震

【海南支局特電】전남해남(海南)지방에서는 사일 일은아침 여섯시에 별안간에 지진(地震)이 일어나서 유리창이 요란히 흔들리는 정도로 약 일분간 계속하엿다 동쪽에서 서쪽으로옴겨갓는데 그때는 아직 모다잠드러 잇슨때이엇스므로 별로소동은 업섯다 해남지방에서는근래에 보기드문 지진이엿다

戰鬪機墜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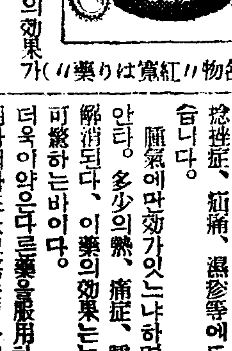
【長崎電話局盟】삼일오전여덜시사십분경에 대촌(大村)해군항공대 소속 야해(野海)중위 소웅(小熊)항공병조장 이등(伊藤)일등항공병이탄 제칠백팔십구호 전투긔는 장긔북고래군소야촌(長崎北高來郡小野村)상공에서 비행훈련중에 갑작히 긔관에고장이생겨떠러저 야해중위는 즉사하고 나머지두명은중상을입엇다

간질

驚風腦病은참말어려운病이다 適當한良藥으로治療하시옵 弊堂에예날부터效能本位의良藥이잇스니 모르는분은申込하라 藥의內容은無料送呈함 大阪市浪速區役所北 大福堂

神經痛 류이마치 打撲은勿論、肺炎症 扁桃腺炎 氣管支炎 其他、特히 難病者에 勸합니다

鷄卵과석겨서 病患部에부치는 紅寮はり藥 (베니하리구스리)



▼于先病源의 毒熱을解消 諸機能의障碍를除去하라

病에따라 每日服藥하여도 조곰도效果가업다。또한身體가衰弱하야 腸의吸收力과、患部의諸機能이 衰하야 血行이弱한분도服藥의效果가 나지안는다。그런분은이藥을使用하야 病은外部로부터治療식히라。

元來、病이라하는것은、身體의어느곳에나 故障이생겨、그곳에熱이생기고、血行이나빠서、諸機能의活動과、新陳代謝作用이衰한結果 아푸던지、붓든지、病菌이繁殖하야、물과毒素가차서、糖、蛋白이나오든지、異常이생김으로써 어떤病이라도、于先惡症의原因되는病源의熱을除去하며、患部의諸機能을다시씩씩하게、자연히故障을除去하는것이病을克服하는第一近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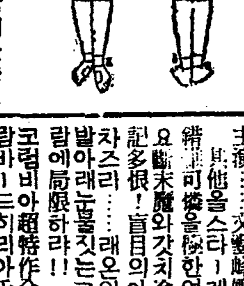
▼諸病은外部로부터治療 良效의"紅寮はり藥"

『紅寮はり藥』(베니하리구스리)는 여러藥石가지 貴重藥에、연지를配伍하야지여낸粉末이다。

이것을鷄卵에混合식혀네루布에발너가지고、病患部에 부치면五分도못지나藥의作用이생기여、二十時間繼續하야藥效를나타낸다。神經痛、루이마치、痛症、腫症、

喘息等은勿論이고、打撲症과가튼 오랜病에는 實로그效가顯著하다。또한肺炎症、肋막炎、腎臟炎、氣管支炎、百日咳、中耳炎、胃腸病等과가튼患部에熱이잡겨、아푸고붓는곳에、또는熱이놉흔病에는 반드시 使用하시라。더욱연주창 扁桃腺炎、腰帝、關節炎、筋炎、捻挫症、疝痛、濕疹等에도效가잇슴니다。

腫氣에만效가잇스냐하면그러치 안타。多少의熱、痛症、腫氣는곳解消되다、이藥의效果는누구든지 可驗하는바이다。더욱이藥은다른藥을服用하면서併用하더라도決코害는업다。特히服藥하기難한嬰兒等에는참으로理想的이다。



또는皮膚를傷치안코、살에붓는일도업다。

藥價 壹箱 金參圓也 (壹箱은患部가넓은분이라도十日、普通은二週間使用)

▲送料卄七錢 急하신분은 振替拂込領收證을同封注文하시라。(代金引換은取扱치안슴니다)

東京市下谷區車坂町九十六番地 頒藥所 福助堂藥房 振替東京六五九六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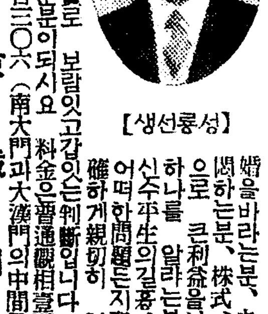
▲藥效가速한데놀내엿다。이런神效藥을喜은고지낫다等等의感謝消息은每日多數히모여듬니다。

名觀相家

開運의好機는只今!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京城相學院長 聖龍先生은科學的관상학의大家로서만흔 대사업가名士들의관상을보고 大好評을밧은 관상계의 권위자임니다 前途方針에對하야 헤매는분、適業을選擇하고大成功을바라는분、幸福한結婚을바라는분、夫婦間의서로煩悶하는분、株式、期米、鑛山業으로 큰利益을보나、損害를당하나를 알라는분、其他、당면한 신수平生의길흉、訴訟의勝敗等 어떠한問題든지聖龍先生은明確하게親切히 判斷하며開業成功의길을 보여주는實로 보람잇고값잇는判斷임니다 今時에 觀相을보시고 운수가티운분이되시요 料金은普通觀相壹圓이오



[성룡선생]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六 (南大門과大漢門의中間電車通リ) 京城相學院

◇地方에게신분은생년월일과 면곳자세히회답해드립니다 要件을자세히적으시고료금을付送하시 (사진이잇스면더욱명확함)

무지개 "虹"

待望의朝鮮名畵特別大封切 當六月三十日브터超特別大興行 京都POC提供! 嶺南映畵社超特作珠玉篇 製作指揮李東熙氏 監督……李圭煥氏 撮影……藤井清 主演……文藝峰孃 其他올스타-캐스트

錯로可憐을極한엇던家庭의血涙史 記多恨!盲目의아버지를어데가서 요醫치못할갓치冷酷한人生의行狀 차즈리……래온의밤거리는 사람의날카운눈길과 그人間이엇지한사 발아래눈물짓는 람에局限하랴!!

코럼비아超特作全發聲映畵 라바ー드히리아氏大作 水煉一萬浬 노ー만포스타ー氏主演 매리가ー라이르孃助演

蒼波萬頃!ー隻胎의飛沫에몸을적시여 鰐戱夢의甘露酒에陶醉하며凌渊!!娛樂의勝利를相爭하는涼味滿點!娛樂價値百%의大名篇

大每特輯全發聲 國際뉴ー스

次週封切豫告 하리우드스타ー合戰拳銃やくざ

貫鐵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訃告

從二品嘉善大夫前內藏院卿金公開煥氏以宿患本月三十日(陰五月十二日)下午七時別世玆以訃告

發宅 公州邑常盤町
卄日 昭和十一年陰五月十八日午前十時
葬地 公州郡鷄龍面箕山里
永訣式場 公州邑新市場

昭和十一年六月三十日

嗣子 金聖駿
次子 聖鴻
孫 在龜 大鉉 周鉉 禹鎔 紀錫 鍾洪 在浩 在洛 在禎 在一
壻 李仁亨 光錫 甲鉉 用淳
親族總代 金增燮
友人總代 尹太郞
護喪 小林 金在政

三好水白粉

三好化粧品株式會社 京城 朝鮮 電話光化門一七二七番

蔘茸精

四時長春인補血壯强劑

世界的長壽秘藥인「蔘茸精」을 服用할時期 요사이天候의蒸炎인氣溫度을따라 體外로爲하며人體의津液이汗腺으로排出하야血液도自然히枯渴한다 草木도雨露가 적으면枯槁하고 汽車汽船도기름이말으면運轉치못한다 人體도血液이줄면엇지되는가? 躊躇치마시고世界的靈藥인蔘茸精을服用하야血液을補增하고健康長壽를享得하라

近日에醫學博士各位가試驗하시고補血強壯藥中에 第一이라고各患者와虛弱者에게勸進하며各病院에서多數使用합니다。

◁效能▷ 補陰陽補、補血强壯、精力增進、神經衰弱、히스테리ー、貧血症、病後恢復期、産前産後、發育不良小兒、營養不良小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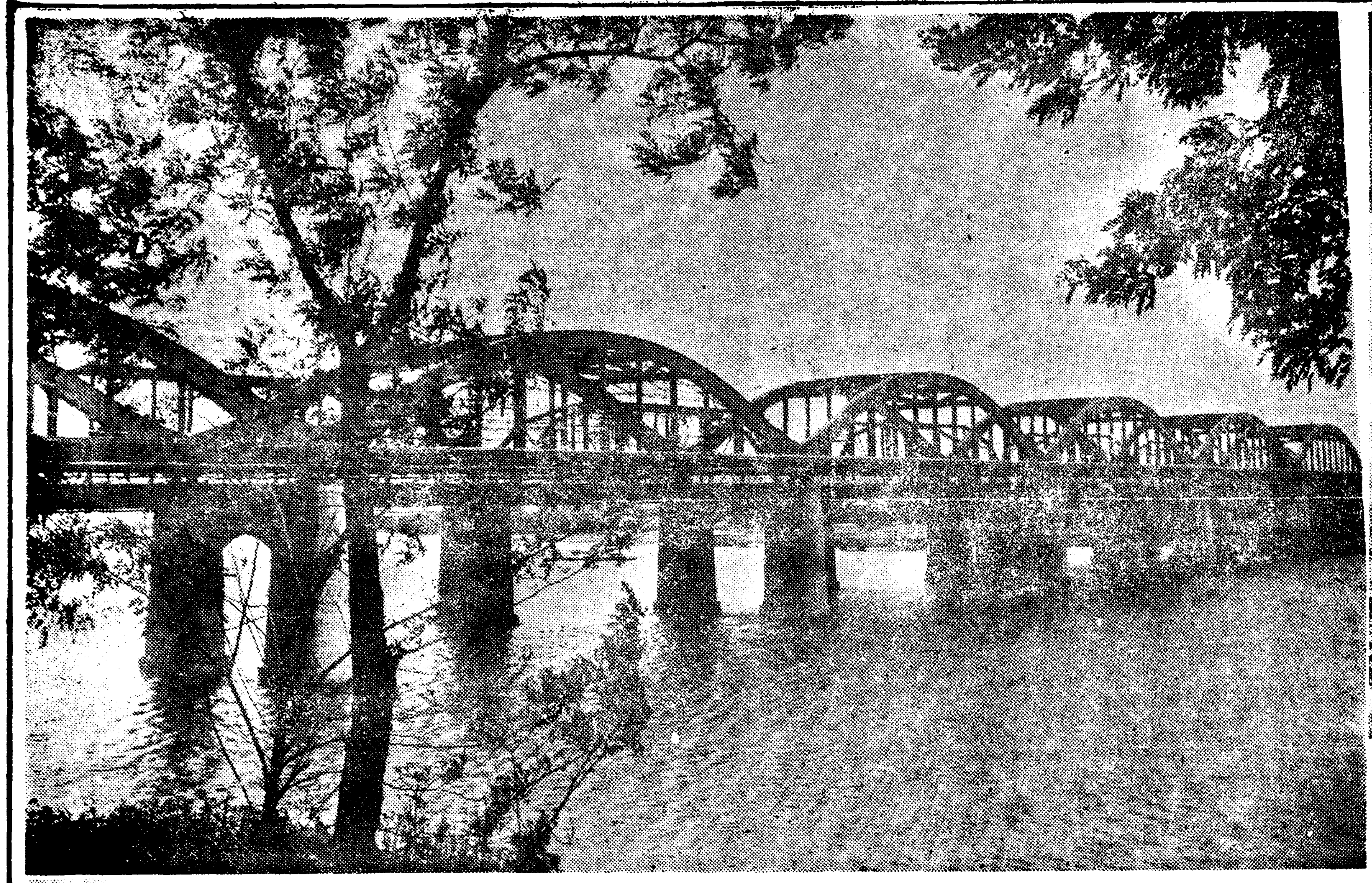
蔘茸精을推奬하신九位醫學博士(無順)

京城帝國大學講師醫學博士 松岡寅夫先生
醫學博士 朴昌薰先生
醫學博士 今村豐八先生
醫學博士 小村榮三先生
醫學博士 金夏植先生
京城帝國大學講師醫學博士 李甲洙先生
醫專病院內科醫學士 金永默先生
仁愛醫院長醫學士 仲尾次景榮先生
醫專病院小兒科講師醫學士 金光鉉先生

包裝及定價
二五〇瓦入 參圓
五〇〇瓦入 五圓
(日鮮滿各有名藥房에서販賣함)

京城授恩町三二 製造元 朝鮮商會

振替京城一九二八七・番八五八一七一③光電



漢江新人道橋

竣工과 舊橋變遷記

雄壯·構成美가 준 躍進大京城의 關門

鋼鐵에 서린 追憶은 눈물도 새롭게

舊人道橋別離도 不遠

철섭마장안에서 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대소의사건과 히비의 인정교향악(人情交響樂)을 묵묵히 내려다보든 북악산(北岳山)을 등지고 천고불변, 용용히흘러가는 한줄기 한강물을 가슴에안고 오는날의 희망에속태이며 고요히 누어잇는 이천삼백만의 심장부 서울의 웅장한풍경을 그릴때 빼노흘수업는것은 한강인도교(漢江人道橋)이다

이때까지 수천수백의 쓸아린 자살군의 『다이빙』대가되여왓스며 손에손을 마조잡고 타오르는 젊은청춘남녀의 『란데뷰-코-쓰』가되여왓든 추억의선물인 넷구인도교는 멀지안허 사러저버릴 운명에당면하엿스며 지금은 그엽헤『함마-』의 뚝딱이는소리와『크레-ㄴ』의부닥기는 쇠소리가운데 날로달로완성에갓가워가는 근대적구성미(構成美)를 가춘 웅장견고한 새인도교(新人道橋)의 가교공사(架橋工事)가 파괴와건설의 명암이중주(明暗二重奏)와함께 탄생의진통(陣痛)을 격고잇스니 이야말로대경성남진의 관문이요 시민의납량처로 새로운 명소가 될것이다

延人員廿萬名動員

犧牲者도 三名

難工事는 橋脚建立

이제 새인도교, 이다리는 총독부 내무국 토목과(內務局土木課)에 근무하는 당년삼십이세 되는 우리의 명예스러운 청년 기사 최경렬(技師崔景烈)씨가 일년동안 고심한 결정(結晶)으로 된 설계(設計)에 의하야 일본에서 제일큰 토목청부업자『아사마구미』(淺間組)가 총공비이백 오십만원이란 거액으로 청부한것이다 긔공은 재작년구월이엿스니 벌서해로는 삼년, 달로는 스물두달이란 세월이 한강물과함께 흘러가버린세음이다 그리고 준공예정기인 금년 시월말일을 바라보고 맛치물든노동자의 얼골에서는 피땀이 흐르고잇스니 장차자동차로 〃드라이브〃할사람이나 전차로휙지나가 버릴사람들로서는 이고심은 리해도할수업는 정도이다 사진에 보는 바와가티 이다리는 다섯개의다리발(橋脚)우에 올려노흔 여섯개의 경간(徑間)으로 되여잇스며 이다리발은 잠함식(潛函式)이라는 방법으로 수면(水面)아래로 륙십자나 들어갓스니 거긔에서 수심(水深)〃메-타〃내지구〃메-타〃를 제하면 강바닥밑으로 사십자내외가 드러가잇는데로 이것이 다리공사중에는 제일 난공사이엇든것이다 그런데이잠함식이라는것은 〃컵〃을 물가운데 업허노핫다가 들면 그가운데가 진공이되는원리를 리용한것으로 큰통을 물에다 업드려노코 그안에 드러가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하면 물이 아무리 깁허도 문제가 되지안흐며 다리발은땅아래에 퍼저잇는 암석층(岩石層)이 나질때까지 내려박는것이라고하니 듯기만하면 얼는쉬운듯하나 현대과학의힘이 업스면 나 위대한것을 가히 알수잇다 그리고 이다리발하나가 떠밧고잇는무게는약오천돈인데 사진과 가티 중간을 비이게한것은 보기도조코 전부통제로 하는것보다 매우경제적인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문외한에게 가장 놀라운감을 주는것은 한개에 칠백오십돈이나 되는 평장히 묵어운 경간(徑間)을 여섯개식이나 노코다리발우에다 무슨재조로 진좌(鎭坐)식혓느냐하는 것인데 이것도 전문가의말에 의하면『크레-ㄴ』(起重機)을 사용하면 그리힘드는일이 아니라고 하니 참으로 현대의 과학만능(科學萬能)에 다시금 놀랄바이다 그런고 사천오백돈이라는이 쇠뭉치는 화차에실어도 일백오십차분이라고하니 그 얼마나 만코 무거운것을 알수잇스며 이것은 전부 신호(神戶)에 잇는 천귀조선소(川崎造船所)에서 만드러가지고 조고마큼식 또떼서 운반하여다가 다시 마춘것이다 가교공사중에서는 전긔의 교각공사와함께 이두가지가 제일난공사라고하며 이두가지 공사에 잇서서는 죽은사람도 이삼명이요 부상자는 수십명으로 헤아린다고하니 우리는 그고심의결과에 대하야 경건(敬虔)의 뜻을 금치못하는바이며 연인원이 십만명의 노력에대하야 다만감사의 말슴을 올리는밖에업다

兩岸엔橋上公園

高十五米長四百米

橋梁의壽命은永久的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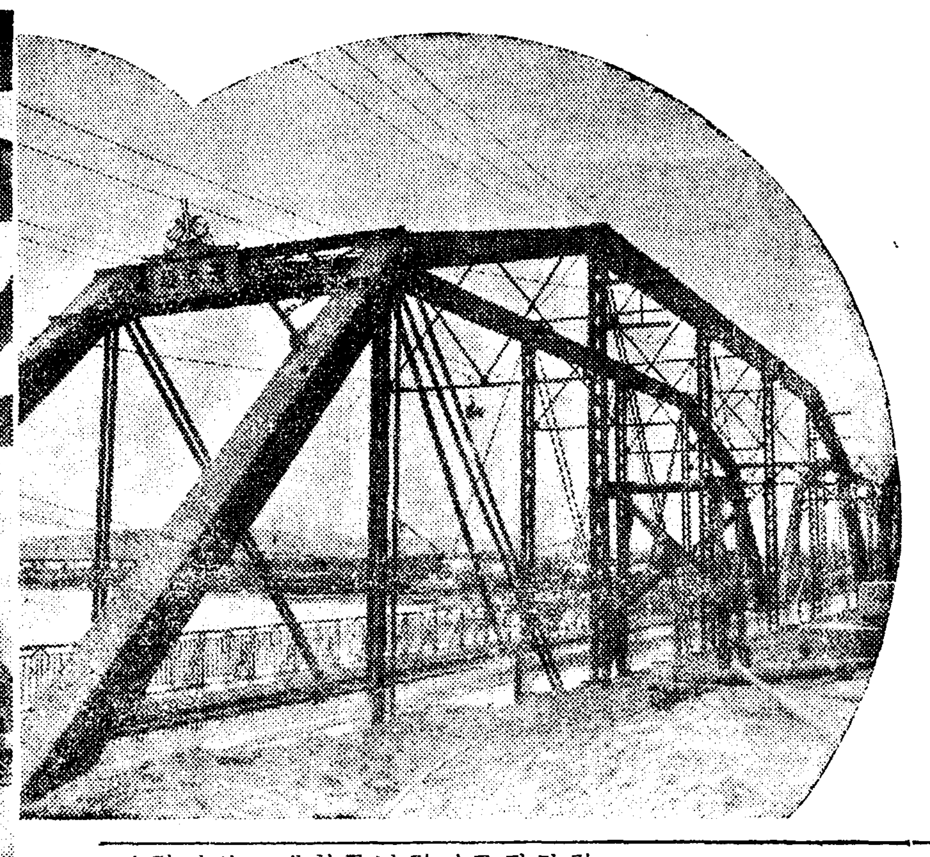
納凉地로斷然新名所

그러면 완성되여가는 이다리의 전모가 어떠한것인가를보자 그 다리의 전장은사백〃메-타〃 노피는 평상수면(平常水面)우에서 십오〃메-타〃이며 넓이는 이십〃메-타〃식되는 보도(步道)를 빼고남어지 십사〃메-타〃의 한가운데에다 복선전차궤도를놓코 그량편으로는 자동차와 차마도로가 논다고 하며 그로부터〃따이빙〃지원자 방지를 위한 특별한시설은 업스나 란간의놉히가 전보다도 조곰놉하저서너자가 되엿다고하니 물에떠러저죽기도조곰 힘드러진세음이니 아모조록 이다리의 새로운력사를 더럽히지 안햇스면하는바이다 끗흐로 우리조선에서 처음보는 이다리의 시설을 보건대 그것은 로량진쪽에약마평, 룡산쪽에 이만평의 교상공원(橋上公園)을 공비삼천여마원을 드려만들고 이것을 중지도공원(中之島公園)이라고 하고거긔에 전차 정유장까지 만들예정이라고하니 산책지로 더조와질모양이다 그러면 이와가티 완비한다리의 수명은 얼마나갈것인가? 설계감독자의 말에의하면 거이영구적이라고하니 이것만은 자손전대하여가며 두고 볼수밧게 업스며 이다리를 통과하는 교통량으로는 자동차일마대를 예정하엿다고하니 경인가도(京仁街道)포장이 완성되고 새로 편입된영등포일대가 대발전하야 이이상의 교통량이 잇슬때에는제이 인도교(第二人道橋)가 필요한날이라고하니 경성이 대발전을하야 제이, 제삼의 인도교가 생길날이 언제일지는몰으나 이다리야말로 제일인도교(第一人道橋)의 영광을 영원히 보지할것이다

設計監督者는 우리의靑年技師

여러운일아니라고겸손하는

崔景烈氏의苦心談



지금곳는한강인도교의설계겸감독자는 이미본보에 보도한바와가티 현재 총독부내무국 토목과에 근무중인 단한사람뿐인 조선인기사최경렬(崔景烈)씨이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칠년전인 소화사년봄에 경도제대 공학부토목과를졸업하고 곳내무국 토목과에 취직하야 이래꾸준히 토목사업에관한 연구를 오로지 계속하고잇는 금년삼십이세의 청년기사이다 기리로는 비록조선제일이 못되지마는 체재(體裁)로나 설비로보아 조선제일이라하여도 조곰도 과장이아니고 또준공후에는 장차대경성의 대동맥이될 이한강인도교를 책상우에서 손수설계한그로서 조흔후에 그려진설계도가 날마다날마다 현실화하는것을 실지로 감독하고잇는 이청년기사가 긔공한후 약이개년동안 무엇에 고심하고 무엇에 깁븜을 늣겻슬까? 그로하여곰 고심담과 밋 공사경과 이야기를 말하게 하여보자

이번에 새로놋는 사진에 보히는바와 가티『라이드·아취』식입니다 이안(案)은 대여섯개안중에서 이것이 비교적 경비가 덜들고 체재가 조흐며 튼튼하다고할가요? 좌우간 이안이 제일 조타고 인정되야 채용하게된것입니다 설계하기에 약일년가량 걸렷는데 내가 설계한 관게상 내가 감독을 맛게되엿습니다 교량(橋梁)공사는대개 두가지 공사로 분류할수잇는데 하나는 교각(橋脚)을 맨드는 긔초공사이고 하나는 경간(徑間)을 올려안치는 공사입니다 고심이라고 말할것까지는 업지만 좀어려운것은 물속에서와 물우에서 일을하는것인 만큼 홍수긔(洪水期)와 결빙긔(結氷期)에는 할수업는공사가 만허서 그게절(季節)을마추어가며 어느부분의 공사를 전부 끗내지안하면안되는일입니다 이런 관게로이 다리긔공을 홍수긔가 지난재작년구월에 한것으로 작년홍수긔전인 륙월께까지 결빙긔를 빼넘야오개월동안은 주야겸행으로 긔초공사를 마추엇습니다 긔초공사죽 교각이다 된후에 경간을올려 노앗는데무거운 쇠로서경간한개의 무게가 칠백오십돈가량이나되는만큼 이공사가 좀 어려웟겟습니까 그리고 이공사에는 한달에약일만명가량식 인부와 직공을쓰는관게상 그들이 일을하다가 부상을하지나안할가가 큰염려이엇는데 그동안 벌서 연인원약십오만명이상을써 왓스나 그중힘한하다가죽은 사람이 이삼명 부상한사람이 약백명이내로 어려운공사로서는 비교적희생자가 적게난것은 여간다행한일이아닙니다 그리고 깁부다고할것은 별로업습니다만는 설게도가 나날히현실화되야지금에는 이미 공사대부분을마추고 다만 지엽공사만남어오는시월께는 완전히 준공되게되엿스니 이것이나 깁븐일이라고할가요? 다만남어지일로 좀연구를필요케 하는일은지금까지 잇는다리의 혼교각을 수면(水面)이하의것을어떠케파괴하느냐 하는문제입니다 물론『다이나마이트』를 쓸터이지마는 그분량을 얼마가량쓰면될가하는문제는 좀생각하여보아야합니다 만약 분량을적게하면 문허지지안홀것이고 분량을만히하면 새로도교각을다칠염려가 잇는관게상좀 이분량문제는생각해보아야겟습니다운운 (사진은 최경렬기사)

自殺者"멕카"의 標札

"暫間만기다리십시요"

그녯날舊人道橋에서리웟든

社會悲劇的인그現象

한강(漢江)! 한강은 우리장안의 큰자랑이요『마스코트』이다 그리고 유일한『썸머-·프레이스』의 야외운동장이다 그러나 이와가튼 형용사내지 대명사는 한강명랑편의 주를잡이다 일단 시야를 돌려한강물속을 들여다볼때 거긔에는 우리의삼사삼고(三思三考)를요할 우리사회의 리면상이잇다

『넷귀! 한강에 나가 빠저죽자』

『이일을 엇지합니까 한강에나 몸을바칠가요』하는 일종의 류행어를 우리는 장안의 이모저모에서 드를수가잇스며 실로지상이 그것을 보혀주고잇다 자살의『메이카』그는 한강인도교이엇다 한강과 자살이 엇던인과관게(因果關係)를 가젓는지 그것을 잘아는바아니지만은 한강이 장안패잔자의 유일한자살장소이엇든것만은 사실이다 강건너 의『미하라야마』(三原山)와 서울의『한강』는동일적의미를가지고잇다

◇

그러면 멀지안허헐릴 넷인도교를중심한 한강의자살자수는 얼마나되는가 불충분하나마 룡산경찰서의통게를 들어보면 소화팔년남자 여덜사람 녀자 열사람 합열여덜사람이엇고 소화구년남자열세사람 녀자 스무사람합설흔세사람 소화십년 남자열여덜사람 녀자스물세사람 합마흔한사람 이라는 수자를 보이고잇다 이에이수자의 말하는바를잠간적어보자

◇

먼저 눈에띄이는것이 자살자가 년년 늘어간다는 현상이다 그에대한 충분한 설명은 그만두고라도 자살을 한가지의사회현상으로 볼때에 이현상은 반가운 현상이아니라는것만은 사실이다 원인의여하를 막론하고 사회의 발전은 자살을 증가식히는모양갓다 이것은 무엇을말함인가 자살현상을 사회학적으로 보면 자살의 원동력의일면은 사회사상의발전과 구도덕률의 파괴에잇다고도 말할수잇는것이 축전국자살자통게 수량은 한가지의 규측성을 보이고잇다 사회가 발전함을 따라 자살현상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자살의 사회적 중요한현상을 설명하는것으로 여러가지 원인이잇슬것이나 대정구년 십년에제일만헛다는것은 그당시 이사회가비상히 복잡한가운데 발전하고잇든것을 이즐수업다

다시말하자면 자살자중에 녀자가 다수를 점령하고잇다는 점이니 원래 녀자는『사의찬미자』라고 볼수잇다 현대를 휘행하는 감상문학(感傷文學)의 사로잡힌자는 과도긔에처한 이땅의 녀성제군이다 대정팔년만세사건(萬歲事件)을 전후로항간(巷間)에 흘러나린『로맨티즘』의 영향이 그들로하여곰 죽엄을 미화(美化)식혓든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보담 더큰원인은 역시이땅의 역사적 사회적 여러가지 조건일것이다

◇

다음에 자살자의 월별표(月別表)를 보면 역시 사월달부터구월달까지 제일만흔데 작년통게를보면 오월달이 최고로여덜사람이 한강물에 몸을던지고잇다

이와가티 만흔사람이 비참한 최후를 맛는 사회적현상을 방지하려고 당국자들은 만흔 고심담을 가지고잇다

그중에도 우리의 긔억에남은것은 지금은 자취도업서진것 나『잠간기다리시요』라는 표찰을 인도교란간에 세워든것이다 최후를마즈려고 넹정을 일어버린『자살구락부』원에게 최후의 역활을다하려든것이다 륙십마의 장안인(長安人)의 멧사람은 지금도『잠간기다려주시요』하는표찰에게 한업는 감사의 눈물을 드릴사람이 만흘는지몰은다 죽엄을 결심 하엿지마는 다음에 비최이는새로운 생에대한 애착을전긔표찰에서 어드든간부터 제이의인생행로를 밟은까닭이다

◇

비오고 바람불고 눈이나리고하는사이에 그표는 만흔공적을 남겨왓지만 현재는 그그림자좃차보이지 안는다고한다 사신(死神)의 작란인가 장면은 회전되다 구인도교우에서 천당(天堂)가려고하든 그때도 옛날이엿다 가 다음날 부터 새로운『메이업』로 사신(死神)의 종노릇이나마할까 그러나 잡간긔다려라 한강다리에서서 로량진(鷺梁津)언덕우으로 보라 거긔에는 비렴자의 태도를 비웃는듯이 한강조남자 위령비(漢江溺死者慰靈碑)가 우뚝허니서잇지안는가 한강아! 너는 언제나 이불명예한 역활을버서날것인가?

兩水津으로세번재나 식집갈舊人道橋

銅雀나루埋錢處이야기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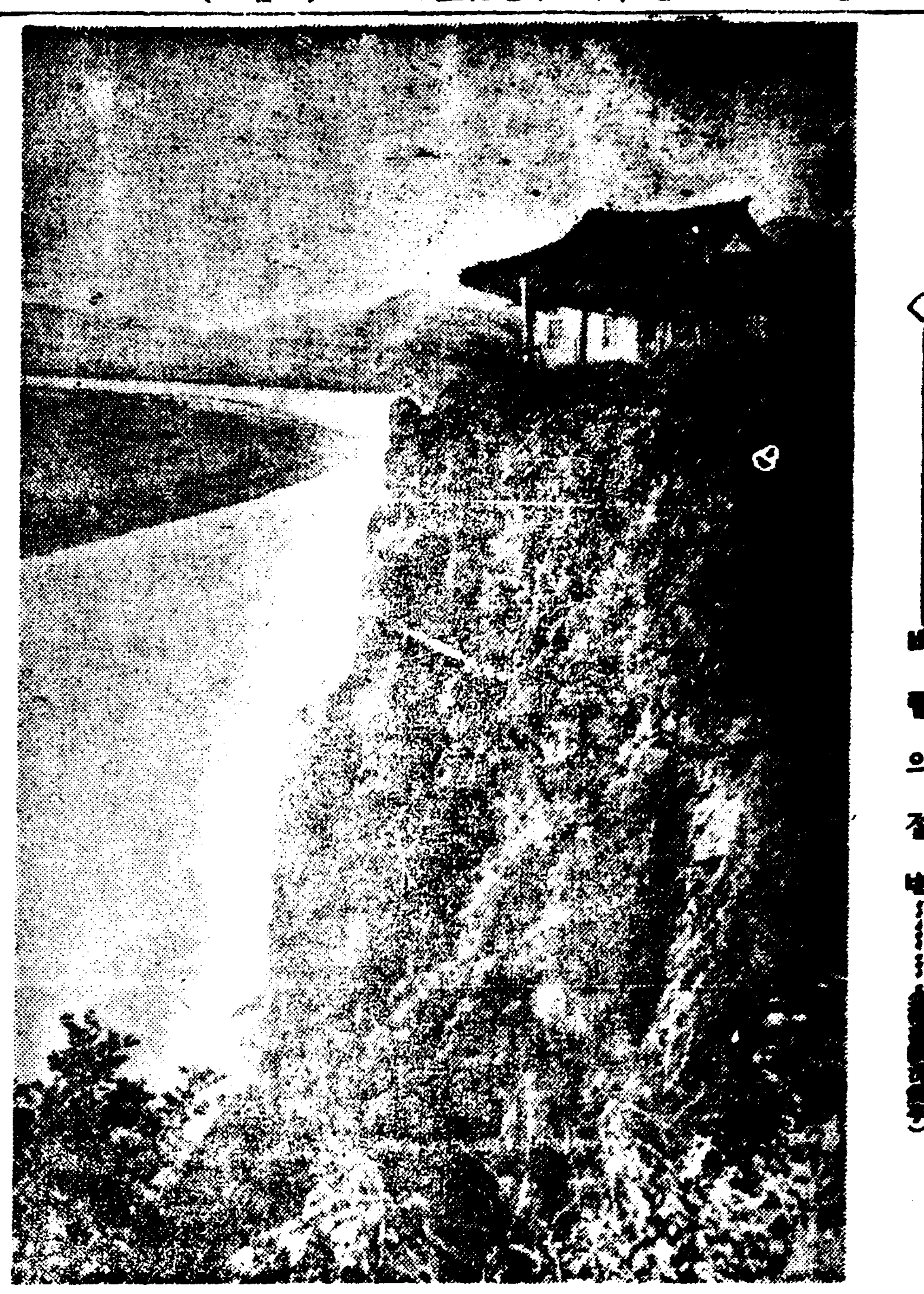
人道橋까지變해온漢江交通

불원에헐릴 인도교는 이제로부터 이십일년전인 대정사년에가설공사를 시작하야 삼년동안계속공사로 진행한결과 대정륙년에 비로소 준공된것이다 원래 당시의 만철(滿鐵)선로의 철교어엿든것을 알도바며 현재의장소에 가설하게되엿든것인데 공중에는 [illegible]이라는 제빽이 도렴다 이렇게로 가설되엿도로자 청용개통하게되자 서울에 사는 사람은 물롤 멀리시골가지에서도 구경군이 모혀드러 한강량편에는 한동안 장광히 혼잡한 광경을이루엇다

그런데 이 다리가 가설되기전에는 한마의 교통은 어떠하엿는가하면 현재 이다리가 잇는곳에서 조곰 상류편으로『동작이(銅雀)모래나루』라는곳이 잇서서 나루ㅅ배로써 경긔이남지방가지로 통하고잇섯다 이『동작이모래나루』야말로 그당시에 잇서서는 조선의 수부인한양(漢陽)으로 통하는 중요한통로로 되여잇섯다 이나루에관련하여는 여러가지 숨은 이야기도 만흔데 그가운데서도 떠욱이 우수운 이야기는 서울에과거(科擧)보러왓든 령남 선비가 나루ㅅ가 모래틈 에 엽전(葉錢)을 무더 두엇다는 것이다 서울로 과거를 보러왓다가 급제를 하지못하고 쇠꼴로 도라가는길에 돈이 무거워서모래틈에 파무더두고서 아모의돈무든곳(埋錢處)이라는 목패를세워노코 갓다그리고는 그이듬해에 다시 서울에 올라오는길에 돈무더든곳을 아모리 차저보아도 차즐도리가 업섯다 물론 그돈무더둔곳이라는 패를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돈을 파가지고 가버린것이다 군자가튼 그선비는 자긔가 무더둔 돈이 업서진것을 알고 서울인심이 고약하다고혼자 탄식한일이 잇다한다 그런데 현재잇는인도교는제이인도교 제일인도교는 대정십이년 큰수재로 문허저서 그뒤다시 가설하얏다 방금 가설중에 잇는 새철교가 시월안에 준공될 예정이므로 그것이 준공만되다면이묵은 다리는 헐려서한강상류양수나루(兩水津)로 올마가서 거긔서 다시 인도교로가설되기로 예정되여잇다 그리된다면 이다리는 세번재 식집을 가게되는 세음으로 녀자에비교한다면 기구한 운명에 태엿다 할수잇다

寫眞說明

우는 형체만 완성된 신인도교의 전모, 하는 불원에 헐릴 구인도교(컷트는 신인도교의 교각)


◇—바람의 절벽……

어세국민을 잠식하는 소아결핵
예방과 대책은 무엇
● 京大小兒科研究室 李聖鳳

감염의 경로

一、귀도(氣道)로 들어가야되는 전염, 흡입된결핵균이 폐로들어가 폐염과 선결핵 폐결핵을이르켜 다시 륵막염과 전신결핵을 이르키는때가잇습니다

二、소화관으로의전염 입으로부터 소화관에드러간 결핵균이 장간막(腸間膜)림파선결핵을 이르키는때가 잇스며 병세가더해지면 복막염과 전신결핵을 이르키게됩니다

三、안와(顏窩)로의전염 편도선 중지 귀에 결핵균이드러가면 그곳에 결핵병처가생기며 다음은 이것들이 림파도에의해 서경선(頸腺)결핵을 이르키며 불행한때는 전신에전파되는때가 혹 잇습니다

四、피부의전염、피부에부튼결핵균이 피부결핵을이르키며 혹은다시 내부에 침입하는때도 잇습니다

결핵의 경과

지금말슴한것과가티 결핵감염하는 경로가여러이지만 어떠한것이던지 결핵균이 처음드러간곳에 원발병조(原發病竈)를맨들고 그다음 림파도(淋巴道)를 지나 그국부에관련된 소위국소림파선을 범해서 처음병조가 생깁니다 이상의병변의생긴때에 증상이 다 업고 흔히 아무증상의날때도잇고 상이어서 지내버리는때도잇습니다 이것이 결핵의 제일기라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제일기결핵이 림파도와혈관으로 만연하는시기를 제이기라합니다 그병변이라는것은 결핵성뇌막염 이차성(二次性)장결핵 뼈와관절결핵 피부진등입니다 제이기중 제일무서운것은 조립성결핵(粟粒性結核)인데 만흔결핵균이 혈관에드러가서 전신모든장기에 결핵병이 생깁니다 이와가티되면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수업스며 따라전부 불구의게이됩니다 이것은 어른보담 소아에게만히봅니다

그다음은 제삼기인데 처음감염된뒤 대부분은 일년이상지나서 폐에 만성의 염증을이르켜 구멍(空洞)이생기는 시기입니다 지금말슴한 삼기중 소아에만흔것은제일제이기입니다 어른에 보는것과가튼 만성폐결핵을 팔세미만소아에는 대단히 적고팔세이후 나히가만허짐을따라 증가하지만 그것도 소아때는 희소합니다

소아결핵의 증상

결핵에 감염되엿다고 반드시 증상이 생기는것은 아닙니다 소아는 결핵에 만히감염되지만 알지못하는중에 자연히 나어서 결핵에대한 저항력즉면역이생기게됩니다 이저항력과 결핵균의독력과의 투쟁이 체내에 이러나게됩니다 그래서 서로싸우다가 만일저항력이 지면 거기에서비로소 발병을하게됩니다 그럼으로 전부터감염되여잇는 소아에게 저항력을약하게할 조건이잇슬때는 발병을촉진케합니다 그원인의주되는것은 과로 즉운동과도라든지 공부를마니한다든지 심신의피로가 계속되는때라든지 영양부족 기타 여러질병으로오는쇠약등입니다

다음은 소아결핵의 주되는병과 그병들의 증상에대하야 간단히 말슴하면

家庭

령약도 지나치면 독약!
아라둘—자외선의 공죄
"볏에껄수록조타"여엿다가는 참말큰탈나는수잇다

인생에 태어나서 내활개짓을하고다니는 인간들, 누구에게나 은총을내리는 저태양! 그태양의광선을 흠뻑쏘일수잇는 여름이왓습니다그려 그러나 아모리 위대한태양광선의효과라하드래도 이것을 과도히밧는 때에는 도리혀 사람이죽게되는 죄악도 되다는것을 이저서는안됩니다

해수욕철이 다엇다하야 바다로가실분비롯하고계실 분이만으실겝니다 벌서부터 마음이들썽들썽하시겟지요만 그보다압서우리는 태양광선—그중에서도 특히우리몸에 미치는영향이 가장만흔자외선(紫外線)에 대하야 그공죄를좀따저볼필요가 잇슬줄압니다.

자외선의 효과에대해서는 누구나 세상에서 떠드러대는바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바이지만 즉

신체의신진대사작용을 왕성하게하는것은물론 피부를 강건하게하야 피하에잇는 류지방체(類脂肪體)는엘고스테로올과 결합이되어서는 신체의저항력을 증대식혀 골격이라든지 치아(齒牙)의형성발육에대하야 막대한관계를가진『비타민띠』를 체내에만들게하는등—자외선의 한량업는효과는누구고 의심할사람이업슬것입니다

그러나 이감사한 자외선도 그 량을지나처서는 몸약한사람에게 대단한 악영향을 끼치게되는것입니다.

『우리는밥을 먹어야삽니다 그려라고 밥을지나치게 먹으면 죽는수도잇습니다』이와마찬가지겟지요 엇잿든 의사들이 인공자외선을써서 환자를치료할때에그 량에대하야 엄중한제한을 두는것도 그까닭입니다

×

그건 그러타고 자외선이 가장만히 나려쪼이는곳은 여름의 해변가입니다 이것은 바루 내려쪼이는 직사한는량외에 해면과 모래바테서 반사되는량이 또한 만흔까닭인데 이외에도 해면에는 습도(濕度)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바다물등의 가장 자극적조건이 더해지기때문에 해수욕가는 사람들이 신체단련의 공을 세우기위하야 멋모르고 장시간동안 해변에서 것과

자외선기타의 강한 자극으로인하야 신진대사가맹렬히 노파저서 그때문에 과로에빠저 도리혀 저항력이 감퇴되게하야 중대한 결과를 이르키게하는수가 종종 잇습니다 가온철에 자가워서 새깜안 얼굴에하얀 눈알을 굴리면서 병원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좀만흔줄아십니까 모두 자외선의 은총을 넘어만히입고 병고치러다니는 환자들입니다. 이런사람이해마다 얼마나 생겨나는지

그럼으로 소위허약아동이니결핵소질이잇는사람 심장이나 신장에 탈이 잇는사람은 해수욕을마려야할것은물론 평소실내에서일을보는사람가튼이는 매일매일 서서히 가령말하면 첫날은 오분동안 그다음날은 십분동안 이러케차차로시간을 연장해가야되는데 바다물에 드러가서 간은 오전 열시경으로부터 오후세시경까지 그사이가적당하며 물밧게나와서 치운기가들지경이 되어서는안됩니다.

또그다음에는 모처럼 한번해수욕을하게되엇다고해서 자외선의뱅을빨드시 단번에 살을 끄시르면 피부에 염증(炎症)이생기는것은 말할것도업고, 습진이생긴다, 채내의장기에 고장이생긴다—가진탈이 다니게되니특히 주의하십시요

어이구머니나 사람보다크이!

『버젓한 한사람인 나보다도 크이!』말만드러서는 좀 이상하지만 알고보면 이 아가씨는 금번에 열여섯살인데 이처럼 꼬맹이사람입니다. 선한슴『맥·딜』양께서 원나체소하시긴하나 이개도 상당히 큰개로 소문난개올시다. 양극단의 대조—이것이 우리에게 우슴을 자아냅니다그려.

‖童話‖
임금님의 금촛대 (一)
吳信惠

어느나라임금님께서 달ㅅ밤을 퍽 조와하섯습니다. 어느날즈가을밤에 둥그런달비츤 유난이도맑고 아름답게비최엿습니다。

임금님은 한거름두거름 달비체 취하여 아지못하는사이에 궁궐 박좁은길을거러 어떤오막사리집 아페까지왓습니다.

조고마한마당 푸른잔듸우에 희숙희숙한것이 달비체두렷이나타낫습니다。

임금님께서『이것이 무엇인가?』하며 똑똑이보시니 두아해가색색코를골며자고잇는데 그아페는 공부하든대로 책이 쭉-펴처저 잇섯습니다。

이아해들은 웨 밧게서공부를 할까하고 그집을드려다보앗습니다. 거진거진쓸어저가는 굴속가튼집 창문은어진틈으로도달비츤 막게흘러드려 집으로연근터서을 까라노흔것이며 다-떨어진벽에 걸린헌옷까지도 보이엿습니다.

『올타 이아해들은 밤에불켜노흘돈이업서 밧게서공부를하누나 오-가엽기도하다』하시며얼른대궐로도라가서서 금촛대와초를가지서다가 그집더러운방에 켜노으시고도라갓습니다。

두남매는 서로손목을잡고 아름답게빗초이는 달나라에서 뛰노랏습니다。누이동생인혜는『옵바! 우리집에서는 밤에불이라고는 한번도못켜보고 늘어둥컴컴한데서 사니까 잠이빨리안와 눈마랄똥말똥 하엿지。이제부터는 밤마다여기와서 공부하며노라요응!』엉석을부리듯이 졸랏습니다。

『그래, 그러케하자 참밝구조쿠나』

어머니는 밤일을하고 터벅터벅집으로도라왓습니다。두아해가 잔듸우에서 자는것을보고

『인섭아! 인혜야어서드러가자』하며 흔들어깨웟습니다。깜짝놀라깨여 세사람은 드러왓습니다

『초불! 금촛대의촛불! 누가여기다가 켜노앗슬가?』

세사람은 크게놀라며 한복소래로부르지젓습니다。어머니는문득가슴이덜컥하엿습니다。

『야! 너의들이 어데가서 훔처오지안헛니?』

『에그 어대가서 훔처와요。지금처음보앗는데。』 아이들조와하기만햇습니다。

우리차지

호랑이도 개처럼 사람을따럿스면 좀조흘까。
그랫스면 우리 집에도 두어마리 길러두지。
행길로 끌고나가면 모두『아이무서, 아이무서』나라날테구、산양도 막하겟다。

(글쓴사람 황영돈)

요새화장
결발과미용 ④
吳淑根

볏에껄지안케

다음으로 여름의도회(都會)의사람은 일년중의큰향락을이 여름에맛보랴고합니다。즉 자연(自然)과친하고 자연과접촉하고 말하고 흡수(吸收)하고 조화(調和)하고 융합(融合)하는 큰행복을엇기위해서 물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마음것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동안에 창백(蒼白)하든그얼골은 어느덧에디오피아를 련상(聯想)할만큼 새깜어집니다

물론건강미(健康美)로보아서、햇볏에껀다는것이 낫븐것이아닙니다 어느정도까지 여름은 남녀간에볏에껀、거문피운을띠는것이 자연이요 또건강의표상(表象)입니다。그러나잘못하면 껄기만하는것이 아니라 살성을무척험하게만드는 위험이잇습니다。이까닭에 가을잡아들면서부터죽은꺼나가미 얼룩이가튼것이 생겨가지고피부를어망하게만들어놋습니다。

이런위험을 피하기위해서우선살을그대로 해볏테 쏘이지안토록할일입니다 무슨특별한화장이아니라 살이약간『크림』을 문지르다든가 가루분을바르다든가해서 강한태양볏과살을한겹막기만하야도 우에말슴한위험은덜게됩니다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海水浴場)에서 그중 경편한방법으로 살을껄지안케하시는데는수렴성(收斂性)의화장수를 칠하신우에다가、『배니싱크림』을바르시고 다시그우에 가루분을발러두시고 지방질(脂肪質)이신분은 과산화수소수(過酸化水素水)를 물로 배(二倍)에 타가지고 거기다가『구리세린』약간을 타서 몸에 발으시고 그우에 분가루를 바르시면 충분합니다。

또 바다물에드러가실때마다 얼골에서부터 목줄기 엇개 등어리까지『올리부유』를 바르시고들어가시면 햇볏에 타기도돕할뿐더러 일종(一種)의정부작용(整膚作用)으로 물속에서나와서도 살이 압흡지안습니다。

이외에『콜드·크림』이나『배니싱크림』을 로출(露出)되는부분에 끌고루발라두시면 햇볏체껄드라도 울연한오ー클색으로 본보기게껄게됩니다。바다에서나와서는 밍근한물에 흠비누로 슬쩍닥가내신후 늘쓰시는『크림』을 조금만히문질러두어서 살을쉬게하는것이 조켓습니다。

등산할때

태양의 자외광선(紫外光線)은 바다보다도 산에서 더심한까닭에 산에서더잘 껄게됩니다 우리조선녀성이 등산열(登山熱)이노파가는 오늘날이니만치 한말슴여추어둡니다。등산을하실때、늘크리싱크림을칠지니고 다니시다가 이것으로 땀을씻어서、땀의염분(鹽分)때문에살섞이나위지지안토록하실일입니다。

×

끄트로● 여름은 향수(香水)가 만히요구가됩니다。향수는 손가락사히 귀뒤、눈섭、이런데발이시는것이 리상적이요、또 부채에약간뿌려가지고 남의아페서 부치는것은 밉지아니한작란이라고하겟습니다。

가정의학

침흘리는아이

問 一、금년세살된 남아이온대 매일아츰 소곰으로나 냉수로입안을 정히 닥거주오나 침을대단히 흘립니다 입안에 염증이라던지 또는 다른병증세는업사오니 무슨리유로 침을 그와가티 흘리며 또가정치료법을미안하오나 하교하심을 바라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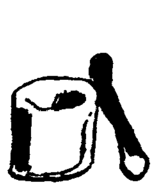
二、동인이눈에 아무이상이업는대 한편눈에서 눈물이 작고흘리니 그가정치료법을 알녀주시요 (市內一女性)

答 一、당신아이의 침흘리는것은 판능성신경증에 속하는것입니다 대단히 귀치안흘터이오나 념녀하실것은업습니다 다음약을 써보시요

乳酸鐵 〇、二
乳糖 〇、五
右一日量 分三回

이약으로 잘낫지아니하면 류산『아드레나린』을 써보시요

二、눈물흘리는 원인이 여럿이 잇습니다 당신아이니 만성루랑염 혹은 첨모난생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병이던지 가정치료는 할수업사오니 전문의의 처치를 밧게하시요 (京大小兒科 李聖鳳)

小說 繪畫

보리방아 【二】
蔡萬植 作
崔賢郁 畵

압마당에서는 용히의 아버지태호가 손에들은 상술 휘둘으며 소리소리 치고잇고 허리에줄을메인 중도야지 한마리가마눌바를 한부두 지랄으면서 뛰여달어나다가 울타리밋 개구멍으로 빠저나가버린다

마당 한편에는 보리를 여남못이나 펴 널엇섯다 그것을 동리집에서 비끄러매인 줄을 잡어떼고 도망해나온 도야지가 지나든길에무심코 새여먹다가 마친 논에서 돌아오는 태호한테 들켯든것이다

『망할놈의동리! 도야지를 그러케 노아메여서 남의것으로 켈려면 누구는 못헐가!』

태호는 이러케 혼자 두런두런 하면서 압 마루에 걸쳐 어안다가 딸 용히가 민망해서 여메 섯는것을보고 낫비츨죽여

『니머니는 어듸 갓느냐?』하고 보드라히 뭇는다

『콩바트루 지(김치)거리 뽑으려갓섯다우……뒷마콩(마루)으서 바느질을 허는새 도야지가그러케……』

용히는 이러케 간신히 마당직히지못한 변명을하엿다

그러나 딸이 변명을 아니하더래도 또 딸이 정말 잘못해서 보리를 좀 먹엿더래도 것트로는 몰론 속으로라도 딸을 나물할 태호는아니다 용히는 태호 내외에게 다시업시 귀엽고 소중한 무남독녀 외딸이다

허기야 태호가 나히아즉 마흔살이니 자손을 영영 단념하기는 일르지만 실칠년전에 용히를 나코나서 이내 태호의안해는 포태도 해보지를못햇다 그동안은 냉으로 그랫다지만 남편보다 나히 다섯살이나 워어서 마흔다섯이 된 태호의안해는 건강한 여인이라도 거진단산을 할나히다

그래서 내외가 요즘와서는자녀간 더 바라는 마음조차도노화바렷고 그러면만큼 용히가 그들에게는 소중한 아들도되고귀여운 딸도되는것이다

『게 옷은 다 히엿느냐?』

태호는 마루에서 일어서면서 딸더러뭇는다

『예…인제 대리기만허면…』

『대리니는 그까짓걸 무얼 대려야……그냥저냥 입어두지』

『그리두……』

태호는 헛간에가서 도리깨를 가지고 나온다 아까 도야지가 바수어먹든 보리를 치라는것이다

『아버지 즘신 잡숫구……』

『즘신? ……게잇거라 이것 처노쿠나서 한술 먹든지……』

『아버지 면역소 가신답서요?』

태호는 오늘 장터에 들어갈일이잇서서 옷도 그러케 불야불야 새로 지은것이다

『오나 이것 처노쿠가두 괜찬타』

태호는 되약볏출 쪼이면서도 보리깨로 보리를치기 시작한다

보리래야 작년겨울의 추이에 태반이나 얼어죽고 남은것을걷융한을 못보아 한푹장에 보리알이 여나믄 댓개씩이나 부럿슬가 말가—『불조라』가티못된것이다

태호는 어색하게 도리깨질을 터덕터덕 하고섯다 벌서 십년가까히 벗어부티고『생일농사』하는것만 본시 선비집 자제로 태어나 이십까지는 한문동무를하고 삼십까지도 손에 흙은 무처보지아니하든 새님이라 종시 농군의꼴은 백일수가업섯다

일솜하는것도 그러커니와 얼골생김새도 어느편이냐하면 소위『서방님』이엇지 농군은 아니다 고생에 찌들고 햇볏과 비바람에 걸기는 햇서도 용히가 닮어받은 준수한 코며 보드라운얼굴의 륜곽이 옛날 머남자의모습을 그대로 지니고잇다

태호가 보리를 거진다 치고나서 대롱주어내고 잇슬때안해 정씨가 열무를 조고마케한다발안고 드러온다

얼골이 볏에익어 딸도 흙으로 덕지덕지한 용히가 아버지를 닮엇기때문이지 어머니를닮엇드라면 역시 어머니처럼 미간이 넓고 코가 모양이업고얼골이 헤멀그러저 남방에서흔히보는 여인네의 모습 그대로를번햇다

『장터에 들어간다더니 안가보시우?』

정씨는 허덕이며 대뜰로 올라서고 용히가 부엌케서 나와열무를밧는다

『인제 들어가보아야겟네』

태호는 한동일을 다마치고 마루에와서 안는다

『그것두 놉이나 하나 어더서가다구를 처버려야지……도리깨질 메번 햇더니 허리가 아푼걸……』

『원어니 자(저애)허구 나허구 합닥두웃 손나는대루 뚜드려서 먹을테되 무얼허러 도리깨질을 허라던그랴우!』

『것두 다 어려서 생일(勞働)을 못밴 탓이지……우리아버지두 내가 이지경이 될줄 아섯으면 글을 안가르치구 생일을 가르치셧을거여……』

『서방님』이 놉군으로 떨어젓으니 한뽁 놉군도 못되는『서방님』네가 곳칠 팔자한탄에 섞거하는소리다

사리문밧개서 바르기침소리가 나더니 구장이 끼웃이넘어다본다

皮膚病良藥 데ー무水
버짐·무좀 음낭습증에

主效
음낭습진 버짐
무좀 옴
태독 진무른데
땀띠 근질근질
백납 쇠버짐
어루러기 濕疹
두드러기 부름
藥옷오른데
벼룩、모기、박쥐、빈대
毒虫의刺傷皮脂漏

×××

皮膚病良藥테ー무水가上記皮膚諸症에가장適藥이란것을ㅣ日本의醫援이다보라全國藥店에서 第一팔니는皮膚病藥이라하면、누구든지皮膚病良藥테ー무水라고말한다。第一만히팔닌다고하는것은、第一조흔皮膚病藥이라고解釋하더라도틀님업다。皮膚病良藥테ー무水는 從來의皮膚病藥의缺陷과不滿足을補充하야、가장合理的으로創製된까닭이다。

夏季는皮膚病의跋扈跳梁을다하는時機이다皮膚病은體內의毒이吹出되는것이라고하야、等閑視하여두면큰일이다。一刻이라도速히皮膚病良藥테ー무水로治療하라

◎特徵◎
쓰리지안코·아프지안코 內改치안코 냄새업고 더지안코 徹菌을죽이고 毒을除去 아프고가려운症을除去、用法簡便하고速히良好하여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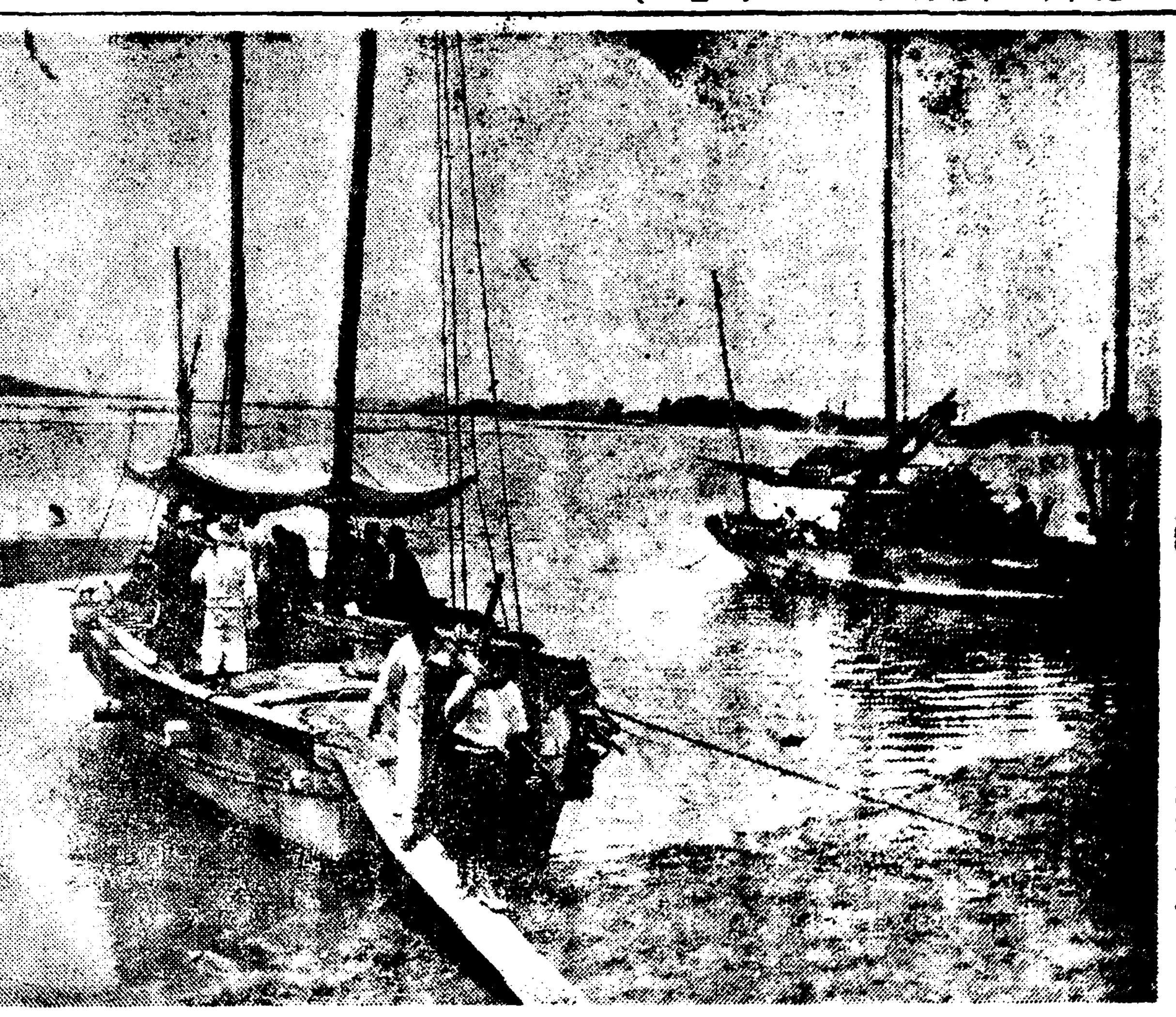
테ー무水藥價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送料內地六錢
全國到處藥店에서販賣하니萬一品切時에는發賣元에다代金을添送注文하라、即時送藥함

(全國藥店에잇슴)

發賣元
東京芝區田村町四丁目 電話芝一八七四四番 振替東京六〇一〇〇番 東京藥院本店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天王寺二五五六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東京藥院支店

標準品은반드시 테ー무水 必이 指名買入하라

毛はえ藥フミナイン
田中醫博士의創製藥으로 毛根部에殺菌、興奮、發毛誘成의各作用을다하야毛髮의發生을促進하며 그脫落及비듬을防止、禿頭病、若禿、薄毛、拔毛、毛不足하신분은 試用하라 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 (全國各藥店에잇슴)
◎詳細說明書는 前記東京藥院에申込次第送呈함



▽▽……浦口의『수리르』──(漢江所見)

學藝

‖戲曲‖

風浪과의싸홈 ②

에ー츠作 林學洙譯

에머근 어부들은 죽은줄아는 모양이야. 그들이 저수의(壽衣)들이펏지.

에이트네ㆍ잉우바 (몰룽이 틀만 저보며) 아주차요. 숨도끈허젓는데요.

에머근 그무서운귀신들과친한 이들은 가끔저러케죽은듯이 오래누어잇는일이잇대.

에이트네ㆍ잉우바 네 그러타맙은드럿습니다만── 심장까지뚝그첫다가도 다시살아난다고. 그런데 무슨변이 이러낫섯습니까?

에머근 웬모른사람하고싸우다가 죽엿다는데 알고보니죽은사람이 바로저이의 아들이라나.

에이트네ㆍ잉우바 부인과저이와의아들이지요?

에머근 그래 잉우바는 저런다니까! 바로저이와나와의아들이양. 그래서 탈이지. (웃는다) 잉우바는 여태껏저이가 우리들이에게만족(滿足)하얏다고 생각하오? 저이는 우리들의 이름을 듯기도전에 벌서 만흔여인들을사랑하얏다오 또저이는 우리들을 다이저버린뒤에도 또 만흔여인들을 사랑할테지! 저이가 죽인사람은 오래전에저이가 사랑하던여인의소생이라오. 나는 저이가 우리들을사랑한것보다 몃배나더그여인을 사랑하얏슬게라고 생각하는

에이트네ㆍ잉우바 응당그러켓지요. 그때쯤은 저이도 젊엇고 따라서부인이나 제가 사랑하듯이 열렬히사랑할수가 잇슬터이니까요.

에머근 나는저이는그여인을이때껏잊지안엇다는 그러케열렬히사랑하지못하얏슬망정 사랑하얏슬게라고생각하다오. 아이구 저이가 그죽인사내와 그어머니의 이름을 듯고는 아주맛친사람가티 뛰여나갓서. 방패로가슴을가리고 손에칼을쥐고서 바다로뛰여드러가 그죽지안는(不死의)바다와 엎크러저싸왓지. 자우간 그싸홈을구경하느라고거기섯던 만흔사람중에서도 아모도감히저이를 말류하는사람도업고 저이의 이름을듯는 사람조차업섯스니까. ── 무슨 새로운수나 맛낫듯이 눈울흡뜨고 멀리 쪼차가다가지처서 파도가 휘저이우고쓰러지도록까지는 그들은 꼼짝못하고 소낙이맛난가축들처럼 한군데벌떼거리 엉거서 넘얼로사람들가티 멍하고서잇섯서.

에이트네ㆍ잉우바 정말저이는 죽이는용이 아 ……에 빠저죽이엇군요.

에머근 아니 죽지안햇다니까.

『에이트네ㆍ잉우바』 죽엇서요 그런데부인께서는 외저이일을에 『키쓰』도 하시지안코 저이가슴에 머리를 언즈시지도 안허요

에머근 저건바닷귀신들이저몸둥이에다 갓다너논딴것이야. 누귀의 인영(印影)이나 그러치안흐면 그이가티 둔갑하는딴것이야 아마 바다에 떠도라다니던 부러진돗대나 그러치안흐면 무슨죽어빠진 망령이겟지. 저놈의 검불에나 던저버리고 시퍼죽겟지만 차마 그럴수도 업고 그들이 인질(人質)로쿠훌린을 데려갓스니까.

에이트네ㆍ잉우바 저도 그전에 그와맛찬가지로 여호가튼것이사람의가죽을둘러쓴다는말을 듯기는하얏서요.

에머근 잉우바가오기전에나는 그이일흠을 몃번이나불럿다오. 나는그이에게 (1ㅡ노모ㅡ)브ㅡ 여왕과코나ㅡ르의배사들이 북쪽과서쪽바다로 향하야몰려든대진군을하고잇서서 그이가아니면안되켓도 저항할장사가 업다고 말하얏지만 드른체만체하여. 나는다만 그이의 안해에 지나지못하니까 그이가나에게귀레를듯겨버리면 그만이지만 만일 잉우바가 그달가운 목소리로 그럿케도그이에게 청다운은 그목소리로부르다면 그이도 반드시드러주것지. (여지리(1)…코나ㅡ르의여왕모ㅡ브와 그남편알ㅡ르과의사이에서로재산을 비교하다가 이러난 불여이(牝牛)事件으로 말미아마 그들은데례를 칠려고 대군을거나리고 국경을 넘어 데례가살고잇는쿠훌린의領地로 侵入하얏슴으로 쿠훌린이 匹馬單騎로大敵兵을 물리첫는데 지금이사건은 그모ㅡ브의 대군이 쿠훌린領地에 이르러 이러난것이모양)

에이트네ㆍ잉우바 저는 다만그이와제일 새여인임에불과해요. 그래나 결국은 그이도 가장그를 오래동안 사랑하야준이에게로 그리고 그가어데를 도라다니든지 상관안코 언제나 꼬군히 그를위하야 가정을 간직하야주신 부인께로 다시도라갈게라고 밋슴니다.

에머근 사실나도 그런희망을 가지고는 잇지만 어느때나 그와내가 처음 결혼하얏슬때처럼 명랑한계 가티노변(爐邊)에안저 은잔동안은 아주매혹한사랑을 밧다가도 시기가지나면 때무든 계란껍질처럼 어느구석에내동댕이칠지모르지요 쿠훌린 내말을 드르시요!

七月創作評 ……(其二)

文學以前과作品의多辯

李石薰

그러나 나의『批評家』無用論을 『批評』無用論으로 誤解하는 사람들을 보앗다. 그래서 그들은 自己의認識錯誤는 선반우에올려노코나더러 지나친娛論을 한하엿다고한다 『히틀러ㅡ』나『뭇솔리니ㅡ』의

爆 彈宣言이라면 그럴듯하지만은 批評을無用하라하리만큼 無知하지는안타 다만 批評家──朝鮮文壇이란 未開의人心조코 어수룩한나라에 발호하는 一見評論家風의 無知한一群을 無用타한것뿐이다 群盲의코끼리를評하는 따위의 그런不具評論은 有害無益이기때문에 作家自身이 二重役割을하는것이오이려 價値잇슬것이라밋는다ㅡ한것이엇다. 이러한생각은 아직도 變지안허려니만큼 아직도 論壇은 雜然 混亂하다.

規說하고이야기는 方仁根氏의 『悲戀』으로돌거룩진다 麻浦街道 및 同江邊의 感懷은 꼭그대로 여기에 適用된다. 新鮮한 잉크로 活字化되다시피『悲戀』은 奔忙한 生活의 車中의 一讀으로는 매우 아름다워보엿다. 그러나 內容을 들여보뒤의 印象은 아름다웟섯도 檢校할것도업섯다. 오히려失望만이 큰것을 告白하지안흘수업다

『悲戀』이 小說로되엇는지 안되엇는지는 그것이 完結된뒤라야

自 信잇게 斷定할것이다. 그러나 第一回分에서서어든 印象의限度內에서라도 다음과가튼 批評은 可能하다고 밋는다. 외람된 말일런지모르나도 氏의文學的態度를 나는疑心하지안흘수업다.

『……지으지 퍽오래된 집이것만 아직도튼튼하고 으리으리하엿다』等의 어색한表現

『……그러케하는동이언잇고 대지에 변화를 좌우하며 인생의 운명을 지배하는것이다』等의 抽象的인 리알리티ㅡ의缺如『무심히 풀을뜨드며 이생각저생각을 굴리고잇섯다』等의 지나친奇矯 그리고 다음과가튼 拙劣한對話를보라.

가튼病院 戀愛하는의사와 간호부英姬의對話다.

『뭘그러케 골돌히 생각하시요』ㅡ이것만을보드면 틀림업시 사내말투다. 그러나설명을 보니까 그와가티『말하는 소리에 윤종이(의사)힐끗돌아보니 그것은 간호부英姬엿다』

『가시는길이오』하고 윤종은말하엿다. 영희는간호부옷을 아직도벗지안코 화장만하는지 몸싸 신선하고 아름답게보엿다『……몸시상냥스럽고 도엄굴도 보통이상으로 잘생기엇다』──고

作 者는아주 상냥하고 美人인 젊은女子로안것을 읽者에게 아르켜주라한다. 그러나 『뭘』그러케 생각하시요『는 한마되로作者의努力은 水泡로도라갓다. 眞行의說明인들 무슨소용이랴 도리여 우리는 反對의것을 느끼는것이다.

『영희는 폭엎드리어 흐늑』껴 울엇다. 그울음은 실망과비애와 분노가엉킨여자의 비통한 울음이엇다. 윤종은 가가마키고 끈난하여 어떠케처리할지 걱정이엇다』하는데이르러 그야말로니는『곤난하여 어떠케 처리할지 걱정』이된다

『悲戀』이란小說은 대개이와가튼表現으로된 幼稚한通俗小說이다. 나는왜 구타여 그런것을 처들어 이러쿵저러쿵 是非를하는것일까? 萬一이것이 文學的才能이업시 다만 文藝에趣味를가진 술따름인 文學靑年의作品이라면 애당초에 건드리지도 안헛슬것이다. 先輩方仁根氏에게 期待를 가저섯기때문이다. 그러나 이作品이 文壇生活十餘年을 經歷한 旣成作家로 불러지는분의 制作인가하면 啞然하지안흘수업는것이다. 率直하게

評 하다면 文學以前이오文藝의範疇에도 들던지疑問이다. 一九三六年의文藝라 하기에는 너무나現代文藝的에스프리(?)가 缺如되엿다.

廉尙燮氏를 朝鮮의『더스터에프스키ㅡ』라한적이잇다. 單純한 朝鮮文壇的自尊이나 或은(朝鮮文壇的)自己陶醉라면 모르거니와 氏의作品은 威嚴과深刻과 苦悶과憂鬱을 除外한『더스터에프스키ㅡ』의亞流란것이 正直한나의 印象이다. 憂鬱조차 잇는듯하면서도 事實은 憂鬱一步前의 잔걱정이다. 다시말하면 우울하다 어쩌다하지지만 結局 우울的 饒舌에不過한것이다 氏의 長技는『話上手』(하나시죠ㅡ즈)이며 『饒舌』이다. 이것을 빼고 남는것은 語彙의 豐富일것이나 그러나 作者自身이 그것을 큰힘으로 過信하는것이 탈이라는니 끼웁줏다. 마치 작난감판흔 어린애가 거기팔려서 정작해야할 공부는 하지안는것과도갓다.

그러나 地方人이나에게는『서울말』배우는데이서 氏의小說은必要하다는것만은 特記해야 하겟다. (계속)

漢詩

桐岡考選 押鶯

綠陰 佳作五之十一

秋岡 金炳秀

芳肥軋綠勝花明
細雨東風一樣晴
濃似翠雲沈古壑
密如錦帳蔽空城
游人偏好休笻屐
戰士無憂隱甲兵
桃李蹊亭楊柳院
客爲乳鶯主爲鶯

消夏雜記 ④ 理髮風情

嚴興燮

椅子는 비록安樂椅子나 理髮所의 安樂椅子처럼 不便椅子는 다시업다.

生理的으로 빼나살이 어듸에 다아서 아퍼서가 아니라 時間的으로 甚히 拘束을바더 따분하기 때문이다.

한달에한번──만허야二十日만에 한번쯤박게 못가건만 理髮所에 갈려면 時間을 별너두지 안흐면안되다.

말하자면 理髮하는時間은 내 生活圈外에 드는時間처럼듯기여지는모양이다 먼지와 땀에쩌른 머리를 감고──그보다도 거못거리는 아래ㅅ털수염을 말정하게 밀어버리고 양볼의 面毛를 업새고나면 氣分이 爽快하지안치는안타.

지금 서울理髮所들은 五錢이 引上되여 普通三十五錢이지만 前엔 三十錢이면 大槪머리만깍거주는게아니라 아이롱까지 해주곤햇다.

여름은 모든生物이 다른季節보다 多量의水分의 吸收를 要하는만큼 人間에잇서서도 毛髮의成長이 漢해서그런지── 또는 더워서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름의理髮所는 다른季節보다 훨신사람이 만히들끌는다.

이椅子 저椅子 머리깍는사람들의 몰결을 헤치고 理髮師의 案內로 한구통이 椅子에올나안즈면 어느틈에 등뒤에서는 扇風機가 쇄──하고도라가기 시작한다 理髮所의扇風機는 대개 移動式裝置로되여 새로드러온 손님에게 써ㅡ비스를 하는가? 하면 등에땀도 식기전 발서 저편짝 椅子로 方向을옮겨바린다.

理髮所의扇風機는 一種의裝飾用에갓가울지 灼熱에 땀이끌어오른 손님에게 그다지효혹한바람을 내품어주지는안는다.

머리ㅅ털에 분가루가튼 것을 칠해가지고 가위로"사각사각" 머리를 끌는동안 등뒤로부터 扇風機를 대는것은 理髮師그사람에게는 시원한일이나 椅子에 안즌사람에겐 侮辱에 갓가운일이다.

扇風機의바람이 분가루를 날니고 머리털을 날니면 椅子에 안즌사람은 거울아펴서 두눈을 감어버려야하는 自己矛盾을 演出하지안흘수업다.

허기야 理髮所의 거울이란 머리깍는사람에겐 別로必要업다 必要가 잇다느니보다는 우둑허니 不動의 姿勢로 눈흘흘을 말둥흔채 거울을만 드려다보고 안저키란 實로 無趣味한일이며 실증나는일이다.

내가 나를 보고 시픈 것이 무엇인가?

설사 보고십다손치더라도 거울만드려지게 거이三四十分을 처다볼것은 무엇인가.

그러타고 눈을감고 딴생각을 하고잇노라면 어느틈에"꿈바" 조으름이 기여들어 고개가 간드렁 방아를 찟는다.

이럴때는 내가내게 놀낸것을 認識하기前에 내게놀낸 理髮師의손끗의 엉거주춤에 저윽이未安한 생각이든다.

가위를들엇슬때부터 理髮師의 손에 面刀가 자편질때부터 精神은갑작이 새로워진다.

날카로운 面刀ㅅ날이 얼굴을 글을때 그것이 다시 아래ㅅ턱 밋 목附近을 스르르나려갈때는 "조으름"은 一掃되고 神經은 異常하게도 緊張되고다.

『萬一面刀손이 叛逆을 한다면?』

하고 過敏이上으로 卑怯해질때도 업지안타.

그러나 理髮師의 손이 앙불로 올아오뒤 기ㅡㄴ숨이 저절로후ㅡ나오뒤면 理髮師는

『수염 어떠케 하십니까?』

하고 面刀를 든채 엉거주춤한다.

『깍그시요ㅡ』

海外短信

『다ㆍ뷘치』의 名畵修繕

基督의最後의晩餐』을 그려서 有名한레오날드ㆍ다ㆍ뷘치의壁掛毛氈은 距今四百年前 一五三三年에 佛蘭西의『프랑시스』一世로부터當時의『로ㅡ마』敎皇『크레멘트』七世에 贈與된것인만큼 지금은 褪色도되고毛氈도만히 허려저서 그世界的名畵도이대로두면 못쓰게될것이 아닌가해서 斯界人의 愛惜해하든바인데 最近法王廳의 畵工數名이 數個月間걸려서 이 困難한修復作業을完成 多年의 懸案이解決되엿다 이名畵를修復하는데는 絹絲, 『칸바스』를 비롯해서金絲 銀絲를使用하야 破裂된 個所를 꾸매지아니하면안되고 이것이 實로大難事임으로 지금까지 여러번計劃되엿스면서도 언제나 計畫만으로 맛친것이엿스나 또다시이以上 延期를하면 全然 修復이되지 안켓기때문에 急히 着手한것인데레오날드ㆍ다ㆍ뷘치의 名畵도 이것으로서 다시살어낫다고 할수잇겟다

山에서 물에서 學生通信 募集

山에서 물에서 靑春을 부르는 한업는誘惑! 거긔에는 勇氣가잇고 自由가잇고 生命의 躍動이잇다.

이번 夏期休暇에 名山과 大河를 차저드는 學生諸君! 이 勇氣와 自由가 넘치는 水鄕山郭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어드려하는가?

이 한업시 仁慈한 大自然의 恩寵가운데서 어든思索과 感想을 隨筆로 紀行으로 詩歌로 書翰으로 記錄해보내라!

募集規定 (中等以上程度로함)

一、原稿制限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一、募集期限 自七月五日 至七月三十日
一、採擇方法 學藝部考選 (採擇된分은 薄謝進呈)

朝鮮日報社學藝部

散漫한夏期에 規則的生活을

中東學校敎務主任 宋佐顯

이 긴夏期休暇를 압헤두고서 直接 敎育에 業務하시는 敎育者 여러분은 이夏休의利用策을 어떠케 생각하시는가 그 意見을 傳達하기위해서위선 市內 嘉松町에 잇는 中東學校로 向햇다.

그래서 記者는 同校敎務主任으로계신 宋佐顯氏의 意見을 다음과가티 드러왓다.

글세올시다 갑작스러 별로무슨 새로운案은 업습니다마는大體로 夏期休暇라는것은 넘우나 오래니까 그동안 規律잇는 學窓生活을 떠나서 比較的 自由活動을 하게되는만큼 모든것이 解弛되기 쉽고 放縱되기 쉬운만큼 그點을 特히 注意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勿論 어느學校나 다갓지마는 夏期課題帳이라는것을 내여 줍니다. 이것으로 넘우 自由스럽고 放縱되지 안토록學生의 마음을 단속하는것이되올줄로암니다. 그리고 대개 學生들은 農村子弟가 만흔만큼 夏休에 歸鄕하게되면 課題帳을 規則的으로하는外에 될수잇는대로 家事의 責務를 助力해드리도록 勸勉합니다. 이밧게도 時間이잇스면 登山이나 水泳이나 해서 夏期保健과 體育에 留意하도록합니다. 本校에는 山岳部도잇고 水泳部도잇는데 保導聯盟과 聯絡을 取해서 元山이나 仁川가티 캠프를하기에 適當하고 또는 學生들이 만히 잇는곳은 學校에잇는『텐트』도 주어서 指導하실 先生님이 한분식 따라가서서 가티 지내게하기도합니다. 이런것은 勿論 一般的인것이지마는 그밧게 夏休동안에 本校로서 特히 留意하는것은 다음과가튼 몃가지 行事의 條目이잇습니다.

첫재는 夏期講習會를 一週間 가지는것입니다. 여름동안에 本校에서 主催하는것인데 平素에 學力이나 成績이 同級에서좀떠러지는生徒들은 될수잇는대로이 講習會에 參加시켜서 平素에떠러지든 學力을 補充시키려는것입니다.

둘재는 우에서 말슴한 課題帳입니다. 이것의 意義는 亦是 우에서 말슴하엿스니까 略하거니와

셋재는 博物採集입니다. 學校에서 배우는知識을 直接自然의 自然스러운生態에 卽해서 知識을 正確하고 精密하게 가지도록하며 다른 이方으로는 이 自然과 親近하는동안에 生徒들의情緖나 人格이 陶冶될줄로아는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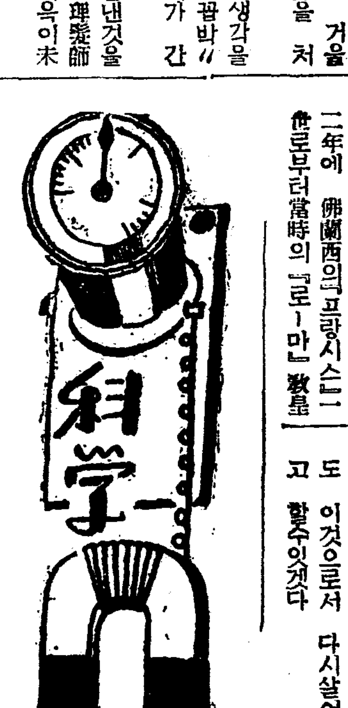
넷재는 生徒들의 사는 그地方마다의 特産物을 募集하고紹介하도록합니다. 이것은 實地로 知識을 涵養하는外에 또한 그知識을 交換하는 意味도 잇습니다.

다섯재는 亦是 그地方의 歷史的材料를 蒐集하게하는것입니다. 이것은 그地方의 文化的遺産에對해서 知識을 엇는동시에 또한 生徒들로하여금 愛鄕心을 가지게하는것이 그意義입니다.

여섯재는 每日每日 日記를적게하는것입니다. 平時라도 日記를 적는 習慣은 여러가지 意義로보아서 조흔일이지마는 우에서 말슴한바와가티 散漫하고 解弛되기쉬운 夏期生活에잇서서 이러한 規則的인 生活을 訓鍊시키는것은 매우 조흔일인줄로 압니다.

그다음으로는 故鄕에 도라가서는 반드시 鄕黨의 父老를 訪問하고 또한 先瑩의 省墓를하도록하는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常識으로나 또는 禮儀의 一端을 알게하는것입니다.

以上의 몃가지가 우리 學校로서 夏休間 學生들에게 勸勉하는條件입니다. 이러한것을 學生들이 그意義를 自覺해서 着着으로 勵行實踐을한다면 여름放學도 學校에잇슬때보다 못하지 안케 利用될줄로 압니다.



夏休中 昆虫採集의 意義와方法 ①

李軒求

學生時代의 가장질거운 夏期休暇가 不遠하얏습니다 여러분은 이번夏期休暇를 利用하야 무슨 計畫을하십니가 海水浴을 가시는것도조코 登山을 하시는것도 조흐며 또는 自己父母의 經營하시는家業을 助力하야드리는것도 勿論조흡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가지 여러분에게 이번夏期休暇中의 行事의하나로 꼭勸하고시픈것이잇습니다 그것은 海水浴을 가시는분이나 登山을하시는이나 또는 家庭에서 家業을 助力하시는이나 누구에게든지 簡單히 實行할수잇는 昆虫採集입니다 昆虫을 採集하기爲하야 山이나 川邊을 跋涉하고 海岸이나 川邊을 徘徊하는것이肉體의 健康을爲하야必要하고 精神을 修養하는 方便도되지만은 그보다도 더욱 自然科學을 배우는이에게는 반다시 實行하지 아니치못할 工課의하나인것을記憶하시기바람니다 自然科學中에도 더구나 動植物가튼 學科를 研究하는것은 學校敎室에서 敎科書의 揷畵나보고 先生의 講義만드르고되는것은아니지만은 場所나 時間關係로 할수업시模型 圖解等을代用하야 學習한것입니다 그러나이런機會를利用하야 自然의生態를 自然그대로 觀察하고 그리고 標本을 採集하야 實驗에供하는것은 知識을 正確하게하는데 大端必要한것입니다 이외가티 自然의 生態를 觀察하고 內部의 構造까지도 解剖調査하야보면 別로히 敎授하야주는 指導者가 업서도 自己스사로 一般生物界의 神秘를 覺得하야 前人未踏의 새境域까지도 開拓하는것이 그리難事가 아닐것입니다 여긔에對하야 이러한 挿話가 잇습니다 米國의 有名한 動物學者아가신각하ㅡ바드大學敎授로 잇슬때에 한靑年이 차저와서 動物은 엇던方法으로 硏究하는것이 조흐냐고 한즉 敎授는 即時이러나 魚類의 一個標本을 가지고 와서 그靑年의 面前에노코 아모말업시 그대로 室內로 나가버렷습니다

그靑年은 이것은 自己에게이 標本을 觀察하라는것인가 보다 生覺하고 이것을 觀察하기 始作하얏습니다 未久에 敎授가 드러와서 이標本에서 무엇을 보앗느냐고 質問하는고로 靑年이自己의본대로 對答한즉 敎授는그 靑年의 觀察한것이 아즉不充分한것을알고 그러면 내가다시올때까지 또보고잇스라고말하고 다시室外로나간後에 靑年은 誠心誠意로 그標本을 다시精密히觀察한後 敎授의 다시도라오기를 기두르고잇스니까 半日이나 지난後에 敎授는 다시室內에 드러와서 그 靑年에게하는말이 自然科學을 배우는法은 이외가티하면되다 卽自己自身이 自然物을 觀察하는것이 唯一한方法이라고 말하얏습니다 그래서 그靑年도 처음으로 깨닷고 도라가서 有數한 學者가되얏다합니다

이와가티 自己가 觀察하는것이 그方面의 知識을 正確하게 할뿐아니라 또는自己鄕土를 사랑하는 動機도되는고로 이것이 내가여러분에게 昆虫採集을 勸하는理由입니다 昆虫의 種類는 大端히 多種多樣인만큼 그採集하는方法도 不一하야 그것을 一一히말삼하는것은 너무專門에흐르고 따라서 너무張皇하게되는고로 그中 實行하기 容易하고 簡單한方法 몃가지만 말삼하려합니다

(寫眞은 昆虫採集道具一式)

昆虫採集의時期

昆虫은 一年中 春夏秋冬 언제든지 各處에 棲息하는것이고로 四時를 通하야 採集하지아니하면 完全한標本을 求할수업지만은 專門家가아닌 普通사람으로는 그리할만한 餘暇가 업는고로 夏節을 利用하야 採集하는것이 普通인데 夏節은 一年中 어느時期보다도 昆虫의 種類가만하서 昆虫採集의 가장適當한 時期라할수잇습니다 盛夏가되면 一般昆虫들도 甚한 더위에부대끼여 日中에 飛翔하는것外에 夜間에 活動하는것도 만히잇지만은 普通日氣라면 一般으로보아 午前八時에서부터 午後二時頃까지가 第一多數히 나오는時間인고로 그時間을 擇하는것이 조흐며 구름이낀날이나 바람이 甚히부는날은 一般昆虫들이 別로 나오지아니하는고로 採集을 中止하는것이 조흡니다 그러나 昆虫의 活動이 活潑할때보다 動作이 緩漫한때가 도리혀 採集하기가 容易하다고해서 故意로 草露가 내리는早朝이나 降雨日을 擇하야 採集을 出發하는이도 잇습니다만은 그러케하려면 昆虫의 習性을 잘 理解하야 어느昆虫이 어느場所에 棲息한다는것을알어야합니다 그러고 夜間採集을하여야 採集할수잇는 種類도잇습니다

『常識科學』 白米의知識 (下)

河準寅

우리네가쓰는 普通精米機는 大槪 小型이고 小規模인데 反해서 外國에잇서서의 쌀의 主要産地인 英領印度나 印度支那 蘭領印度 比律賓 米國가튼데는極히 大規模로 籾에서 精白米를 連續的으로 合理化해가면서잇다 첫재 籾을 精淨裝置에 걸어서 塵芥 小石等을 排除하야精選을行하고 그籾을 第二級摺裝置에 옴겨서 脫籾한것을 玄米 籾殼 碎米의 세가지로 選別케한다 第三으로는 그玄米를 精米裝置에 걸어서 二回에 簡單히 精白해서 副產物인 糠과碎米를 區別하고 最後의工程으로는 精白된 쌀을 精選해서 微糠을 淸掃하고 粒面을 硏磨하며 때로는 다시『그르코ㅡ스』液을 塗布해서 所謂『코ㅡ텟드ㆍ라이스』를 만드는것이다 筆者의 米英 獨等의 市場에서 蒐集한精白米는五十餘種에及한다.

米國의 精白米는 品種名미테 반드시 硏磨또는 被覆된것을 明示하고 英獨것은 다만 産地만으로서 그特徵을 나타내이고잇다 獨逸市場의것은『그르코ㅡ스』被覆米와가튼 高級品은 만호나 英國에는 世界各地에서 모혀드는것이만타 더구나 日本米를 歐洲市場에서 求해보면 아주變質된것이만흔데 이것은 歐洲로輸出되는동안에 반드시 印度洋의 高熱地帶를 通過하는때문에 船中에서 맛치 蒸米와가티되어 만히 變質되는때문이다.

歐米서는 硏磨白米(폴릿쉬ㅡ드ㆍ라이스)를 만들거나 또는 거기에 다시 滑石粉이나『그르코ㅡ스』液을 混合해서『코ㅡ텟드ㆍ라이스』를 만들지아니하면 市販白米로 내여노치안는데 이것은 다만 炊飯時에도淘洗를할 必要가 업고 白米의 貯藏上에 必要할뿐만아니라 또한 白米의 商品價値를 向上식히는데도ㆍ매우 必要한일인것이다

近時 一般으로는 從來의 混砂白米 또는 嗜好白米의 대신으로 無砂搗米 七分搗米 또는胚芽가 普及되여잇는것은 매우깃분現象이다 常食白米로서 保健衛生上으로도 그의認識을 깁푸게하고 올흔 理解에依해서 米食을 主로하는 우리들로서는 모든點으로보아 白米의 優秀한것을 欲求하는것은 必然的인것이며 또한 白米業者도 이 一般的欲求에따라서 適應하게 改善하여가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

──(了)──

讀者社交室

▲朝鮮日報購讀者諸氏의게 問議합니다 비(雨)오는뒤에 雨量에 對하야 標準을무엇으로하야 잡습니까 또는미리하는稱號은 어느容積에 對하야 稱합니까

小生은 無識하야 궁금히지내오니 諸先生님께옵서 社交室을通하야 下敎하야주시면 感謝하것슴니다 京城一讀知生

▲惶悚하오나朝鮮日報社交室을빌어서울 六十萬府民에게 뭇는바올시다 小生은方今二十五歲인 시골띄기올시다 뭇는要件아래것은求職에關한件이올시다 市內某司法代書所나或은會社商店其他某社의記錄者 要見元保證人도 有하나이다 面接無職으로 잇사오니 同情의마음으로 下敎하여주심을 懇願하야마지안습니다 同情하시와뜻계신분은左記電話로 直接電話하여주시면차저가뵈겟습니다 經驗이라던 넘지못하오나 多少잇습니다

住所府內勳洞五九番地 電話本局二七六六番

▲二十歲의少年으로 中學二年을修業하고 家貧에몰리어職業을 求하니事務員으로 採用하시기를 期待하나이다(○生)

六月十五日

▲간명版(끈나로판)의謄寫版代用과가티 使用하는것인데 그材料와分量이未詳하와 四海賢士님게伏問하오니 아시는분은 社交室을通하시와 下敎하여주시면感謝로生覺하니나이다 但直接下示하심도無妨 京釜線小井里驛前李東壽

▲慶南金海 李生께모읍니다 六月四日附에내신 普文講義錄을 얼마에 讓渡하시겟습니까 直接本人에게 通知하옵기 바랍니다 ‖册은全部이십니까‖ 湖南線三鄕驛前 黃相基

▲六月十二日金堤一讀者에게答합 獨學하려는 兄에게多少의參考라도되다면하는 誠意로述합니다 나의親友가 苦學을 目的으로 東京서 就職一方夜學을엿는데 就職處가 商店이라 時間餘裕가업서 工夫에不如意하야 獨立으로行商을하며 餘暇에受學하려하엿스나 經濟的 時間的으로 만한餘裕를不與하야 現在는糊口에만도 餘念이업다합니다 그와反對로 나는여기서 店員生活을하며 中學講義錄을 購讀中인바 하로에 三, 四時間 工夫할틈만 잇다면 努力如何에따라 確實히 中等程度의 學力을 어드리라고 밋습니다 書信交換歡迎 平壤府倉田里 윤권

▲十餘年間不良하게 浪人生活을한 無智하고 冷情한 金○鳳과 十八歲꼿다운 꿈을싣고 新家庭의 단꿈을 三年만에 男便別世로 흘홈이된 崔○淑은 三年前에 夫婦가되여 昨年에玉童子까지생겻다 崔○淑에는 前夫의아들 ○○이잇다 그가다시남의안해되도 아들을위함이오 그의 希望의全部는 아들에게잇다 孤兒를 길너주는 人情잇는사람도잇는現實에 金○鳳은 다리고 들어온 아들과 안해에게 날이갈수록 무서운 매와학대를더심한대 어머니로서의 그는自殺도 못하고 世上을원망도하고 自己의身勢를 歎息하며 눈물로 度日한다 그를救出法은 업슬가?

(葛田探偵)

▲新人文學編輯者에게 小生은 新人文學誌를 愛讀하는者이온데 一九三六年에들어와 二卷만을겨우사서본後 아직까지新聞紙上에 新刊紹介에올르지안으니 웬일임닛까? 今年에三月號인지 四月號까지보고는 아직못보엿사오니 新人文學編輯者께서 其後發行하신것이 잇사오면 이社交室을通하여알으켜주십시요.

(高原問講生)

▲早稻田中學講義錄을 買入코저하오니 讓渡하실분은 左記住所로 出版回數와 價格을通知하여주시요

慶南昌原郡天加面事務所 金鍾根

新刊紹介

▲靑年太陽 七月號 發行所 東京市赤坂區表町三丁目二四 日本靑年文化協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十錢

▲百八賣念 張義永著 發行所京城府仁義町二四 天台宗大覺寺建立事務所 定價五十錢

▲룡천검 第三十七號 發行所 京城府堅志町八○ 룡천검社 定價十五錢

▲女人 七月號(內容) 現代女性問題座談會、女人時評 職業女性과離婚問題 女流作家論 女流文壇現狀및隨筆其他 發行所 京城府寬勳町一四六 批判社 振替京城二三七八七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女性 七月號(內容) 이번여름에는무엇을할까 結婚ㅣ張孝準氏과그어머님의말슴 兒童心理 美人과醜美 映畫特輯 小說 詩等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六七八番 定價十錢 送料二錢

▲時兆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淸凉里町 時兆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錢

連載野談 布囊記 （五六）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복울찟는그칼〔二〕

때는 정히 동시월하순 이른 아침

류리는 찬란한 해빛이 침향헌(枕香軒)에 빗최엿다。왕께서는 이아침의 해빛이 하도 찬란한것을 괴이하게 생각하시며

『아아。우리나라의 영광도 저 해빗과 가티 영원히 빗나게 도오소서。』

하시고 동명성왕신사(東明聖王神祠)를 향하사 고개를 단정히숙이시고 축수하섯다。

그리고 뜻밧게 백제(百濟)백성 수천명이 몰려와서

『대왕의 백성을 삼어주소서。』

하고 간청하는것을 허락하야주신것을 끌구내(骨句川)에서 거루(不耐威)라는 룡마(龍馬)를 어드신것을 다서금 생각하섯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이웃나라 백성이 몰려와서 귀화(歸化)를청하고。물속으로부터 이상한 말이 뛰어나와 굽을 탕탕 구르고 꽁지를 휘휘 내두르며 달려드는것이 모두 나라에 장차 상서로운일이잇슬 징조로 생각이되신 까닭이엇다。

왕께서는 고구려의 셋재 임검이되시는 대무신왕(大武神王)이시니 휘(諱)는 무휼(無恤)이오 류리대왕(琉璃大王)의 셋재왕자로 탄생되섯다。

대무신왕께서는 그천품이 지극히 총명하신중에도 영걸스러우시고 도량이 넓으사 특히부왕(父王)의 총애를 바드시다가십일세에 대통을 이으사 임검이되섯다。

그런데 대무신왕께서는 차차 장성하심을 따라 그부왕께서 임검이 되시게된 그래력을 매양 괴이하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그런 아바마마의 아들로 래어낫스니。나도 범연한 사람이되어서는 안될것 특히 아바마마께서 뜻을 일우시지 못한 그뜻을 내가 이어서 성공해야할것。』

하시며 장차 임검이 되시는때는 그부왕께서 뜻두시고 일우지못하신것을 긔어코 성공하시려는 큰 포부를 흉중에 품으신지가 오래엿다。

대저 왕의 부왕이신 류리왕은 동명성왕의 맛아드님으로서 례씨(禮氏)왕후의 소생이시다。

애초 동명성왕께서 장차 새로 이 고구려 나라를 세우시려고 부여(扶餘)를 떠나실때에 잉태중에게신 례씨를 향하사

『만일 아들을 나시거든 내가 일곱모가 난 돌사이에 감추어 둔것이잇스니 그것을 차저가지고 오면 내 아들로 안다는 말을 일러 주사 부자가 서로 만나게 해주시옵。』

하시고 남쪽으로 내려오사 파연 고구려나라를 세우섯다。

그런데 류리왕께서 어렷슬때에 활을 들고 새잡기 착란을하다가 잘못되어 물긷는 녀자의 물동우를 깨트린일이 잇섯다。

그녀자는 크게 노한 음성으로써

『아비업는 자식이라 이러케고약한 작난을 하는게야。』

하면서 입에 못담을 욕설을 만히하얏다。

류리왕께서는 그녀자의 물동우를 깨트린것이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한편으로는 그녀자에게몹술 욕을 먹은것이 분한중 특히 아비업다는 그말이 매우이상히 생각되엿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례씨왕후께 향하야

『어머니。내 아버지는 대관절 누구시며 지금 어데게시요。』

하고 아버지업다는 말의 까닭과 그잇는곳을 캐물엇다。

이에 례씨왕후는 전후 곡절을 다설명하고 곳 그일곱모난 돌미테 감추어둔 물건을 빨니 찻기를 말하얏다。

류리왕은 곳 그일곱모난 돌미테잇는 물건을 차저내니 그것은 큰칼 한자루가 이엇다。

류리왕은 크게 깃버하사 그 칼조각을 가지고 고구려에 내려와 동명성왕께서 가지고게신 칼조각과 서로 마추워 틀림이 업슴을 증거로하야 비롯오 부자분이 서로 만나게되엿슬뿐 아니라 내중에는 동명성왕의 뒤를 니어서 임검까지되섯스니 이것은 류리왕일생에 크게 괴이한 일이오 신긔한 일이엇다。

그럼으로 대무신왕께서는 그부왕께서 이러틋 괴이하게 대통을 이으신것을 신긔히 생각하시고 또는 그부왕께서 뜻을 두섯스나 이내 일우저 못하신 그뜻을 이어 긔어코 공을 세우시려는 포부를 깁히 품게되신것이엇다。

그런데 별안간 부여왕(扶餘王) 대소(帶素)가 가마귀 한마리를 보냇는바 그가마귀는 빗이 붉갓고 몸동이는 둘인데 머리는 하나로 생겨 이상한 가마귀엇다。

대무신왕께서는 이 이상한 가마귀를 압헤 노흐시고 여러신하들을 불으섯다。

現代映畫界의巨人 루네·크렐의藝術

루네·크렐을 모르는 사람은 現代映畫를 모르는사람이다。이 論文은 日本의映畫評論家 某氏의 論文인데 크렐을 紹介하는 意味아래 譯載한다

루네·크렐을 全然 아지 못하는사람으로부터 루네·크렐이 어떠한 사람이냐고 뭇는다면 나는 『喜劇을 썩 잘하는 사람』이라고 對答하는데 틀림이 업다。

조곰 바꾸어 말하자면 루네·크렐은 나에게 喜劇을 보여 주는 단 한사람의 映畫藝家라고도 말할수 잇는것이다。

正直한 이야기로써 나의 크렐觀은 以上으로 고만이지만은 이러케 끄치어 버린다면 좀 困難하니까 좀더 루네·크렐을 만저보겟는데 단지 遺憾千萬인 點은 루네·크렐이 이글을 보지못할것이라는 것이다。

루네·크렐과찻푸린

루네·크렐과 찻푸린의 比較는 여러가지點으로 興味가잇다。

루네·크렐의 喜劇의 가장重大한 意味는 喜劇을 俳優의 손으로부터 監督의 손으로빼앗어 온 것이라고 나는생각한다。

려、밀리온을 볼때 나는그것을 기피 느끼엇다。이런사람이 나와서는 찻푸린도 벌써 고만이다

最後의喜劇俳優인 찻푸린
最初의喜劇監督인 루네·크렐

悲劇的要素를가진 喜劇으로 찻푸린
喜劇만으로 最高椅子를 차지하는 루네·크렐

世界에서 가장 頑固한 토키反對論者 찻푸린
世界에서 가장 몬저 토키를 가다듬어 노흔 人間의 루네·크렐

感傷派代表 찻푸린
理智派代表 크렐

이것만으로서는 優劣이 안나선다。그러나 여러분은 말하리랑。찻푸린은 아즉도 世界에서 가장 갑비싼 映畫를 맨들고 잇지 안하냐고? 그러키때문으로 老舗가 조흔것이다。

루네·크렐과諷刺

루네·크렐에게는 巴里下流社會의 系列과 諷刺物의 系列로 두種類가 잇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바의 事實이다

그두가지의 表現形式이 下流社會인 때에는 比較的 레알리슴의 色彩를 띄우고 諷刺物인때에는 象徵主義 乃至 様式主義的 傾向을 보이는 것으로 大體 決定이 되야잇다

그런데 이 두 系列內에서 諷刺物의 편을 크렐自身도 得意해 할뿐이 아니라 世上에서도 또한 더 高位를 取扱하고 問題視하는 것갓다。事實 그의 일이 下流社會의系列以外로떠 나오지 안 하얏든들 그는 一種의 鄕土詩人으로 끄치고 말엇슬지도 모른다。即公平히 보아 그가世一流의 地位를 獲得하얏다는 것은 오즉 그 諷刺物의 系列에 依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無妨할것이 即 喜劇에依하는 것이다。

元來 크렐의 喜劇은 諷刺가 잇기때문으로 귀중하게보인다。

그러나 지금 새삼스러이 그런소리를 한다는것은 옹음라 왜 그런고하니 이세상에서諷刺가업는 喜劇을 집기어 보아줄 사람이잇슬찌 엽슬찌생각해볼 문제인 까닭이다

즉 喜劇에 諷刺가잇다는 짓은잇슬만한 것이 잇슬뿐이 다。即 것뿐이다。別로 신통할것이업다。낭을 웃기기만 할것가트면눈짓 코짓을 하여서라도 되다 藝術부어니 떠들어 낭을驗動시킬것도업다。問題는 諷刺의 有無에잇는것이 아니다。그諷刺의 質에잇다。그 諷刺의 質을 決定하는것 무엇? 思想? 크렐의思想?

第二情報部……佛C、F、C、푸로作品으로 監督은죠엘·비용이요 主演은짠·뮤라베라、코레느、자니느、크리스팡、장·갸방이라고。佛시네마賞에四等으로 入賞되얏든것。

新進스타名鑑

▲헨리·혼다(米) 네브라스카州出生。新聞記者를 따니다가 一九二七年 舞臺로 들어와다 一九三四年 紐育에서 『죠·워커』와 『파마럭스·아·와이프』의 主役노릇을 한뒤 가든役으로 映畫에 들어 와다。주장되는 出演映畫는 『運河의微風』『東道』『사랑의노래』『月宮은 우리집』『孤松의棧道』等

G部

장·갸방(佛) 佛映畫界를 代表하는 美男主役이요 듀비뷔監督의男優로 朝鮮도 續續 그主演의映畫가 封切되면서 잇다。即『하얀女地』『우에서부터 아래까지』等이다

▲풀렛트·고다드(米) 一九一一年六月紐育롱·아일랜드에서出生。最初코一라스로 뮤지칼·커메디『리오·리타』에出演。할·로취喜劇으로부터 映畫에들어섯다가 찻플린에 發見되어 그의相對役으로 뽑피엇다。

▲베티·그레블(米) 몬타나州出生。알바티나·랏슈其他舞踊學校에서 工夫하고 푸란세스·되이라는 藝名으로 골드원과契約하야 映畫로들어와다。그出演映畫로는『후피』『키키』『콘티넨탈』『女學生大行進』等 작키·쿠간과結婚

H部

▲작、헬리(米) 보스톤出生。보드빌、뮤지칼·콤메듸로부터 映畫에들어와다。『靑春俱樂部』가最初의 出演映畫 그리고는 『迷優나폴레옹』『새색시가울엇다』等

▲하리엣트·힐리야드(米) 부란스와專屬으로 아메리카一流 웃듸·네폰樂團付의 부르스싱거로서 팔리고잇다。아스테아·로쟈스映畫『艦隊를쫓차서』에 特別出演

▲요세핀·허친손(米와나) 사틀市出生。音樂과 舞踊을 工夫。어려서 메리픽포드의 映畫에 兒童役으로 出演한일도 잇다。一九三四年와 나에招請되야 映畫로 들어온後『봄의날설녀』『사랑할權利』『中國랍프의石油』『나는醫師와結婚한다』等에 出演

K部

▲잔·키프라(獨、米) 一九○二年 폴란드의 首府 왈소우에서 出生。歐洲各都市로 다니면서 오페라에 出演。라듸오를 通하야 가장 人氣를 끌엇다。一九三○年 南쫄의哀愁가 映畫로 첫번。最近 米國파라마운트에 招聘되얏다가 다시 歸獨中。그의 出演映畫는『오늘밤이야말로』『노래하라오늘밤』『오늘밤은당신과』(獨)『사랑의나폴리』(파社)

카우뽀이가된 템플작은아씨

카우뽀이의 차림차림을 하고나서서 이작은아씨는 어데를가시는 셈인지요? 休暇를 利用하야 가지고 팜·스프링을 차저가신다나요

★曆★

七月五日(日)
建甲午五月大(十七日)
戊子·火·虛·破
●夏至二十一日(舊初三日)
●小暑七日(舊十九日)

絢爛한天分의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 (女) 「슈ー만」 一、님은 나의安息 (男) 「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 實費로 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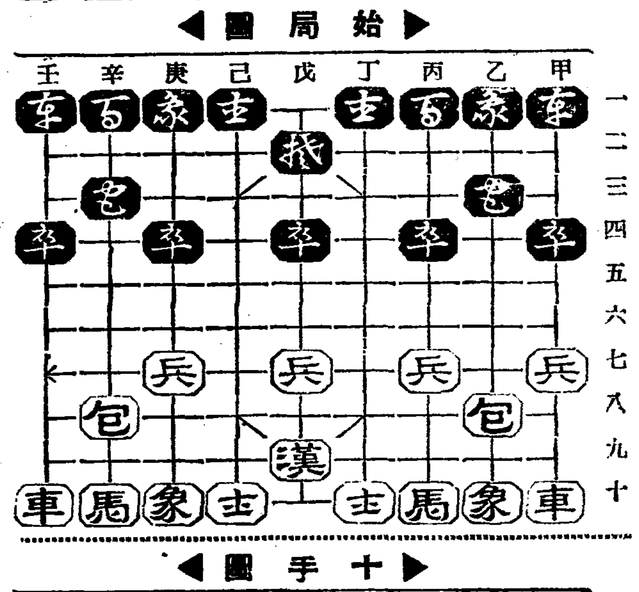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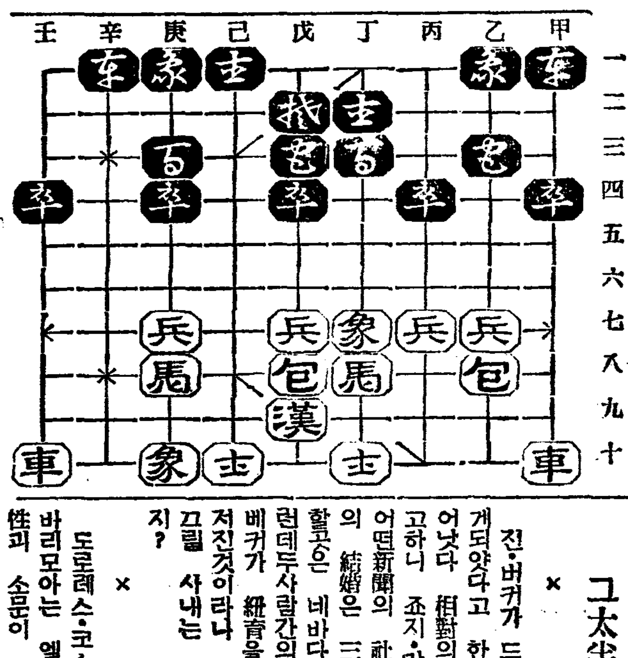
手先漢 李在鳳 一兵減 楚 李英鎬

◀始局圖▶



◀十手圖▶

甲七兵—乙七
辛一馬—庚三
辛十馬—庚八
辛三包—戊三
辛八包—戊八
丙一馬—丁三
乙十象—丁七
丁一士—丁二
丙十馬—丁八
壬一車—辛一



수선한헐리우드 그太半은로만스

×

진·버커가 드듸어 結婚을 하게되얏다고 한참의 야단이 일어낫다 相對의 幸運兒는 누군고하니 죠지·마도날드라는 紐育어떤新聞의 社會部記者다 그들의 結婚은 三月廿二日。式을行할곳은 네바다州라스·베가스。그런데두사람간의 로만스는 最近베커가 紐育을 訪問하얏슬때매저진것이라나 행숯을 켜고애를끄릴 사내는 햇手名이나 될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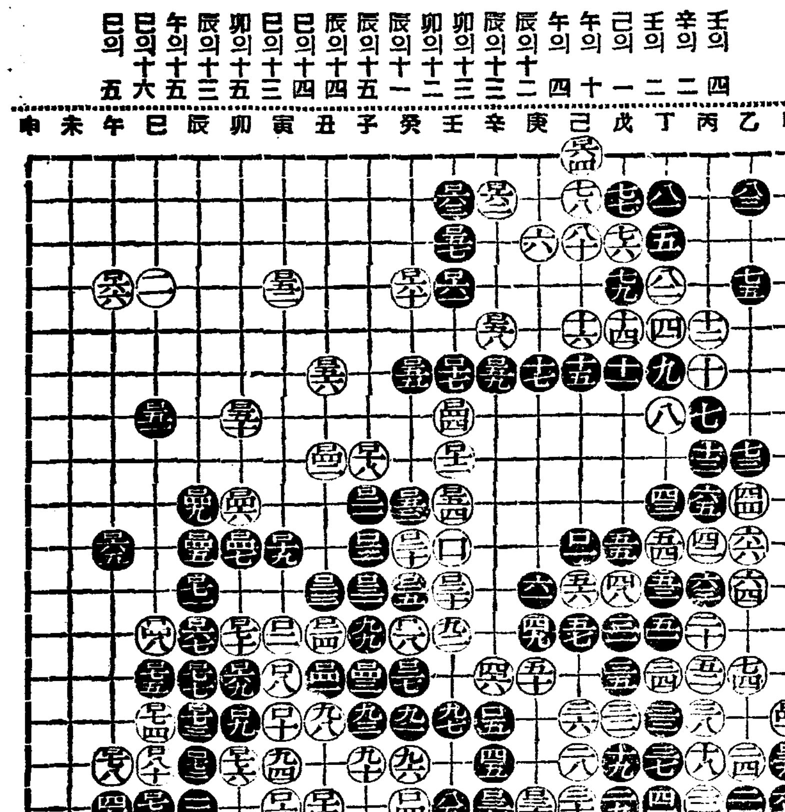
×

도로레스·코스테로와 離婚한존바리모아는 엘레인·바리라는 女性과 손분이 놀다고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1—

白 丁奎春
黑先 柳鎭河

●二一 壬의四
○二二 辛의二
●二三 壬의二
○二四 己의一
●二五 午의十
○二六 午의四
●二七 辰의十二
○二八 辰의十三
●二九 卯의十三
○三○ 卯의十二
●三一 辰의十一
○三二 辰의十五
●三三 辰의十四
○三四 巳의十四
●三五 巳의十三
○三六 卯의十五
●三七 辰의十三
○三八 午의十五
●三九 巳의十六
○四○ 巳의五



蔡極文氏評日 黑이 壬의二로 抽立하야 應手를 要하고 午의十으로 先着하야 自陣을 構成하니 全局形勢가 均衡으로 看譜되는지라 이로서보면 白의 預備不周를 自然推想하노라

라듸오

四日（土曜）

◇午後六時三○分 노래공부 一、수레 二、조이배 三、갬이 朴景嬉 外實演兒童數名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時事解說
◇同八時 講演『月蝕에對하야』 朝鮮日報 咸尙勳 梨花女高 韓稺表
◇同八時三○分 流行歌 一、新農夫歌 二、물새야 왜우느냐 三、고기배 四、두사람의사랑은 五、님이여잘잇거라 六、빗나는靑春 姜弘植 伴奏 OK管絃團
◇同九時 野談『壽業』 庾秋岡
◇同九時三○分 楚漢歌外 一、楚漢歌 二、孔明歌 三、寧邊歌 四、山念佛 五、朴淵瀑布 金振鳴

第一放送

◇午後六時 (大)幼兒에게들리는옛이야기
◇同七時三○分 (東)和洋合奏 東洋管絃樂團
◇同七時五○分 獨唱 良島華
◇同八時○五分 (東)哥澤 哥澤芝勢以外
◇同八時二○分 (東)라듸오·코메듸 古川綠波 外

五日（日曜）

◇午後○時五○分 古談"白虎悲李" 金錫九
◇同一時二○分 唱劇調 一、短歌湖南歌 二、唱劇調 水宮歌 鼓手 韓成俊 郭雲堂 千洪
◇同二時 野球試合實況 —京城球場에서— 都市對抗野球朝鮮第二次豫選(決勝戰)
◇同六時三○分 노래공부(下) 一、수레 二、조이배 三、갬이 朴景嬉 外實況兒童數名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明倫學院 安寅植
◇同八時 라듸오·드라마『바다까에 사는사람들』 一場—鄭相稷作— 【配役】 南長海…(아버지)… 申左鉉 山出…(둘째아들)…宋在魯 陸出…(셋째아들)… 梁世浩 鄭珠…(딸)…白銀姬 順女…(漁場主의 딸)…盧志海 崔參奉…(洞里老人)…朴商朝 學洙…(洞里靑年)…李春峰 劇人協會 演出 申左鉉 效果 宋
◇同八時三十分 새라령外 一、새라령 二、六字배이 三、興打令 四、개고리打令 金燦守 愼淑
◇同九時 歌曲 一、羽調頭擧 二、羽樂 三、還界樂 四、界樂 五、編 洪芙蓉 文明仙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三○分 (東)時報
◇同一○時 朝滿交換放送 —滿洲로부터—

第一放送

◇午後○時五○分 (東)野球試合實況
◇同六時 (東) 合唱 JOAK合唱隊
◇同七時三○分 (東)뉴ー스演藝
◇同七時五七分 올림픽參加國日獨國際放送
◇同八時 同上獨逸로부터 松平晃 晉丸等
◇同八時三○分 (東) 講演
◇同九時五分 (東) 歌謠曲

六日（月曜）

◇午後零時五分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船遊歌 三、달거리 四、경사거리 張香蘭 孫瓊蘭
◇同三時一五分 常識講演『더위이야기』 淑明女高 李廷紀
◇同六時三○分 合唱 一、클레멘틴……몬트세作曲 二、딸기……메라틴作曲 三、우리언니……米國民謠 四、우리얘기……로서아民謠 五、軍樂隊行進……슐벨作曲 六、째즈뻰드……로서아民謠 七、까막잡기……西班牙노래 八、나비야……西班牙노래 貞信女學校生徒 伴奏 金信福 指揮 金亨俊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濟解說 韓昇寅
◇同七時三○分 뉴ー스、天氣豫報、職業紹介
◇同八時 講演『機械와人間』 李晶燮
◇同八時三○分 音律『平調會像』 玄琴 尹榮達 洋琴 吳淵模 洋琴 尹昌赫 奚琴 金德鎭 大笒 李斗七 洞簫 姜龍雲 細笛 李幸珪 杖鼓 金基萬
◇同九時 獨唱
◇同九時三○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바 어화靑春 林小香 鼓手 韓成俊

第一放送

◇午前六時三○分 (東)英語講座 山田巖
◇午後零時五分 長唄 中村六八郞外
◇同六時 (金)이야기 大宅常一
◇同六時二五分 (東) 基礎英語講座 豐谷榮
◇同七時三○分 講演
◇同八時 (廣)俚謠 山口縣萩町有志
◇同八時二○分 (廣)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九時 (廣)浪花節 木村友忠

七月三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午前十時四○分 午後一時半 六時半) 但一回興行中에限하야 無料觀覽
◆오페라 햇 (Mr. Deeds Goes to town) 코럼비아社超特作映畫 名匠 프랑크·캐푸라監督 캐ー리·쿠ー파ー主演 쪼지·밴크롭트·진아·서共演 都會人及都會文明에 더져는 痛烈深刻한諷刺、名컴피네숀이 또다시비저 낸光輝잇는屈指의名作!! 아름다운人生의感情과그洞察은古今에獨步!!
◆코럼비아社超特作映畫 뮤직·고ー라운드 (Music Goes Round) 米國레뷰界의巨星하리릿치맨 主演 빅터셀챙가監督 아메리카全土를風靡하는流行歌의豪華世界! 陶醉와幻惑、爆笑한리즘 파다시리즘에 그대는三嘆不己하리라
◆코럼비아社超特作天然色映畫 漫畫 (1)닭싸움 (2)옛날이야기行進曲
◆東日大每國際뉴ー스四篇
次週렘플의愛國者、로맨스乾盃 노래하자이밤을、戀歌、曠初戀、人形의母、虛粧의밤、페로니카의 花束
映畫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東劇座公演第五週
光明을일흔사람들 全二幕 金健……作
光明을일흔地下村의人間들! 그들은그네들의環境에서永遠히버서나지못하엿다! 그러나그들은단지하나의추할길이잇섯스니그들은무엇을취하엿나? 이것은우리들의이야기거리가되고잇다
出演 卞基鐘、李敬煥、宋海天、河芝滿、徐玉汀、金英淑其他總出演
不具의안해 一幕一場 周峰越……作
한사나히를싸고도는두계집의사랑의싸홈! 名聲와富貴를超越한순진한人情과사랑밋헤서는모ー든것이굴복할것이며이럼으로서만이快活한살님을할수잇는것이다
貧富의境 全一幕 洛山學人……人
누구나갓치貧困한가운대通情도하고同情도한다그러나한者가貧하고한者가富한때에는잇든情도업서지고업든心情이절노나는것이人間의本性이라하겟다여기에뜻깁흔喜劇
西大門町 電光3三三番 東洋劇場

七月一日より七月七日まで
晝夜三回上映 入場料金 五十錢 七十錢
映畫名 上映時間表 ひるの部 夜の部
◀眞夏のスキー 二·三〇 一三·〇 七·〇一
◀魔術師の弟子 十二·〇八 三·一八 七·一九
◀愛の法則 十二·一五 三·二五 七·二八
◀あの卯のか秘神つ秘き 一·二一 四·三一 八·三五
浪花館

七日一日부터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米國마스콧트社超特作全發聲連續篇 巨匠알마드는시에파ー氏大作 流線怪盜列車 最終解決篇八卷上映 旋風그래이에氏決死의主演 사ー레그래이嬢助演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모던騎士道 監督 데이·가ー넷트氏 主演 죠ー지·라우드氏 禁酒法廢에서失業한갱크는무엇을目錄하나? 名鉢한掠奪일까? 美事한人生轉換일까? 이것은血에빗나는갱크에ー고메데이·메로드라마다
◇大都映畫社超特作連續篇 時代劇 疾風蜘蛛 快盜蜥蜴平次篇 監督 白井戰太郞 主演 近衛十四郞 特別出演 水島道太郞 次週 久遠의鍵 疾風蜘蛛篇中篇 無電非常線
府內 壽町 桃花劇場 電話 三三三番

五萬府民이總動員 根本的擴張에邁進

公職者게만맛길수업다하야 來七日市民大會開催

南浦上水道問題

【鎭南浦】 전남포부의 상수도확장문제는 오만부민의 사활문제로 대동강이수안(大同江の案)이 실현되기전에는 근본해결책이 아니란는것은 부당국자나 일반부민이 갓치 절실히 늣기는바임으로 지난五月에는 공직자대회를 열고 전남포수도 촉진기성회(鎭南浦水道促進期成會)를 조직한후 도당국과 총독부당국에 진정하는등 촉진운동을 일으키엿다함은 기보한바여니와 무엇보다도 최근에와서 음료수의 곤난을밧고잇는 오만부민은 극도로 신경이 예민케되여 지난 삼일오후세시부터 부내 유지이십명이 모히여 상수도문제를 토의한결과 이문제는 부당국이나 공직자대회의 힘만바랠것이 아니라 실로 오만부민의 사활문제이니 전시민이 총동원하여 촉진운동의 박차를 가하지안으면 안될문제라고해서 위선 오는칠일오후 네시부터 극장 항좌(港座)에서 시민대회(市民大會)를 개최하고 대대적으로 긔세를올리기로 되엿다는바 현재부민들의 급수(給水)상황을 보면 각공동수도에는 오전여섯시로 열두시까지는 수도부근에 장사진을일우고 수도총대의감독하에 순서로 물을밧게되여 학교이나 시간생활을하는 가정에서는 막대한곤란을 밧고잇스며 부내각초등학교에서는 아동들에게 전부물통을 가지고 등교하도록하는등 각방면에서일어나는 물 고통은 날이갈사록심하여감으로 오만부민이 총궐긔하여 적극적운동을 일으키기로 되엿다 장차부민대회가 엇더한결과를 내일는지 각관계당국에서 엇더한 태도를 취할는지 자못주목되는바라고한다

十名作人을相對 耕作地明渡提訴

約束違反코農作物을팔엇다고 一般은判決如何注目

【海州】 저주로부터 소작인에게 소작농지명도청구(小作農地明渡請求)소송을 제긔한사건 ─ 진남포부삼화정(鎭南浦府三和町)이십이번지 령목종일(鈴木鍾一)외이명의 지주는 그의 소작인 안악군대원면송산리(安岳郡大遠面松山里)사는 김히철(金希喆)등 십명을 상대로 수일전 해주지방법원에 소작농지명도청구소송을 제긔하엿다。 그제소내용을 드르면 전긔영목은 전긔대원면소재토지 이십일정사단보를 소화팔년도부터 소작료(小作料)는 전수확의 륙할이란 고률로정하고 남어지사할의 소작인수입중에서 그삼분의일을 안악금융조합(安岳金融組合)의 차입금(借入金)의 정리와 밋종자벼 운반비등을 제하기로 하고 농작물을 담보하야 빗을 내쓰지못할것은 물론이요 매각을 하지못한다는 조건미테서 전긔김히철등십명에게 소작을 주어왓는데 금년에 수확을 하야 분배한후 소작인측에서는 약속한대로 금조의 채무정리등기 비록 적긔 수입물중에서나 약타 비용을 제하지 안코 제삼자인 배동삼(裵東參)에게 벼(稻)를 매각하엿스니 소작권을 내노라는것이라는바 일반은 소작계약내용이 지주리익에 편중되엿스며따라서 지주측의 무리에가까운 제소인만큼 사건의 추이를 주목하고잇다 한다。

그는 배를 타서 또 다시 주향(蔚州灣)으로 향하는 길로 다대남으로 또 추적하야 선산수리조합(仙山水利組合)저수지부근에서 체포하야 본서에 인치하고 엄중취조중이다 그는 작년십이월경 할동현주소(咸興府新興)를 출발한 한동 출생으로 일정한 주소가 업시 떠도라단이는 절도전과수범의 리몽덕(李夢德)(三五)으로서 해주방면에서도 여러곳에서 절도범행한것이 판명되엿는데 동서에서는 아직여죄가 잇지나 안흔가하고 계속 취조중이라한다

三處에서바든賞 教育機關에喜捨

【遂安】 평북 조악(遂安)에서도 년중행사로 단오가절을리용하야 시민운동회주최와 삼성청년수소(三成敎場所)본보 조악지국후원으로 올여름오일에씨름대회를 개최하엿든바 조악에거주하는박선봉(朴善奉)씨가 일등을하엿는데 씨는 귀성공립보통(遂安)남시(南市)상처에서도 우승하여 상으로바든 소세마리를 자동차비를제한 전액을 조악삼성유치원(三成幼稚園)에 관서공보교(關西公普校)에다가 얼마전 회사하엿다고한다

名勝의扶安邊山

避暑客마지施設進捗 溫泉湧出、海水浴場等

【扶安】 명승과고적으로도 이미 세상에 널리알리여저잇는 전북 부안변산(全北扶安邊山)은 작년부터 개장하기시작한 해수욕장을 이용하야 그선가를 더욱노피게되엿는데 오천(溫泉)의 용출로 더부러 그야말로 옥련승천의세로 명성을 떨치게되야 관람객이 날로늘어가며 별장을짓는다 점포를짓는다하야 토지가는 이상십배로 폭등하는등 실로 비약적발전을 하고잇다 그런데 해창천(海倉川)이란 시내때문에 교통에 대단한 불편을 당해오든바 도에서 금번가교키로 결정하고 삼만원을드려 칠월중순부터 공사를 착수하리라 하야 전하명승 변산은 명승지로서 말그대로의 선가를 완전히 가지게되리라한다 해수욕장은 거월일부터 개장하엿는데 금년은 설비가 완전히되엿다하며 벌서 해수욕객들이 울밀리는듯한다고한다

松禾殷栗間서 電線切斷

殷栗署서犯人逮捕

【海州】 수일전은 률군남부면장암리(殷栗郡南部面長岩里)부근이 동로당중의 송화(松禾)은률(殷栗)간의 전화선 약오십간을 절단도취한 사실이잇서 은률서에서는 범인수색에활동중 전긔남부면서당리 륙십오번지 농업 정달원(鄭達源)의소행인줄탐지하고 지난이일동서에 인치취조중이라한다

生活必要品은 모다騰貴一路

光州府民苦痛

【光州】 광주공설시장 공정미가는 륙월상순이일현재에 십오키로에 상원사십전으로부터 삼원사십전으로 등귀되여 그밧게도 르고 점점고등하고잇는바 시장의 저장미부족도 그원인의하나이라고하며 야채류(野菜類)의가격도 례년에비하야 상할내지사오할의 등귀를보이며 리발료(理髮料)도 오전식을올리는동시에 목욕갑도 오전한든것이 륙전식으로 올릿다고한다

巡査따리고! 留置場身勢

【新義州】 정주군 갈산면에도동(定州郡葛山面文島洞)임학경(任學京)(二〇)은 지난이일밤 그곳백락절(白樂節)방에서 술을마시는중에 때마침 자긔아버지가 들어오므로 퇴문으로 도주하야담을넘어 가려는것을 그곳주재소순사 리가 붓잡고 질문을하얏든바 이에분개한임은 김영혜순어잇다가 지나가는 리순사를따러부상을 입히엿슴으로 공무집행방해 폭행죄로취조중이라한다

利原에도甘雨 田穀에는洽足

【利原】 함남리원군에는 지난이일아츰에 세우가나리다가 한시간동안 폭우가와섯음으로 전북에 논물을흡족하나 아직논에는 미급되엿스나 근간 수차의폭우로 고사하던논판은 근근 소생하는 지경이며 전수답은 아직이앙을 한곳이만흐나 대개로는 적이조타한다

元山公會堂新築 今年度內로着工?

最後的具體案協議

【元山】 약진하는 원산의당면문제로서 일반부민이 요망하는 원산공회당(元山公會堂)신축문제에 관하야 저반 설립위원을선거하고 제반연구에 당케하엿든바 지난삼일오후한시에 부청회의실에서 구체안에대한 타협을 하엿스나 그설립위치의 결정이 금후일반주목의 초점이되여잇는데 이신축공회당은 전평의원을 수용할수잇게하리라하며 아래층은 상공회의소사무소로 경용하리라는바 건축은이개년계속사업으로서 금년부터 착공하리라고한다

平南의旱災對策

綠豆小豆等代用作物을決定 肥料代金도延納未免

【平壤】 평안남도내의 물긔근은 극도로 심각화하여 급수를위하여 농민들의 말초신경은 극히 예민하여저서 갈수록이심은 홍홍하며 상일현재로 도내의 십일개 수리조합몽리구역의 이앙상황은 칠할전후로 대동(大同)장수원(長水院)은 각기 백정보전후의 이앙이 그대로남어잇고 평안수리조합의 일천사오백 정보도 배수불능으로 이앙은 단념햇다

도당국에서는 대작(代作)에대한 최후의토의를한결과 건도(乾稻)는시긔가갓스니 이것도 단념하고 무 록두(綠豆) 팟(小豆)백채(白菜)등을 심으기로되엿다 이때문에 이앙도못하고 비료를 논에집어너허 석여버린수천몽리구역내의 농민은 비료대금을 납입할수업는 현상이어서 자연히연될지것으로 추측된다

沙里院의公設市場 今秋에實現確實

三萬五千圓豫算으로

【沙里院】 사리원의 당면의 중요시설의 하나로 삼만읍민이수년전부터 요망하야오든 공설시장(公設市場)은 읍당국에서삼만오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야 부지(敷地)로 팔백여평을 정하고 금년가을안으로 실현키로 결정되여잇는데 공설시장의 위치로서는 동리(東里)경합루(慶合樓)부근 매하천(梅河川)을중심하야 그린근이 위치후보지로서 선정되여잇다한다

遮湖漁組에서 懇親會를開催

【遮湖】 차호어업조합은 여러해를 내려오며 혼란한 부채문제(負債問題)를 정리하지못하야 아조 일시는 존폐의 위긔에까지 이르럿던바 도에서도 이를 우려한결과 현리사 리종건(李鍾健)씨를 인선하야 파견한바 씨가 부임한지 사년간 크게고심노력한결과 오늘에는 내부정리를 일신하게되야 당국자와일반 지방인사는 차호어조의 갱생을 크게 기뻐하는중이며 이리사(李理事)는 이로서 만족지안코 일보나아가 어업조합 본래의 사명인 일반어민생활의갱생과 향상을 목적하고 자금으로 팔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그 복안을 실현하려고하는데 지난삼십일 귀선저섬망조합(撈網底曳網組合)회를 귀회로 저번강(赤 잇슨후 설망실지작업을 열반에게관람케한후 금후어촌발전책에대하야 간담한바가잇섯는데 일반은 금후의어촌갱생계획에 다대한 긔대를가지고 기다리는바 리사의복안내용은 다음과갓다

一、漁村更生指導部落設置

二、新規事業으로 鹽藏탕크增設 貯氷庫設置

三、漁場의 荒廢防止及復舊

四、製品改良獎勵

前科數犯의竊盜 海州署에被捕

【海州】 지난칠월이일오후세시쯤되여 해주서(海州署)사법계서형사(徐刑事)가 해주읍남본정(海州邑南本町)부근을 지나는중 거동이 수상한 청년을 발견하고 이를 검문하려한즉 그는 대경

安東縣에潛伏햇든 國民府員逐送局

治維法違反으로

【新義州】 삼일신의주경찰서에서 신의주검사국으로 송치(送致)된 치안유지법위반 강도사건의 ▲安東縣六道溝 張相俊(二〇)은 대경팔년 소란당시 중국으로 건너가 국민부원(國民部員)으로 활동을 하다가 수년전에 안동현으로 이주하야 륙도구(六道溝)모『고무』공장에 직공으로 잇든중 수일전 신의주서원에게 검거되여 취조를 밧든바 드듸여그와가리 송국되엿다한다

上水道鐵管工事

【新義州】 신의주부에서는 상수도배수선로철관포설공사(上水道配水線路鐵管布設工事)로 오는륙칠일간에이르러 오후아홉시부터 이튼날오전여섯시까지 단수(斷水)하기로되엿다 한다

蒼天!是何忍斯!

飮料水까지絶斷 四千住民危機에直面

貯水池업서지자旱魃이이어繼續

信川郡蘆月面一帶慘狀

때는 이십륙년래 첫가물이 계속하는 륙월이십칠일이다 물가리나려조이는가물햇볏손음료수(飮料水)까지 단절시겨노코목이마른 신천군 로월면 일대에는 처참한연극 그대로 계속하고잇서서 『어름목허먹고 똥물걸너먹는다』는수수꺼기가튼 참현상을볼수잇섯스니 이는신천군 로월면의든 오국 정례 덕성 상교(信川郡蘆月面宜甲、五局、貞禮、德成、上橋)등 오개리에 두고한 말이나 아닌가한다

저수지가업서진 노월벌대에는음료수까지 저수치못해서 간겨울에 고인물이업슴으로써 어름과눈을 녹혀먹고 가물이 계속하는 요지음은 호랑꿈을 걸러먹게된 참상그대로이다 목이마른그들은 생명수를 구하기위하야 사방팔방으로 허더저는데 삼십리나 격해잇는 안악읍까지 멀다하지안코 본보안악 지국까지 도착하야다 그실정을 드르니 필자자신이 미더지지안호나 한번 실지에 답사할 필요를 느끼고 또한 그리면에 잡복해 잇는엇더리유가 잇슬것을 집작한필자는 서슴지안코 답사의 길을떠낫다 정오에 탄자동차가 사십분이 채못되어 로월면 오국리(蘆月面五局里)다리에서우연히맛난 김병필(金炳弼)(김씨는저수지문제로 총독부에 진정까지갓든대표)씨와가티 나렷다 사면에서 올려오는 발동긔(發動機)의 지하수(地下水)뽑아내는 소리!마티 전장의 긔관총소리 모양으로 연발하고잇다 그나마라도 긔계문명의 혜택이랄지그러케라도 이앙(移秧)을 해보겟다고 매일십이삼원식의 타비용이나는 그것을 쿵쿵거리고잇다 나종수지(收支)는 마즈나마나 시재로 왕금이든고 모판이 바작바작 말러붓는 그것이 농민들의 목마른것보다 더한층 고통이어서 물차음을 하라도 물이업서서 못차우고 할수업시 수지가맞지안흔것을 알면서도 발동긔를 사용하고잇다 김씨와 약십리가량의 그황무지(荒無地)즉 전창떨가튼곳을 도보로답사하고 음료수까지 단절되엿다는 로월면의든、덕성(宜甲、德成)량개리 경계까지다어어 찌는듯더위가 심한그때 다소의 목이 말렷스나 물좋말탈용긔가못나서 그대로는바다을다시금것기로햇다

이곳은 서강치수공사(西江治水工事)전에는 절대로 물에끈난이라엇섯고 오히려 장마(長霖)가지면 칠수할념려가 잇슨도이라고한다 우물(井)을 파면 썩은물이내소슴으로 음료수는 구월산(九月山)으로부터 흐르든 내(河川)물을 길어 먹는 비위생적 생활이던 자작농(自作農)을하는 좀돈냥이나잇다는 그들은 큰독(瓮) 십여개식을 따에뭇고 초가을빗물(雨水)을 저장해두엇다가 다음해봄 여름에 먹고그리고 이빗물은 귀물임으로 특별한 손님에게만 주는것이로 월면의 특별한 행사이다 신문긔자가 실지답사한다할이 이곳저곳에 알게되자 순간에 수십명의 농민이 수심이 만면하야 모혀들엇다 맥이나고도 살과가 도는 그들은 긴한숨을 지으면서 악혹한리면과 리유를 설명한다 상술한바오개리면의 팔백이십정보(町步)를 근이백여년간이나 정례보(貞禮洑)와 의빈보(宜賓洑)대군방보(大君房洑)삼개소에 제방축하고 이백오십정보에 저수하야써 관개하고 음료수까지 이물로써 쓰든것인데 소화칠년사월에 강개수공사(西江改修工事)를 한다는 소문이 항간에 떠돌자 모리의 간상배들은 즉시로 서강치수공사 제방외에잇는 잡종지(雜種地)를 사드리게 되엇는데 그잡종지소운은 세부측량하기전지적명부(結數連名簿)(지금은 결수연명부)에 올른 무식한농민들에게서 평양일전오리로부터 극상삼전까지 주고사들이자 소화십년에 이르려 치수공사가 준공되고보니 이삼천주고 산잡종지가개간도할수잇게되엇다 모리의간상배들이 매수한 잡종지중에는 사천주민들의 생명수를 저축하는 일백삼십정보의 저수지까지 들어잇다 치수공사가되기전에는 이백오십정보에서 저수하야 팔백이십정보에 관개하든데에 치수공사제방기타부지로써 일백이십정보는 공사터로빼앗기고 남어지 일백삼십정보는 상인의손에 들엇스니 잡종지에불과하든 저수지를 상당한가격이 아니면 매수극난한을 안그들은 즉시로 면당국을 통하야 면속영의저수지창설(貯水池創設)운동을 개시하기로하얏다

(安岳支局 一記者)

移秧은僅八割九分 九千餘町步는廢農

永興、德源、文川等地被害尤甚

咸南道內移秧總決算

【咸興】 지난달말까지의 함남도 이앙의 최후적 상황보고를보면 총독만이천칠백사십정보의 면적에 심은것이 팔할구푼오리의 오만삼천삼백사십정보로서 심지못한면적이 구천사백정보가량되다 이를 작년동기의 구할칠푼팔리에 비하면 일할이분삼이나 못하며 인제는 시긔가느니저 전혀식부할수 업는상태다 그리고 전부필한것은 장진(長津) 풍산(豊山) 의 두군뿐으로서 그외에는 대개구할이상이된다 그리고제일낫뿐데가 영흥(永興)으로서 애우라지 사할팔분 절반도못되며 정평(定平)이 칠할이분 덕원(德源)이 칠할이분 문천(文川)이 칠할이분으로서 이사군은처참에정보나 그냥묵일수밧게업는 한뎌면을 당하고잇다 한다

船橋東大院兩校 三層으로設計

【平壤】 초등학교의입학난을 완화하기위하여 선교(船橋)동대원(東大院)량보통학교를 신설하고 교사를 신축하고저 목하기지를 매수중인데 선교보통학교는 중화가도(中和街道)의로지 오천평을 매수하여 이십사학급을 신축하기로되엿고 동대원 보통학교는 평양사범학교 부속학교로되는 전제로사범학교 부근에신축코저 긔지삼천평을매수하기로되여 교섭중이다 부영선게에서는 량교신축에대하여 설계를진행중으로 평양의 토지난과 저가고로인하여 량교는 삼층교사로되엿다 평양부의보통학교십개년계획에 의하는 신설교는 전부삼층교사로될터임으로 선교、동대원량교는 최초의삼층교사로서 그설계는 교육자들로서 관심을가지고 주목중이다

師範校誘致失敗로

元山公職者總辭職

長時論議後悲壯한聲明書發表

二日公職者大會서決議

【元山】 귀보=사범학교유치운동의 실패를 둘러싸고 전원산공직자일동은 지난이일오후팔시부터 원산상공회의소 루상에서 전원산공직자대회를 개최하고 위선후대책을 강구하는일방 도차를 향하여 빼앗긴데 대하야 회의원상시씨가 륙만부민의 그래에어의러지게한 책임을 늣기고 사임원을 도당국에 제출하게되엿고 이에따라 전원산공직자가 다함께 책임을 저야되겟다고 비장한결의를가진 공직자일동은 전긔삼씨만 사직할것이 아니라 전공직자가 총사직을 단행하여야 되겟다는 의론이 회장에 떠돌앗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이일 오후팔시부터 전일에결정하지못한 총사직문제를 해결하고저 다시 원산상공회의소 루상에서 전원산공직자대회를 개최하엿는데 참석원은 삼십사명이엇다 재등사길(齋藤捨吉)씨를좌장으로 천거하고 장시간동안 당국이 원산을게자(鶴子)취급하는데 대하야 우리들은 단호히 이에투쟁을 할수박게업다 따라서 당국의반성을 촉하는데에는 이번에 총사직을 단행하는동시 부민에게 사죄해야 되겟다는 의미의 론의가 각 의원으로부터 나와 긴장한대회를 일층긴장식혀 대회석상에는 비장한 공긔가떠돌앗다 그리하야 삼일오전한시까지 장시간협의한결과 총사직을하기로결의하고 다음과가튼 성명서를 결의한후 산회하얏다

◇聲明書

師範學校設置는 咸興으로 決定하얏기때문에 元山六萬府民의 期待에 相副치못한것은 最初부터 이運動에關與하얏든吾等公職者一同의 그責任을 痛感함으로서 玆에 公職者의 總辭職을 決議함

右聲明함

昭和十一年七月二日

元山公職者大會

神人共怒할姦夫婦

本夫를毒殺後四肢를끈허 장작불에살어버린慘事

三年만에豫審終結

【大田】 자긔남편의 눈을속여가며 다른사나히와 불의의관계를 맷고 사랑을 속삭여오든중 간부와는 사랑이점점기퍼가고 본남편은 갈수록 보기실혀저 간부부가 공모하고 본남편을 독약을 먹인후 방맹이로 무수히 란타하야 죽여가지고 그래도 부족하여는지 독긔(斧)로 량팔과량다리를 끈허 부엌에 집어넛코 장작불에 태워버렷다는 신인이공노(神人共怒)할 잔인무도한 간부영동군 심천면 기호리(永同郡深川面箕湖里) 민순호(閔順鎬)와 간부 박순옥(朴順玉)은 즉시경찰에 검거되야 취조를맛치고 대전지청(大田支廳)예심부에 회부되야 예심판사의 손에엄중취조를 밧든바 당시에 보도한바어니와 우금삼개성상 동안이나 철창에서신음하든바 지난삼십일에야 예심이종결되야 불일내로 공주지방법원공판에 회부되리라한다

元山엔二十미리 農家에선喜色滿面

一滴千金의慈雨

【元山】 벼가오지안하야 원산일대의 천수답(天水畓)에는 대용작을하느니 떠들고잇든이때 지난이일미명부터 일적천금의 자우가 나리기시작하야 동일오후에는 발서 근이십미리나와잇다그리하야 지금도오는중이다 이로말미암아 수미에잡겨잇든 일반농가에는 깃븜이넘처흐르고잇다

咸興地方에는 十미리에不過

【咸興】 함흥지방에는 어미때는 느젓스나 그러나 기다리고 가다리든감우(甘雨)가이일오전칠시부터 조금식조금식 내리기시작하야 이일오후여섯시까지는 게속되고잇는데 오후여섯시까지의 우량은 십일미리반가량밧게 안되나 아프로 더게속될듯한 형편이다 이비는말르고 말라잇는 시업는 조흔비며 이앙도합일전작물(田作物)과 소채류에는다만 삼천정보의 답은이미실긔(失期)하니만큼 한을효과를 주지 아니야말로못할것이라고한다 그리고 도시농촌할것업시 음료수의 고갈을일으키고잇는때에이야말로일적천금이다

少年軍의幹部 西北朝鮮視察

【平壤】 조선소년군제삼십호대장 강순직(康淳稷)선전부장안상복(安商馥)의량군은 서부조선과동해면안의소년군상황을 시찰코저일일 평양을출발햇는데 그긴간은 약삼개월간이라한다

回甲宴經費를 育英事業에提供

崔鎭衡氏特志

【兼二浦】 겸이포읍본정 최진형(崔鎭衡)씨는 금년이 씨의회갑인데 의미깁게지낼 회갑연경비로 금이백원을 창성유치원(昌成幼稚園)과 장로교회(長老敎會)에 각각 일백원식 긔부하엿다는데 이는당지에서 처음되는일임으로 본보겸이포지국에서는 감사한뜻으로 본지일개월분을 무료진정키로 하엿다한다

西湖津延長問題 新興鐵道着工

【西湖津】 신흥철도서호진연장문제는 오래동안주민의현안이던바 당지시민으로조직된 긔성회에서 맹렬한활동을거듭한결과 지주회의원만한중라까지어게되여 불원에 공사를 착수하리라함은 이미 보한바어니와 그후저반 수속을 완료하고 지난 칠월일일부터 공사에 착수하엿다한다

地方人事

▲朴齊煥氏(開城警察署司法主任)新任人事次本社開城支局訪問

▲裵勳氏(南鮮日報支配人)新任人事次本社大邱支局來訪

▲中村龍民氏(前全北道警察部長)退職人事次本社全州支局來訪

▲洪淳英氏(私立海慶幼稚園保姆)退職人事次本社海慶支局來訪

▲千所新氏(數世軍士官中校)同上

▲內山勘藏氏(京城公立普通學校長)轉勤人事次本社江界支局來訪

▲上原淸良氏(小井里警察官駐在所主任)新動人事次小井里支局來訪

愛慾의彼岸 【42】

李光洙 作 金康穆 畵

김장훈은 가까스로 고개를돌리면서、

『내가 네게 좀 할말이 잇서』

하고 문임의 날카로운 칼끗을 피하려하엿다。

『아자씨。하실 말슴은 내일아침에 하서요』

하고 자리옷을 여미고 일어나서 전긔등을 켯다。

김장훈은 전긔불이 무서운드시 눈이부신드시 고개를 돌렷다。방에 노힌、딸혜련의 책상과 벽에 걸린 혜련의 옷을이 김장훈의 눈에 띄엇다。금시에 혜련이가『아버지』부르고 나서서 이 늙은 아버지의 망령을 원망할것 가탓다。

그러나 김장훈은 이러한 모든양심의 소리를 억지로 막아버리려하엿다。『다저녁때』라는생각과『늘때가 느저간다』는생각만을 힘잇게 하려하엿다。여자는 남자의 용긔에만 정복된다、는 말을 들은것을 김장훈은 긔억하다。

이 모양으로 김장훈은 용긔를 수습하여서 이불로 몸을 둘러싸고 떨고 안젓는 문임을 정면으로 바라보앗다。다음 순간에 김장훈은 와락 달겨들어서 문임의 어깨를 껴안으며、

『문임아。내가、이 늙은것이 오죽하면 이 밤중에 너헌테를 왓겟느냐。나는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다 내어노핫다。나는 목숨도 내여노핫서。나는 문임이가 아니면 살수가 업서』

하고 머리를 내어둘려서 문임의 입을 차잣다。문임은 고개를 돌려서 이리로 저리로 피하엿다。그러하면서、

『아자씨、아자씨』

하고 불럿다。

문임은 소리를 칠까 하엿스나 그것은 참아 할수 업섯다。어떠케 하여서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아모리 비오는 밤중에라도 이 집에서 달아나버려서 저도 성하고 김장로에게도 망신을 주지아니하고 십헛다。

『문임아。내가 재산을 줄테야 얼마든지 네가 달라는대로 줄테야。저 금은상회를 주든지、눈을 주든지。또 저 마누라라는게 메칠 못 살테니 나와혼인만 하면은 내 재산은 다네 재산이아니냐。아들놈이라고 난봉만피우고。내가 이세상에 문임이밧게 바라고 살 사람이업거든 그러니까 문임아 날 살려주는솀잡고、내 말을 들어』

하고 김장훈은 씨근씨근하면서 문임의 귀에다가 입을 대고애걸하엿다。

문임은 꾀로박게 이 자리를 벗어날 길이 업슴을 깨달앗다

『아자씨。그럼 제가 생각해보께요。지금은 사랑으로 나가서요』

하고 순하게 말하엿다。

김장훈은、

『안되지。문임이가 나를 사랑할 리는업스니까、내가 문임을 억지로빼앗을수박게 업거든。내가 죽으면 죽지、이 자리에서 그냥 나갈 리는 업서。어차피 저질러노흔 일에、인제는 끄틀 보는것박게 업거든』

하고 김장훈은 이제는 아주즘생과 가튼 용긔를 가지고 덤비려들엇다。

『아자씨。그러면 저는 소리칠테야요』

하고 문임은 위협하엿다。

『소리처도 괜찬치。인제는 나는 아모것도 무서운것이 업거든』

『아자씨。저긔、건넌방、문소리 나요。제가 옷 닙고 사랑으로 나가께요。사랑에 나가서 아자씨 하라시는대로 다 하께요。나중에 버리지만 마신다면』

하고 문임은 고개를 잣겨서김장로를 우럴어보앗다。김장로의 눈에서는 불이 나고 입에서는 동물성 비린내 석긴 또겨운김이 훅훅 하엿다。

『정말?』

하고 김장로는 더욱 씨근거리면서 문임의눈을 들여다보앗다

『네에。저 보세요。대청에 발자욱 소리가 나는데』

하고 문임은 귀를 기울엿다。

비바람 소리에 석여서 사람이 마시멋 밟는 소리가 들리는듯도 십헛다。

朝鮮內金融體系

朝鮮內銀行券撤收는 高橋前藏相의理想論

②……申泰鴻

見하면 明治四十四年三月 朝鮮銀行法에 依하야 朝鮮에 朝鮮銀行, 明治三十年四月 臺灣銀行法에依하야 臺灣에 臺灣銀行이 各各設立되고 兩銀行으로하여금 前回에 말한目的을 遂行하기 爲하야 銀行券發行의特權으로 殖民地開發에 必要한 發行을 하게된것이다 그럼으로 朝鮮當時부터 그目的遂行의終局에 일으면 撤收케될것을 이미 意味한것이 事實이엇다 卽그特權은 처음부터恒久的目標로 出發한것이 아니라 어느時期까지 이르는 過渡的 便法이엇슴을 이곳에서 알수가잇다。

×

(一) 高橋藏相時代에이르러 朝鮮臺灣의銀行券發行權을 撤收하자는意見이 머리를 드럿는바이에對하야 들로 난와서 말하게되면 卽

(가) 昭和九年末에高橋藏相은 金融記者團과 會見하엿슬때에 다음과 가티 말하엿다고한다

『現在 朝鮮銀行、臺灣銀行發行의朝銀券、台銀券은 모두將來에 日本銀行券으로 統一할것으로생각한다 自己는 昭和二年臺灣銀行에 二億圓의 損失補償을하게될때에 그特權을 撤收하라고하엿든것이 實現을 보지못하고 말엇다 그러나 이것은 時期만 到來하면 그實現을보게될것이다』

라는意向을發表하엿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大藏當局者는 恒常 朝銀、臺銀의 銀行券發行權에對하야 그撤收의機會를 엿보고 온것이 밝히 나타난다。

×

(나) 다음에는 昭和十年二月廿二日 貴族院豫算委員會에서도 高橋藏相은 亦是 銀行券發行의 統一에對하야 言明한바가 잇섯다 卽

『日本 全體로서 統一치안흐면 아니될 通貨發行權을 中央銀行에 統一하는데 對해서는 金融과 資本의統制가 必要하므로 朝銀、臺銀의 銀行券發行權을 撤收하야 日本銀行에 集中케하고 朝銀과 臺銀은 普通銀行或은 拓殖銀行으로 經營케할것이다』

이와가티 高橋前藏相은 兩銀行의 特權을 撤收하야 日銀으로 集中케할必要를 力說하엿다 다시 高橋

藏相의 銀行券統一論을 解剖하면 다음과가튼內容이 그 核心의 點으로 된다 卽 世界各國이 銀行券發行을 中央銀行에 集中하고잇는 이때에 잇서 어느때까지 一領土內에 銀行券發行의 分立을 存續케할 必要가 업다는 點이다 다음에는 兩地의 銀行券을 統一함이 日本全體로서의 通貨統制上 또는 對外信用維持上 必要하다는 點이다 이에 對한 一例를 들면 卽 朝鮮銀行의 銀行券發行制度가 그發行高에 對한 同額의 金貨、地金銀 또는 日銀兌換券을 準備케되는때문으로 그準備中 一部에 空然히 日銀券이 朝銀金庫속에 死藏되고만다 그래서 通貨政策上 兌換券을 縮少케하라고 하드래도 朝鮮券發行의 準備로 된 日銀券에 對하야는 손을 대일수가 업다 이點에잇서서 그發行權의 統一을 理想으로 삼는것이다。

×

그런데 以上과 가튼 論據의 銀行券統一論은 웨— 그實現을 보지못하고 오늘까지 各自分立이 存續되어 잇는가 이것은 한번 생각하여볼일이다 理論보다도 實際에잇서 急速히 그實現을 보기어려운事情이 相當히 잇는 때문이엇다 卽

(가) 朝銀創設當時에잇서서 銀行券發行權을 附與한 條件이 存續되어잇는點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朝鮮經濟가 아즉 日本內地에比하야 特殊的事情이 繼續되고 또는 南滿貿易金融의關係上 朝銀券이 滿洲에 通用되고잇는點

(나) 銀行券發行權을 撤收하드래도 朝鮮經濟界에 밋칠 影響이 大할것을 念慮한 點

(다) 貸付를 主로利潤의源泉으로삼는 朝銀의 打擊이莫大할것

(라) 만약發行權을 撤收한다고 하면 이에對하야 政府는 低利資金을 普通銀行으로 融通하거나 或은 何等의 代償的條件을 附與치 안흐면 아니될 難問題가 잇는點 等으로 朝銀、臺銀의 銀行券發行權撤收는 다만 理想論에 끄치고 말어서 高橋前藏相時代에 그 實現을 보지못하고 兩銀行의 特權이 存續되어오는것이다 (寫眞은 朝鮮銀行本店) =(續)=

天候順調 年事樂觀 米價는反動暴落

★……請算米、正米等市勢가 賣惜産地米投出?

日本內地는 凶作繼續의 凶作後인만큼 大阪淸算四十圓說을主張하기까지 하얏스며 去月仁川期米八月限은 三十二圓七十錢의高價로 燥發되어섯는데 其後日本內地와 朝鮮이모다 適雨로移秧이 大部分進捗되고 天候順調로되엇을뿐더러 三日後場에는 一擧大幅低落을告하야 仁川期米八月限이 三十一圓三十八錢에까지 暴落되어 去月高價에서 一百三十二丁의 大暴落이고四日前場도低迷이엇는바 各地正米市勢도四日은 三日에比하야 京城、仁川、群山 各三十五錢暴落、大邱二十錢低落을示하얏다 正米市況은 日本內地와의取引은 거의 沒交涉이고 當用外는賣物이別無인데 依然先高豫想下에 産地는 賣惜코잇지만 天候順調가繼續되면期米低와 相俟하야賣惜든 産地米가 市場에 쏘다저 나올것가티 觀測된다 한다

産金、鐵免稅는 均衡上의不合理

財務當局見解點

鑛業稅의 例外規定으로 産金及鐵은 免稅되는바 財務當局에서는 産金에對한 課稅에 對하야 다음과가튼 見解를 갓고잇다고한다 卽

産金奬勵施設과 課稅은 自然 난와질것이다 金鑛業에 對하야 課稅함은 一面金移動의調査, 密輸防止上에도 相當한效果가 잇고 奬勵는 따로 考慮하면 조흘것이다 그러고 燃料其他 必需鑛物의 開發에는 課稅하고 金、鐵에만 例外를設함은 鑛業에잇서서 不均衡이란 말을 免할수업다

이主張은 때가때인만큼 注目되고 또 財政膨脹의 때이므로 課稅對照로 될것이라고 한다

運輸連絡會議

第十五回運輸連絡會議는 十三日로부터 三日間 東京鐵道省會議室에서 열엇는데 朝鮮에서 佐藤營業課長 吉田運輸係長以下書記數名이 出席할터인데 提出議題는

一、鐵道局、總局間旅客、手小荷物局線의 連帶取扱을 各驛取扱키로 擴張할件

二、鐵水發着省局廻游團體도 日本內地 朝鮮 滿洲 臺灣旅客의 連帶運送取扱手續에 依한團體의 取扱을할件

三、省線과의 連帶運送에 手荷物의 一部途中下車制度實施의件

四、連帶乘車券에 對한 乘車券引換證制定의件

五、東內受託의手廻品連帶運送取扱實施의件

六、關釜連絡船에 大型船就航後 入渠其他境遇의 代船에對하야

夏枯期!

銀行預金貸出減

六月二十日現在 京城組合銀行의 預金貸出狀況은 預金一億四千三百六十七萬一千圓으로 六月十五日現在보다 六百五十八萬三千圓의 減少, 前年同期보다 二百六十一萬五千圓의增加이다 貸出은 一億五千九百二萬三千圓으로 六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二百八十四萬二千圓의減少、前年同期에比하야 一千六百八十二萬七千圓의 增加이다 預金貸出이 모두減少한것은 夏枯期에 드러간것을말하는것이라고한다

石油統制의强化

朝窒에獨占식히기로

內油各社의 精製油販賣撤退等이 表面化하는바 다시 燃料國策上으로 殖産局에서는 內閣에 提議한國策新豫算에 石炭液化의助成豫算을 提議하는同時에 다시 今年度以後 石油統制를 다시强化키로되엇다 爲先 豫算으로는 朝窒의海軍式石炭液化에對하야 補助를 하고 永安의低溫乾溜事業과 代用燃料의大量生産을 하게할意向으로 그補助에 現在永安年額十萬圓補助인데 海軍式에는三十萬圓程度의 補助로될 豫定이다 結局 朝石과 朝窒의 兩社에朝鮮內 石油의供給을 獨占케하고이에 依하야 統制를圖케될이라고한다

新米格付協議

四日取引所聯合會

新米의格付를 協議할全朝鮮取引所聯合會는 四日 午前十一時부터 朝鮮取引所에서 열고 總督府에서 石塚國檢所長 吉池技師 岡信商工課事務官等臨席 釜山 木浦 群山 大邱 朝反의各代表者가 出席하야 十月限으로부터 十二月限에 일으는 新米의 格付를協議中인데 朝鮮取引所側은 銀坊主多摩錦十錢格下의 方針을 希望한다 그러고 總督府의 希望인 容量의 統一及 受渡米市量制의 加味問題에 對하야도 協議할터이라고한다

朝鮮內新工場數

◇……四個年間七十二

朝鮮內 各種工場은 繼續 建設되는데 總督府商工課調査에依한 昭和七年以後 今年六月末까지의 新設工場數는 建設中의 四個所를 빼여노코 다음과가튼數字를 示하엿다

咸北 二四 京畿 一六 慶南 一四 全南 四 江原 三 咸南 三 忠南 二 黃海 二 平南 二 全北 一 慶北 一 計 七二

漢銀專務辭任

漢城銀行專務取締役 堤永市氏는 定期總會를 압두고 四日附로辭表를 提出하엿다 이것은 同氏가 鮮滿拓殖會理事로 內定된때문이라고하며 氏는 昭和三年韓相龍氏가 同行을 떠나게되든때부터 整理案이 成立되면서부터 專務로 오늘까지 일하여왓다

魚油不定量入札

七月分三圓七十三錢

魚油公販의 七月分不定量入札은 入札되지못하야 再入札後의 隨意契約으로 三圓七十三錢에 朝鮮産業과 契約하엿다고

人絹前途

供給不安이繼續

人絹의 目前的强材料로 볼것은 다음과가튼 諸點이다 卽

(一) 聯合會의妥協的態度로 統制가 顯著히 進展되고잇는點

(二) 需要期를 압두고 特殊絲、下品物이 顯著히 强調를 보히는點

(三) 實需方面은 警戒態度를 繼續하고 잇스므로 極端의所持濫을 보히는點

(四) 大連輸出도 漸次 好轉의徵光가잇서서 商談이 展開되는點

(五) 輸出織物은 繼續하야 好調로 織物市勢도 强强한點

(六) 淸算市場도 玉整理가 一段落을 告하야 投物이 다나온點。

以上과가튼 好材料가 잇고

重要商品界事情

統制問題가 엇때케든지 協의 可望이 보히고 形式的 統制가 될것이나 만약 非加盟側에 對하야 條件附로 그 加入을 許케되면 第一商小會社가 沈默을 직히고 잇지안흘것이다 가령 한거름 讓步하야 强固한統制가 뫼드래도

殖銀人事異動

後任伊賀氏內定

그專務 後任에는 殖産銀行大邱支店長伊賀誠一氏로大體內定된모양이라고 四日附로 支店長級의 異動이 다음과가티 잇섯다고

▲命本店勤務(大邱支店長)伊賀誠一 ▲命大邱支店長(馬山支店長)平原保 ▲命馬山支店長(檢査役)中村孝嗣

兩工場引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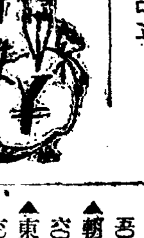
日本製粉에서

日本製粉은 旣報한 滿洲製粉의 鎭南浦、沙里院兩工場의 買收契約을 맛내엇는데 三日 大權日粉京城支店長立會임에 鎭南浦工場을 引繼하고 沙里院工場을 引繼키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이에伴하야 兩工場의 從業員도 一切 그대로 引繼할터이라고한다

本店轉任하엿슴으로 現在兼任한 東洋製紙義州、三成兩鑛山各監査役、朝鮮無煙炭、朝鮮生絲、朝鮮石油의 各取締役도 辭任하고 後任支店長에 引繼할터이라고

○日銀理事補充=【東京電話同盟】 日本銀行에서는 四日株主總會를 열고 田中鐵三郎理事辭任에 伴하는 後任選擧에 現營業局長 平瀨愛藏氏가 當選하엿다고

經濟寸鐵



○大阪穀物同業組合의 朝鮮袋入白米不買決議를 言語道斷이라고 齊藤穀物協會幹事長이 痛擊

○仁川 某某穀商이 大阪서 直賣한것이 不買決議의 裏面理由라고

○爲政者나, 商賈이나, 消費者나 저의들 생각은 개리 두는바람에 朝鮮白米가 안팔리게된다면 이야말로 꽤해싸홈에 새우등터지는格

○朝鮮쌀의 恩德을 기피 認識하라 朝鮮쌀이 아니면 무엇을 먹을가를

○知恩이면 모든 不合理한 政策이나 井中蛙的 偏見은 一掃될것

經濟界消息

○商銀總會=四日開催=商業銀行에서는 六日重役會를열고 上半期諸決算案을 附議內定할터인데 第六十期定期總會는 二十四日 午前十時부터 同行에서 열기로 開催內定하엿다고

○平南鐵道創立發起人會=齋藤久太郞、田川常治郞兩氏等이 計畫中의 平南鐵道株式會社(二百萬圓十分一拂込)는 十一、二日頃 創立하야 發起人會를열고 곳五千株를公募한뒤 八月上旬 創立總會를 열게될것이라고

○小川三井支店長諸重役兼任辭任=三井物産京城支店長小川瀰太郞氏는 이번 本店秘書課長으로

六月四日高와 恰似한東新步調

七月四日 東京東新이 百三十五圓丁三十錢에買込되고 百三十三圓에 急反撥되어 大轉換의形態가 보이엇슨데 今四日亦是 百二十七圓十錢寄後 百三十圓十錢으로 五圓棒을그엇슴으로 그步調가恰似하다 六月四日高는 二圓續高後 再落에轉하얏섯는데今日高는 또그러케되지나안흘지? 자미잇는問題인데 弱氣는今日高가 市勢律의 一反에不過한것이오 百圓臺로떠러지게 되리라고 보고잇는바 果如何?

國策不安不去

發表안는危懼

三日부터 열리는國策審議閣議는 新政策의 說明內容을 發表치안코 擴開되어 언제나 그具體的全貌가 나타날지 不安이 延長될뿐이데 軍部豫算은 國防完璧을期하고저 膨大한數字가 計上될것으로 增稅도 意外의 重稅가될지모르는 情勢에잇다 그럼으로 時代性을떠난 東新가는取引所株는 今日비록 三圓가랑反撥되엇다할지라도 이로써 大轉換의一步라고 斷言키는輕率할듯

株式下落一過 反撥

前場急騰 休日을압둔 半日立會인 今前場도 寄付는鈍狀이엇스나 東京、大阪의 東新이 依然反騰되어 場面은買人氣化하고 東新百三十圓十錢에關門恢復의 活況이엇스며 이氣勢에 朝取七十九圓丁에 濃移高를

商況(四日)

東新百三十圓

飜然反撥好勢

電力國營에서려를맛고 增稅念慮에기운이꺽기어 十圓棒下를하고도 無反漸落의肺患商狀이繼續되던 東新은今前場飜然回復되어 東京東新은 百三十圓十錢에까지 反撥되어 十二圓구나할것이시 飛付上向임으로 三番底形成의 買가만히엇는데 買方은 底接近觀으로 投擲하고 그대로 買玉을 가지고잇섯슴으로 이런關係로보면一氣鑿進은疑問이업지안라 그러나 大阪情報는 二十圓高가잇다는소리도잇서서 場面은 買人氣로明朗하야젓다

朝取爆發高!

마바라追從買

業績樂觀을材料로 一部仕手의買思惑으로 勝勢를거듭하던 朝取新舊는 日本內地取引所株不勢로勝勢一息이더니 今前場東新反撥의後援으로 買氣爆發하야 朝取는七十五圓五十錢에서 七十九圓으로 三圓五十錢이나 올낫스며 朝新도 三十三圓臺內追인 三十二圓九十錢의 高價가잇섯는데東新이眞正恢復된것이라면 朝取百圓 朝新四十圓目標도 無理가아니라하야 마바라의 追從買가만허섯다

市場六感

(株)……三日의 國策閣議는何等內容發表가업고 强弱間材料提供이업시 흐지부지▲二日百二十六圓五十錢이 目前底가되고 今前場은 飜然反撥百三十圓十錢의 高價가잇서 三圓六十錢高이고 百二十九圓九十錢大引▲기엇해야 百三十圓內外로라던것은 나와다 今後코스는? ▲오래동안 二、二六事件以來 總悲觀賣 一貫론이라 相當한 反動高를 期할이조흘것가트나 增稅 統制不安이 延長되어가니 비록高價合이 잇슬지라도 結局再賣抑되지 안흘가 念慮

(米)日本內地는 天氣恢復으로 賣人氣가 旺盛하고 朝鮮은雨期에入한 觀이업지아니하야 또한賣氣優越▲아즉도 天災期가 遼遠한今日에잇서 一朝의好順을 樂觀할수업스나南國의 人心은볼서 豊作을豫期하야▲그러고 日本內地도 昨今의現象으로보아서는 靑田賣의 謳歌를듯하게될모양이라 고云云 果如何? 그러데 昨今阪地市場을 中心으로馬越派의 猛烈한賣物이 擬出하야 田中白의 防戰도効를奏하지못하고 六十丁이나 瓦落當分恢復은難望?

瓦落後에下澁

永續性은疑問

昨日東、阪其他各地市勢의 一齊瓦落을 伴하야 當地亦約五十丁의反落을 告하엿스나 今年은二年繼續의 凶作으로 農村都市를 不問하고 依然前途의 高米價를 夢想하고 잇는만큼 賣惜하는農家는 米價의 如干低落은 全然不拘하고 正租一斤에 十錢程度의 市勢가現出하기까지 方針을 變치안흘것갓고 淸算의 買方은一端買建한쌀을어데까지 持久戰을 할모양으로 現中限과 如한쌀은

後場低堅 後場은 三十一圓四十三錢에 同價始場後 四十七八錢에少堅이고 四十七錢에 止場하다

堂島期米一息

【大阪電話】天候恢復과地場聯合의 策動도잇서서 商勢一段惡目을 帶하고 特히中限에藤田의投가出現하야 軟派의追擊이急하고 中先은新市低價로 慘落을演하얏스나 今朝는 買方의 投一巡이오 되어 强氣의押目買進으로 人氣安定 되고 上勢로 轉하얏는데 高價에는 軟派의戾待賣로 伸力不添이오 一息氣味이엇다

各地正米

京城奔落

極端的賣行不振인데다가 期米의 急頓化를듯고 市勢는 一氣로 三十五錢低唱이엇다 丸仁三等三十一圓二十五錢 四等三十圓九十五錢 一等白米二十三圓五十錢

仁川暴落

昨後場來 期米의 反落轉換으로 一般賣氣가 挫折되고 明은 一擧로 三十五錢急奔落을 告하얏다 丸仁三等三十一圓二十五錢 四等三十圓九十錢

釜山弱含

當用側의 直買가 散見되나 依然히 新味에乏한 商狀을 不改하고 定期低와 相俟하야 弱含唱인角ㄱ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八錢

大邱反落

對日本內地取引은 거의 沒交涉인데다가 期米의 低落을 移하야 氣配二十錢反落을 告하얏다 角ㄱ三等三十圓八十錢 四等三十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群山崩落

아즉 賣物가튼 賣物이不現이나 昨後場來의 期氣崩을移하야 人氣顯著히 化하고 極端으로 不賣인데다가 一氣로三十五錢의 急低落을 演하얏다 變ㄱ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五錢 一等白米十三圓八十錢

木浦下澁

定期低로 依然商談이 不振하고 人氣多少引緩氣味이나마 賣物薄을 떠드리各地低에不添하고 强硬히 下澁인 丸木三等三十一圓八十錢 四等三十一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今日財界 (四日)

實物前場取引

大阪國債市場

東京國債市場

餘勢는尙軟弱

當分戾賣得策?

朝取期米取組內容

期米 賣叩一巡 下支

前場下澁

金.銀.白金 德 應需買販引換金代 文注方地 金元料送要 京城德力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234 京城府明治町

株式 米期 朝取取引員 仁川府本町二丁目 電話(二)七七三 五二六 東京商業興信所 柳來惺商店

康益夏商店 米 仁川 京城 株 金益證券株式會社